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자료집 ①

REPORT OF  
THE KOREAN PUBLISHING CITY ①

1989. 6. - 1990. 2.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추진위원회  
COMMITTEE OF THE KOREAN PUBLISHING CITY CONSTRUCTIONS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자료집 ①**

**1989. 6. - 1990. 2.**

출판도시는

産業의 文化化,  
文化의 産業化,

그 중심 基地가  
될 것입니다.

##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자료집을 내면서

책을 통한 민족문화의 발전을 위해 우리 출판인들은 지혜를 모아 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원대한 꿈을 현실로 바꾸어 놓을 이 계획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대역사로 우리 문화사에 길이 남을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우리 출판인들은 정부 당국과 관계기관은 물론이고 언론계, 문화계, 학계 등 사회 각 부문에서 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서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야심적인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조그마한 실수라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고 보다 긴 안목으로 건설 사업에 임함으로써 국민적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산 신도시계획에 출판문화산업단지가 중추적인 기능으로 설계됨으로써, 이 사업의 실현이 가시화된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간의 과정을 돌이켜 보고 앞으로의 사업추진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나가기 위해 이 자료집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 자료집은 황량한 들판에 거대한 문화도시를 우리 출판인들의 힘만으로 건설하겠다는 일견 허황돼 보이는 백일몽과 같은 구상의 단계는 물론이고,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이후 그것과 연계하여 시초의 구상이 축소되어 보다 현실화되는 과정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또한 출판인들과 도시 설계전문가 등의 견해를 듣기 위한 심포지엄의 토론 내용, 그리고 건설추진 주체인 출판인들의 굳은 의지가 담긴 결의문 등 그간에 제작되었거나 발표된 모든 자료와 신문 잡지 등에 실린 관계 기사, 추진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진들을 하나 숨김없이 모두 모았습니다.

우리들의 시행착오까지 이 자료집에 모두 담은 것은 이 사업의 과정 역시 그 결과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은 아직도 계획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써 앞으로의 진로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이들에게는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자료집에 혹 빠뜨린 것이 있을 경우 다음 자료집에 반드시 추가할 것이며, 앞으로 이 사업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우리들은 모든 과정을 자료집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길 것입니다.

1990년 3월 1일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기웅

## Summary

### Releasing the Collective Data for the Korean Publishing City

A project for the creation of a publishing city has been launched by a group of Korean publishers with a view to developing national culture through publication of books and other reading matters.

This project, once actualized, will be a dream come true for the Korean publishing industry, and a rare example of its kind throughout the world, and will go down as one of the greatest accomplishments in the history of Korean culture.

In the course of developing the project, we have been reasonably encouraged by the positive support from the news media, cultural and academic circles, as well as the government authorities that have expressed the need of a publishing city in one accord. And we were determined to try every means imaginable to bring the proposed project to reality.

The government plans to create a new satellite city in the outskirts of the capital city of Seoul include a publishing city as one of the key functioning bodies of the city. Since the announcement by the government of launching creation of the new city, we have rendered our incessant efforts for the earlier actualization of our long-cherished desire in line with the policy of the government authorities concerned. We decided that it would be a good idea to put out in any form a material data with regard to facts and figures on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ial park, and that it would make a meaningful contribution to our efforts to move ahead with the plan.

In this brief summary of material data, one can see every effort we have rendered so far toward materialization of the plan, one that was seemingly nothing but a day dream in its early stage. Also included in this material data are discussions and debates exchanged at the symposiums which were designed for the hearing from the specialists in the respective field, the public announcement showing the determination of Korean publishers to bring the plan into reality at any costs, all the news coverage as well as photo materials vividly showing the entire development of the project from the early days of the project.

This also includes even our own faults and errors that we committed in the course of implementation of the plan, because process of the project, good or bad, is as important as its consequences.

The Publishing city is still in its infant stage, and there may be many obstacles that we would have to overcome. We believe, however, that by looking back at what has been done, we would be better able to carry out our plan, and those who would contemplate same type of venture in other field of industry would benefit from what we have gone through. If there are any that are not included in this collection of material data, you will find them in the next one due out in the not-too-distant future.

March 1, 1990  
Committee of the Korean Publishing City Constructions  
Chairman, Yi, Ki Ung

### **Background of the Materials.**

1. This was intended to inform publication businesses as well as their affiliated industries of the necessity of creation of a publishing city, and to indicate the direction of its construction plan. This may be regarded as the primary strategy concept of the city.
2. This was the first symposium ever held in conjunction with a publishing city, in which a panel of four specialists in the related fields were asked to discuss the feasibility of the city.
3. The announcement prepared by the prime movers for the materialization of the publishing city, and the statement giving consent to the project was passed out to the panel of the symposium.
4. This was the data provided to construction specialists to work on the construction plans, and made available through the assistance from the Korean Publishers Association.
5. This is the detailed construction plan prepared with the assistance and technical guidance from the city planners. This is now used for international purpose by the special task force for the actualization of the project.
6. This is a summary of the construction plan and has been submitted to the government authorities and other related organizations, and also passed out to member companies that are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7. This is an announcement adopted at the prime movers meeting at the auditorium of the Korean Publishers Association at 10 a.m., on September 5, 1989 for the launching of a publishing city. This project had been found feasible and endorsed by many publication businesses and other related industries.
8. Members of Launching Committee during the period from June 20 to July 31, 1989. Members of Launching Committee during the period from August 1, to Sept 4, 1989. Members of Execution Committee during the period from Sept 5, 1989 to date.
9. This was the data presented by the Korea Land Development Corporation at the time of symposium held at the announcement of construction of a satellite city of Ilsan. This was passed out to members of the Launching Committee along with the report prepared by the Committee Chairman.
10. These were reference materials to be used for briefing on behalf of members of the Culture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other organizations concerned.
11. Rules and regulations of Launching Committee. and Statement of oath.
12. The 1<sup>st</sup> Questionnaire sent to the 170 member companies that had paid in launching fund. It was intended to serve as detailed data for the publishing city project.

##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자료집 ① —————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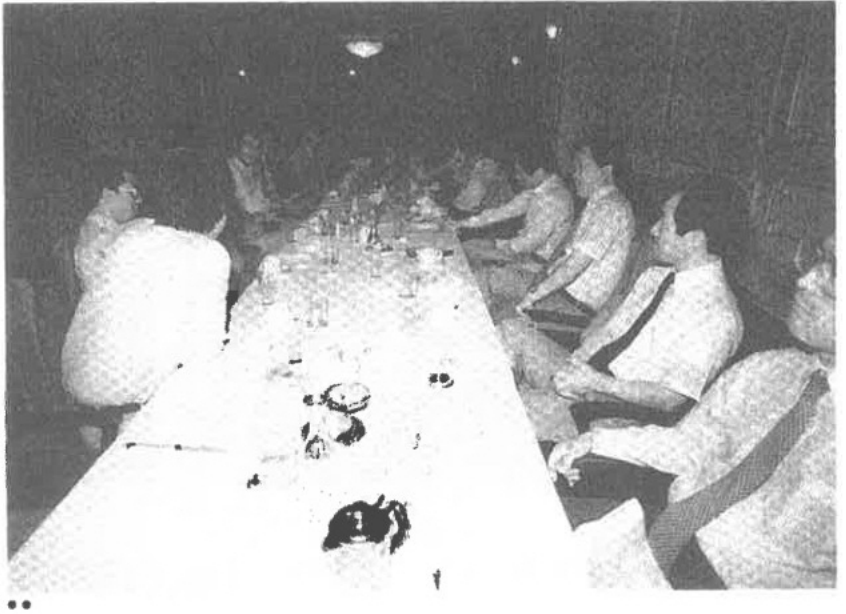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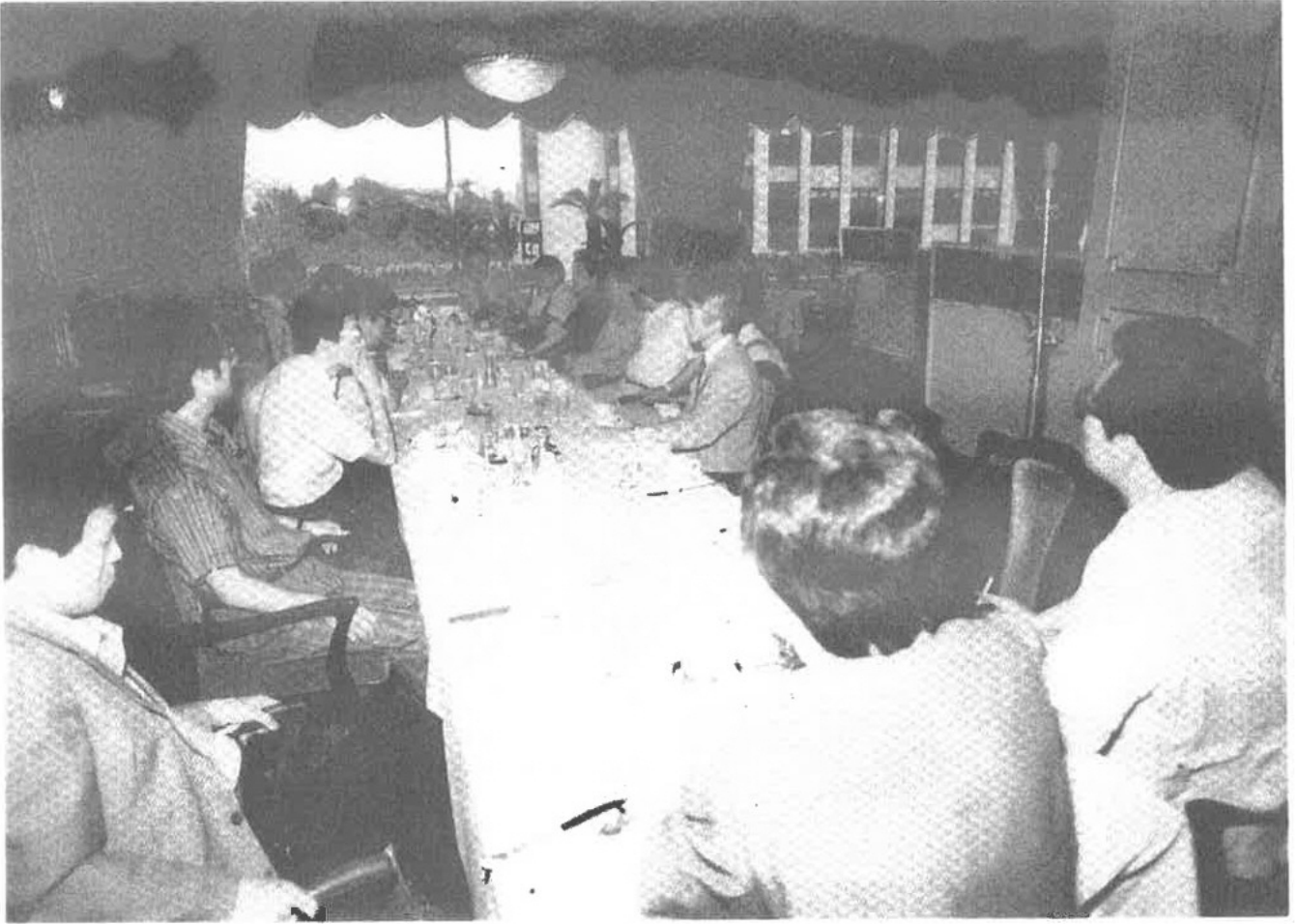
서문	5
<b>Summary</b>	6
-- Releasing the Collective Data for the Korean Publishing City	
-- Background of the Materials	
<b>사진으로 기록된 자료</b>	11
<b>인쇄 발간된 자료</b>	23
자료 1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24
자료 2 21세기 한국출판문화산업의 발전전략	28
자료 3 발기취지문, 발기인 승낙서	38
자료 4 출판도시 참고자료	40
자료 5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계획안	42
자료 6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1)	48
자료 7 위대한 책의 문화를 창출하자	54
자료 8 출판문화산업단지 발기준비위원 및 실행위원 명단	58
자료 9 긴급보고와 일산신도시 계획에 관한 공청회 유인물	58
자료 10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추진 현황	70
자료 11 추진위원회 규정집 및 서약서	75
자료 12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을 위한 제 1 차 설문조사	76
<b>신문, 잡지에 보도된 자료</b>	79

사진으로 기록된  
자료





• 1989년 8월 5일, 대한출판문화협회 건물 정면에 부착된 「출판문화산업도시 건설」의 플래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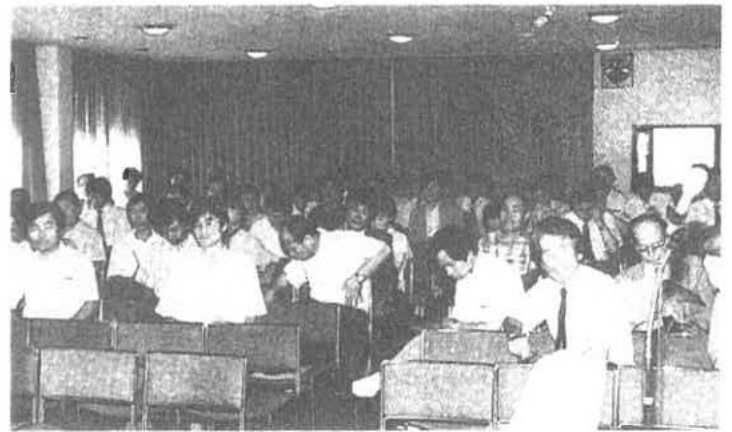


- 1989년 6월 9일, 추진준비위원 회의.
- 1989년 7월 9일, 추진준비위원 회의.



1989년 7월 14일,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을 위한 심포지엄>

- 발표를 마치고 열린 토론을 전개.
- • 심포지엄에서의 토론자들.
- • • 심포지엄에서의 토론자들.



1989년 8월 18일, <건설추진 경과 설명회>

- 추진 계획안을 설명하는 위원장.
- • 추진 계획안 설명을 경청하는 직원들.
- • • 추진 경과설명을 경청하는 관련업계 인사들.

# 과문화산업단지건설조합발기인대회



# 과포지산업단지건설조합발기인대회



1989년 9월 5일, <건설조합 발기인대회>

- 정진숙 회장의 축사.
- 권병필 출판문화협회 회장의 인사말.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건설조합발기인대



1988년 9월 5일, <건설조합 발기인대회>

- 추진 경과 보고
- 120여명의 발기인이 출판문화협회 강당에서 대화를 가짐.
- 안건 토의.
- 안건 토의.



기 록

총액 : 1.000  
수량 : 2,000 장

각계 인사들로부터의 헌금으로 조인하는 도서기증서  
작성과 발급에 소요된 기금 2,000 장의 결산 보고서  
입니다.

1989. 12. 11

대한민국헌정회 조인위원회  
위원장 김 경 우

도서기증서



- 1989년 12월 11일, <고양군청에서의 도서기증식>
- 위원장이 군수에게 도서기증서 전달.
  - • 고양군청에 도서기증 후 군수 및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 • • 군청회의실에서 군청간부들과 대화를 나눔.
  - • • • 군청회의실에서 군청간부들과 대화를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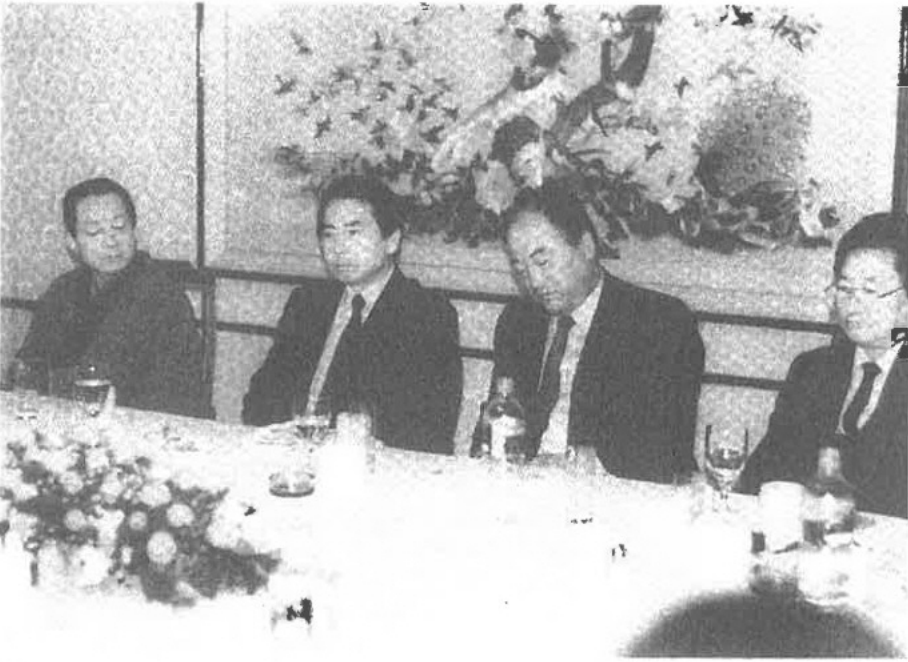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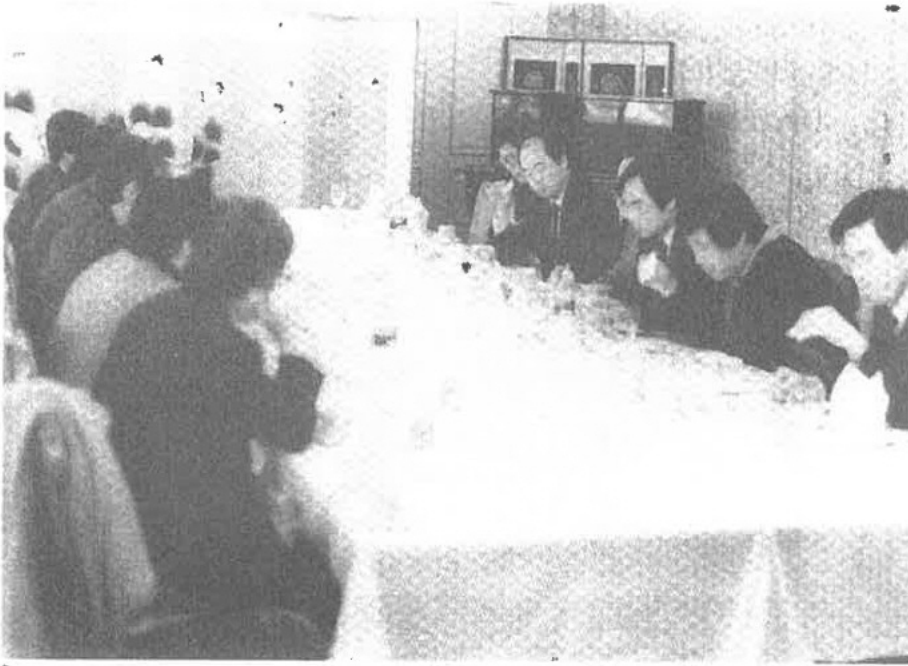
1989. 12. 11.  
 1989. 12. 11.  
 1989. 12. 11.  
 1989. 12. 11.

도서기증서



- 1989년 12월 11일. <고양 경찰서에서의 도서기증식>
- 도서기증서 남독
  - 위원장이 고양경찰서장에게 도서기증서 전달.
  - 도서기증 후 기념촬영.
  - 고양경찰서장실에서 헌담.





••  

<실행위원 회의>

- 1989년 11월 14일, 상오7시 30분.
- 1989년 11월 21일, 상오7시 30분.



- 1990년 2월 20일, 상호 7시 30분, 실행위원 회의.
- 1990년 2월 7일, 오후 10시 40분, KBS 1TV 문화가 산책에 출연한 위원장.



1989년 12월 14일-21일 <위원장의 프랑스 방문(프랑스 외무성 초청)>  
 • 외무성 도서관장 이브 마뻡(가운데)  
 • 예술도서협회장 안느 드 마르쥬리(가운데)  
 • • • 갈리마르 출판사 수출국장 장 마르끄 사브와예(왼쪽)  
 (통역은 파리 제7대학 동양학부 부교수 마틴 프로스트)

**인쇄 발간된  
자료**

#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Korea Publishing City

## 자료 ①

제 목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Korea Publishing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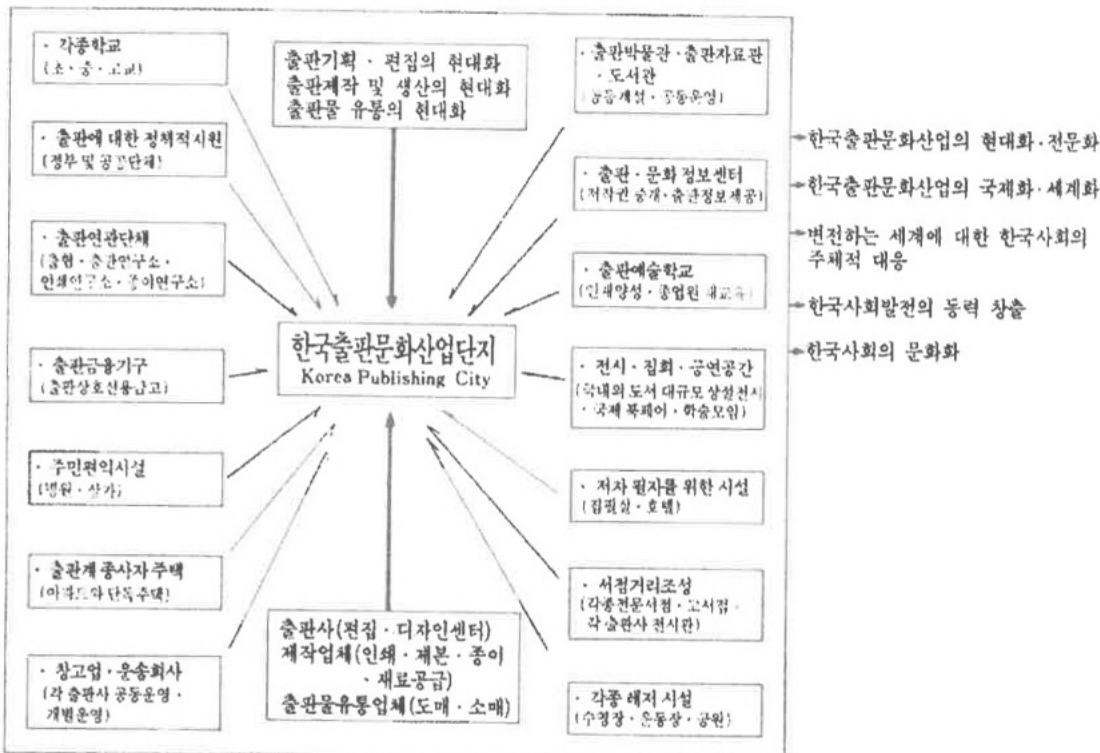
작성자 건설준비추진위원회

작성일 89. 6.

배 경 산업단지건설의 필요성을 출판 및  
관련업계에 알리고 건설의 방향을 제시한  
최초의 전략 개념안.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준비추진위원회

## 21세기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의 현대화를 위한 전략



#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1. 우리는 왜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를 건설하는가
2.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의 기능
3.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의 위치·규모 및 건설소요시간
4.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에 들어서는 내용 및 업종
5.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에 들어설 공공·공동시설
6.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건설의 추진 절차 및 원칙

우리의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는 좁은 의미의 출판문화물 창출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 사회·문화 및 출판산업의 총체적 발전에 이끔어가고 싶게 해 내는 종합적 동력권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국내외의 다양한 문화행사가 출판문화산업단지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세계의 산업과 문화, 학문과 사상을 조망하는 원천권이 될 것이고, 우리의 민족문화와 세계화시키는 장군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세계의 한국화, 한국의 세계화'라는 사명을 안고 있다면 우리의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는 바로 이 역할을 넘어하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는 따라서 출판문화 및 문화일반을 전경으로 이해하는 정부의 정책입안자, 지식인·문화인·전문가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다. 우리가 세계에 내용이 자랑할 수 있는 문화창출의 단진으로서, 그리고 가장 진보적인 내용과 정감을 담아내는 우리 민족사회의 모체로서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자가, 21세기 우리 민족의 위대한 가능성이자 문화창조의 공간으로서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의 건설을 여기 안다면, 우리는 이 고상 작업에 이념을 광범위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 1. 우리는 왜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를 건설하는가

다사다난하고 고난에 찬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 21세기를 맞이하는 이 전환기에, 우리 국가사회가 세계의 정신문화와 물질문명을 주체적으로 수렴하여, 우리 민족의 보다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출판문화의 기능과 역할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출판은 나라와 사회의 정신적·물질적 풍요를 담보하는 창조적 원동력이다. 나라와 사회의 발전 전략 및 그것을 뒷받침하는 지식과 지혜의 힘은 책의 문화를 통해 비로소 창출된다.

이 민족사회에 위대한 시대가 된 21세기를 맞으면서 우리는 찬란한 민족문화의 역사와 전통을 우리의 긍지와 근거로 삼는다. 모든 문화의 핵심이자 국가사회 발전의 원천인 출판문화는 우리는 그 어느 민족사회보다 인력부터 창출해 낼 바 있다. 위대한 조상들이 창출해 내 오는 우리들에게 넘겨준 찬란한 문화와 전통을 우리 스스로의 역량으로 새로운 시대 21세기에 힘 있게 재창출해 낼 단계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민주화시대를 향해 건진하고 있다. 우리는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문화의 새봄을 되살려 자유민주주의에 뿌리 내리는 신진된 산업사회를 이루어내기 위해 서 문화의 힘을 인식하고, 그 문화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출판물 국가와 사회의 기본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

21세기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문화입국 정책·출판입국 정책을 우리의 중심개념으로 삼아야 한다. 21세기는 새로운 과학과 산업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 과학의 시대, 산업의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지식 및 정보산업의 기간으로서 출판산업의 육성도 당연히 요구된다. 출판산업은 이제 책을 쓰고 만들고 읽은 사람간의 소유권이 아니라 발전하는 국가사회의 보편적 필수조건으로서 우리 앞에 떠오른다. 격변하는 국제사회를 우리민족의 것으로 창출해 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시도가 갈라, 그리고 사상의 눈리가 국제화되어야 하고, 바로 이 국제화가 출판물 통해 세계적·조직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출판문화의 주체로서 그 창출작업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출판인들은 우리의 문화적·기업적 소임을 다하고자, 그리고 다가오는 21세기의 세계를 우리민족의 것으로 창출하기 위해 우리의 지혜와 열정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한국출판문화단지를 건설하려 한다. 우리의 문화적·기업적 역량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출판문화의 전과정을 현대화시키고 과학화시켜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출판창출기술을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고 출판의 잠재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심으로서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출판물의 건근대적인 생산관행과 유통질서로부터 벗어나 현대화되고 과학화된 새로운 출판문화산업을 창출하고 그 발전을 가속화시켜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 2.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의 기능

1. 각종의 출판물을 기획·편집·제작하는 공간이 된다.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는 각종의 출판사들이 공동으로 입주해 스스로의 일을 해내는 작업공간으로서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지식산업을 창출·공급하는 중심이 된다.
2. 각종의 출판물을 인쇄·제본하는 공정의 공간이 된다.  
각종의 인쇄소·제본소들이 각 출판사에게 기획·편집되어 넘어오는 출판물들을 생산해 내는 작업공간으로서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는 존재한다.
3. 도서출판 유통의 공간이 된다.  
제작되어 나오는 출판물들은 가장 짧은 시간내에 단지 안에 동시에 입주하고 있는 도매업들 통해 곧바로 시장으로 유통될 수 있다.
4. 각종 출판물의 생산 및 배포에 연관되는 기능의 효율적 공급공간이 된다.  
각종 출판물의 기획·편집·제작·인쇄·제본·배포에 요구되는 부대시설 및 연관업체들이 단지내에 동시에 입주함으로써 출판물의 생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5. 각종 출판물의 기획·생산·유통작업을 과학화·현대화시킨다.  
출판사와 인쇄·제본 및 도매업의 공동작업·공동연구를 통해 우리 출판문화의 생산·제작·유통의 과학화·현대화를 도모할 수 있다.
6. 출판문화산업의 현대화·과학화에 요구되는 각종의 전문적 기능을 집합시킨다.  
출판의 질적 내용 및 형식을 발전시키는 미술·디자인·사진 등의 작업팀을 집단으로 유치시켜 출판사들과의 작업을 병행시킬 수 있다.
7. 출판문화에 요구되는 각종의 원료 및 소재의 개발을 촉진시킨다.  
출판사들과 제작업체의 공동작업에 의해 종이·잉크, 제본에 사용되는 재료의 효과적인 개발이 용이해진다.
8. 독자 및 독서시장의 확충을 연구·도모할 수 있다.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하는 시장의 개척이 공동연구·공동작업을 통해 현충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9. 출판문화 및 문화일반의 진흥을 도모하는 국내외 문화창출의 공간이 된다.  
출판의 발전 및 문화일반의 발전과 직접·간접으로 연계되는 각종의 문화행사를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는 주최·주관할 수 있다. 각종의 문화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나라와 사회의 문화운동의 또다른 중심이 되게 한다.

10. 우리 출판문화의 국제화를 도모하는 공간이 된다.  
출판문화의 국제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 출판계의 국제화를 도모할 수 있고 한국출판계의 국제적 진출을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우리 출판계의 수준을 높이고 국제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국내행사 국제행사를 기획할 수 있다.

11. 출판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쾌적한 삶의 공간이 된다.  
사원주거를 단지내에 건축하여 제공함으로써 노동공간과 개인적 삶의 공간을 통합시킨다.

12. 출판문화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교육공간이 된다.  
출판예술학교 등의 설치·운영을 통해 직업적 출판인을 양성해 내는 한편 출판계에서 일하는 기존 종업원들에 대한 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13. 출판문화협회·출판금고·출판연구소·출판학회·인쇄제본연구소 등 출판계의 단체 및 연구소들의 입주를 통해 그 기능을 확대시킨다.  
출판사들과 인쇄소 등 제작업체들의 단지입주로 출판계의 각종 기관도 당연히 옮겨 갈 것이고, 이같은 기관류의 기능은 한층 활기를 띠게 된다.

### 3.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의 위치·규모 및 건설소요시간

#### 1.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의 위치

- 1) 서울의 번두리  
한 국가사회의 문화창출의 원동력이자 핵심지대로서 출판문화산업단지는 수도에 위치해야 한다.
- 2) 서울에서 자동차로 1시간 이내에 닿을 수 있는 지역,  
도시 및 지식정보를 전국에 손쉽게 공급할 수 있는 지역.  
따라서 철도 및 도로교통이 용이한 지역.

#### 2.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의 규모

- 1) 다른 산업부문과 별도로 단독 조성될 경우는 100만평 규모를 고수한다.
- 2) 다른 산업부문과 공동으로 들어갈 경우는 50만평을 고수한다.
- 3) 출판계 및 출판연관산업 종사자 3-5만명이 주거하면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크기(총 입주업체500개사:500X종업원 평균 30명X가족4인+기타 [1만명=50000])

#### 3.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의 건설 소요시간

- 1) 제1차 2개년계획 : 기초설계 및 입주조건 완결
- 2) 제2차 2개년계획 : 각 출판사 및 연관업체들의 구체적 입주 및 자리잡기
- 3) 제3차 2개년계획 : 공공시설의 한비 및 공동작업에 의한 생산 및 유통의 현대화 작업 원비

### 4.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에 들어서는 내용 및 업종

#### 1. 출판사들

- 중요한 출판사들이 '본사'를 단지로 옮긴다.
- 각 출판사들은 단독으로 사무를 마련하거나 공동건물을 분양하여 입주하는 방식을 택한다.
- 각 출판사들은 자사와 관련된 기획·디자인 및 사진팅을 대동시켜 입주한다.
- 대형출판사의 경우 인쇄·제본을 같이 옮긴다.

#### 2. 인쇄업 및 그 연관업체들

- 활판·음성 등을 비롯한 다양한 규모 및 종류의 인쇄·제본업이 입주한다.
- 인쇄의 전문화·현대화를 위해 인쇄공정을 분화·제분화시킬 수 있다.
- 사진분해 등의 업소도 입주한다.

#### 3. 제본소 및 그 연관업체들

- 우리 제본의 질적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본소가 제휴한다.
- 제본에 요구되는 각종 소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소를 개발·육성한다.

#### 4. 사진기자 및 조판소들

- 컴퓨터 조판소 및 출판연관 컴퓨터사들이 함께 입주한다.
- 과학화의 추세에 따라 각 출판사는 독자적인 컴퓨터조판시설을 갖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들 시설도 함께 입주한다.
- 각 출판사들은 중앙시스템에 의한 조판직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 5. 도서출판물의 도매 및 유통·창고업

- 출판사는 기획·제작에 역점을 두고 판매는 도매회사에 맡기게 된다. 유통의 현대화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
- 도매회사의 경우 단일 또는 복수로 구성할 수 있다.
- 공동창고·공동배송이 가능해진다.
- 각 출판사의 합적으로 도매업을 창설할 수 있다.

#### 6. 편집·기획대행 및 디자인센터 등 도서제작 전문업종

- 출판물을 전문적으로 기획·편집·제작해 주는 조직들이 입주한다.
- 편집 및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개인도 입주가 가능하다.

#### 7. 종이업소 및 기타 출판물 소재를 공급하는 업소

- 각 제작회사의 치사 및 용판
- 출판제작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 및 소재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업체

### 5.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에 들어설 공공·공동시설

#### 1. 출판의 기획 및 제작에 필요한 공동자료실 및 도서실

각종 자료를 전문적으로 비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게 한다.

#### 2. 대형 상설전시관 및 각종 전문서점 각 출판사의 전시관 등으로 구성되는 서점거리 조성

국내에서 생산되는 책은 물론이고 해외도서를 상설전시·판매케 한다.

#### 3. 도서전시 및 도서축제를 위한 공간

국내도서전뿐 아니라 국제도서전을 기획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확보한다.

#### 4. 공연장 및 전시장

각종의 문화·예술·학술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다양한 형식으로 음악회·연극·영화·전람회·심포지엄이 기획된다.

#### 5. 저자들을 위한 시설

연구실·집필실뿐 아니라 지방의 저자·필자를 위해 숙식할 수 있는 호텔 등의 시설

#### 6. 대한출판문화협회·출판금고·출판연구소·출판금융기관 등 출판연관단체의 입주

분야별·기능별 출판협의회와 출판학회의 등의 사무실도 입주시킨다.  
시설 설치·운영한다.

#### 7. 출판·문화정보센터 건설

도서의 개발 및 집필·제작에 요구되는 국내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공급·연구한다.

#### 8. 출판박물관·자료관·도서관

우리 출판문화사와 출판문화의 오늘을 임무요연하게 보여줄 출판박물관의 공동 및 개별적 건설·운영.

#### 9. 출판예술학교의 개설 및 운영

출판계에서 일할 새로운 인력을 양성해 낼 뿐 아니라 출판계에서 일하고 있거나, 출판문화 연관단체 임원 및 종업원을 체계적으로 재교육시키는 센터가 된다.

10. 교육시설 및 학교

단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자녀를 위한 초·중·고교 및 탁아소·유치원을 설치·운영한다.

11. 출판계 및 그 연관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

아파트 및 단독주택으로 구분하여 주택조합을 통해 공급하게 한다.

12. 기타 레저시설

각종의 운동장 및 레저를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13. 생활조건을 공급하는 상가 및 기타시설

출판문화산업단지는 하나의 소도시가 되고 따라서 상가·병원·식당·기타 주민 편의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6.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건설의 추진 절차 및 원칙

1.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 발기준비위원회 발족

1)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 발기준비위원회의 발족

89년 11월부터 출판계 일각에서 우리 출판문화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논의가 있었고, 이것이 89년 5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음. 그리하여 89년 6월 7일에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 발기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음.

2)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 발기인대회

89년 7월 하순 또는 8월 초순 대한출판문화협회 대강당에서 발기인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에는 출판계 원로·중진 및 출판관련 산업계 인사 다수가 참여한다.

3)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발기인 대회에서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추진위원회 및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사무국을 발족시키고 추진규약을 채택한다.

4)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을 범사회화시켜 그 타당성과 건설의 방향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7월 19일 프레스센터 대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이 심포지엄에는 학계·문화계인사·도시건설당국자·도시건설전문가·출판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하는데 이 자리에서는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의 역사적 의미와 합리적인 건설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2.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의 원칙

1)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의 건설은 철저한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삼는다.

2)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는 소망스러운 출판문화산업을 직업적으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문호를 개방한다.

3)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의 건설 및 운영은 입주자들의 민주주의적 협동정신 및 그 원칙에 따라 공동으로 실시한다.

4)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의 건설을 도시건설 및 건축계와 문화계 인사들의 자문을 받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이며 현대적인 도시의 모델이 되게 한다.



자료 ②

제 목 21세기 한국출판문화산업의 발전 전략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을 위한 제1차 심포지엄-

작성자 발표자(김병익, 이중한, 김형국, 강병기)

작성일 89. 7. 19.

배 경 출판 및 건설 전문가들에게 출판단지 건설을 위한  
전략을 연구·구상케 하여 발표함으로써 출판계  
내외에 최초로 공식화하고 가능성을 타진함.

21세기 한국출판문화산업의 발전전략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을 위한 제1차 심포지엄

· 주제발표자

출판문화산업단지의 구상과 그 기대

김병익 / 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문학과 지성사 대표

문화전략으로서의 출판도시

이중한 / 서울신문 논설위원·출판평론가

출판도시의 타당성

김형국 /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도서계회

출판도시의 설계

강병기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서설계

- 시간 : 1989년 7월 19일 오후 2시-6시
- 장소 : 프레스 센터 20층 (경화문 서울신문사 빌딩)

연락처 : 서울 아포구 서교동 372-9 열화당대  
전화 715-1588, 717-0613, FAX 719-4167

출판문화산업단지의 구상과 그 기대

김병익  
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문학과 지성사 대표

최근 우리 출판계에서 일고 있는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의 데머드 구상은 수십 년 동안 우리 출판계에 적재되어 있던 구조적 취약성과 비능률성을 타개하면서 21세기를 향한 우리 도서문화에 전진적인 구도를 실현하는 일대 도전적이며 변혁적인 시도로 주목되고 있다. 그것은 우리 출판 산업에 구속적인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생산과 유통으로부터 관리와 제작 기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업무의 과학화와 전문 인력의 양상으로부터 종사자들의 복지와 우리 도시의 국제화에 이르기까지 출판 도시의 산업, 문화 전반에 대한 전반적이고 근원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면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사회적 요구와 기술 혁신에 발맞추어 발전하려는 우리 출판인들의 전진적 의지를 야심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 출판계의 이 의욕적인 도전은 그간의 우리 출판계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출판인 스스로에게도 꿈같이 거창하고 환상처럼 황당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사실 우리 출판계는 도서 출판이 하나의 산업이며 문화로 의식되기 시작한 이래 한 세대 동안 만성적인 불황과 열악한 조건들을 감수하고 쇠퇴하면서 이보다는 규모가 작고 보다 현실적인 타개책을 모색해 왔으나 그것들은 번번이 좌절되고 마는 경험을 가졌던 것이다. 몇 차례 시도된 대형 유통 기구의 포기나, 지난 봄에 해제된 마포출판단지가 그런 예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껏 그 누구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일종의 출판도시건설이라는 계획은 여간 돌출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구상은 우리 출판계의 현재를 걱정하는 몇몇 출판인들이, 그것도 영세성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단행본 출판인들의 한담중에 나온 발언이 필미가 되었고 재력이나 영향력이 미미한 동류 출판인들의 지지를 받으며 그 준비가 일구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처럼 환상적이고 돌출적으로 보인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설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우리 출판계는 누적된 문제점 등에 놓여 있으며, 그것이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어야 할 당위성과 열원, 그리고 실천적인 의욕이 우리 출판계에 매우 넓고 깊게 만연되어 있음을 반증해 준다. 어떤 새로운 타개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아주 세력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무엇인가 도전적인 시도를 하지 않으면 사회 전반의 발전에서 외로이 나오겠지도 모른다는 압박이 정배해 있고 이러한 우리 출판문화사업의 위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미래지향적인 추구로 변혁 시대에 대처해야 한다는 열정이 동진 신진 출판인 모두에게 강력하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가 발의되고 짧은 시간 안에 뜨거운



김병익

●움을 받으리 특남은 농장 비사를 띄우하게 된 것은 이런 배경에서이다.

### 출판문화산업단지 조성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의 준비위원회가 구성하고 있는 건설 계획은 무척 거창하고 복잡적이며 현대하다. 서울 구교에 50만 평 이상에대하여 종합적인 문화 기능도시를 조성한다는 구도 아래 300개 이상의 출판사와 조판, 인쇄, 제본, 기업 등의 100개 이상의 연관업체를 유치하고 도매상, 창고, 배본업 등 유통기구를 설치하여 대규모의 출판산업단지를 이룩하는 것이 그 일차적 목표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이것만으로 끝낼 수 없다. 출판 및 연관업종의 기구, 단체를 유입시키고 편집 전문인 양성기구를 만들고 출판 도서관, 박물관, 회의실, 저술자 집필실, 출판 정보 기구를 건설함으로써 출판을 위한 문화도시를 구성하는 것이 그 다음의 작업이다. 이에 이어 출판 및 연관업종의 사원주택을 마련하고 극장, 미술관, 체육관, 공연 등의 문화 오락 시설을 만들어 자연적 환경을 아름답고 명쾌, 상쾌하고 교육, 편의 시설을 마련하여 하나의 생활도시를 형성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된다. 이러한 거대한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울산, 창원, 여천 등의 공업단지와, 대덕의 과학기술단지 이후 처음으로 우리는 문화단지를, 그것도 민간 주도의, 그리고 외국에서도 이만한 선례를 발견할 수 없는 출판단지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 단지가 건설되어 우리 출판계에 실용화될 수 있을 때 그것이 직접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우선 우리 도서문화 전반에 보편적으로 확산되겠지만, 그 상단은 우리 문화 전반, 우리의 정신 사적 문화 전반에 과감한 투자, 투자와 문화에 대한 효과도 결코 만만치 않을 정도로 될 것이다. 파카나 다모작이 비록 출판업의 목표가 된 이 출판문화산업단지가 어떻게 우리 출판계에 기능하여 기여할 것인가는 좀 더 상세한, 특히 현실 문제와 관련시켜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크게 1) 출판계의 구조적 취약성의 타개, 2) 출판계의 선형적인 발전 추구, 3) 이에 따른 유통적 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것은 현실 극복, 미래 시장, 부대 성과와 세 차원으로 이 단지가 역할할 수 있음을 뜻한다.

1) 우리 출판계의 기업적 영세성과 기술적 낙후성, 영업에서의 비효율성은 속하게 지적되고 반성되며 그것의 개선을 위한 모색이 필요하게 진행되어 온 것은 출판업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의 악순환 원리처럼 그 영세성, 낙후성,

파소소시킴이 교통망을 가중시킨다. 가령 도매상이나 협동조합에만 당행은 출판사가 의존하기에는 그 중간 유통구조가 협소하고 비효율적이다.

이럴 때 조성된 출판단지 재고도서를 공동관리하고 배본을 일괄해서 처리하며 그 운송을 맡아준다면, 우선 경비와 인력에서 현격한 절약을 얻어낼 수 있고 따라서 출판 활동의 비용이 기획, 편집의 확대로 개편될 것이다. 이 공동관리는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업무의 전산화, 세무의 성실보고도 촉진되어 이에 따른 효과는 막대해지며, 우리 출판산업 전반의 합리화, 과학화, 효율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 생산의 일관화 작업은 제작 코스트를 절감시키고 생산 과정을 신속하게 수행할 것이다. 가령 한 권의 책을 만들어내기까지, 출판사를 둘러싼 제작 참여업종은 제판, 인쇄, 제본을 비롯 10가지에 이르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의 이러한 다기관 업종들은 부분별로 집중되어, 예컨대 지물은 유지도, 제판, 인쇄, 제본은 용산과 마포지역으로 밀집되어 그 나름의 기능성을 얻고 있지만, 제작 참여업종들의 철칙인 연계성은 미가능화되어 제작시간의 연장, 제작물의 운송 불편 등 불편하고 낭비적인 요소들이 많다. 단지가 출판사를 중심으로 밀집 배치된다면, 상이한 제작 요소와 업체들이 일종의 일관화 구조를 조성하면서 출판 이점과 결합 효과를 일구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출판사가 제작 과정에서의 선택의 폭을 늘리면서 책임있고 보다 양질의 도서 제작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제작 업체들도 연계업체와의 기능성을 최대한으로 고조하고 운반 등의 시간적, 물적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생산 단가를 하향조정할 길이 열리게 된다. 생산 일관성의 효과물 최대화하는 것은 제작의 규격화, 기계화를 유발시켜 이 방법의 기술 개발을 촉진할 것이며, 출판 체계의 합리화를 기대하게 할 것이다.

라) 출판사의 집중과 출판물의 집산화물 가능케 함으로써 출판산업단지는 거대한 도서 유통 센터를 형성시킬 것이다. 단지의 구성에는 이미 도매서점의 유지가 포함되고 있고 그것이 동대문읍 중심으로 한 도매 시장의 일방적 의존성을 탈피하게 하겠지만, 그것에 부연해서 단지 자체가 대규모의 도서 유통시장적 성격을 지니게 됨으로써 서울과 지방, 도산대와 소매의 유통망을 새로이 조직하게 될 것이다. 현재 동대문 일대에 약 100개의 도서 도매상이 있지만 그 공간이 협소하고 심한 교통체증 속에 갇혀 있어 그것의 이전과 확대가 절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 출판 파운 자체가 도서시찰할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들의 상당 부분이 해소되면서 소매

비효율성이 복합적으로 작용, 구조화됨으로 해서 이세는 개별적인 노력이나 소규모의 개선으로는 시유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고 있다. 그것은 도서의 생산, 유통, 관리가 협력적, 일관적, 공동적 작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작업은 여러 측면으로, 여러 방법으로 추구되어야 하는데, 출판산업단지의 구성은 이마도 그것의 가장 효과적인 다목적 전략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이 단지 조성은 출판 업무의 공간 확대에 가장 직접적인 방안이 된다. 한 표본조사(1986년, 천원재, <도서유통실태조사>, 한국출판연구소)에 따르면, 우리 출판사의 사업장 규모는, 10평 미만인 8.0%, 10-30평 미만인 46.5%, 30-50평 미만인 21.6%로서, 전체의 3/4이 협소한 사무, 영업 공간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출판사의 평균 종업원수가 21명인데, 1인당 공간이 3평이 소요되고 별도의 서고가 150평 가량 필요하다면, 최소한 한 출판사는 150평 이상의 면적이 요구된다. 그러나, 100평 이상의 공간을 소유한 출판사는 18.2%에 불과하다. 그리고 사업장의 48.8%가 임대이며, 자기 소유라 하더라도 살림 검용, 주택 개조의 비기능적 구조가 상당수임을 고려할 때 이 공간난은 매우 심각해지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우리 출판사들이 가장 고심하고 있는 문제가 사무실 확장과 재고도서의 보관장소 확보이다. 그러나 전국 출판사 4천4백여 개의 3/4인 3천5백 개사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에서는 그러한 공간의 확보가 어려울 뿐더러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의 엄청난 상승 때문에 그 경제적 감당은 도저히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런 사정은 출판사들이 도심지 혹은 서울의 외곽지대로 시설을 들리게 만든다. 그러나 교통, 편의 시설 등등의 문제로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상태가 아니다. 출판산업단지는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소시켜 줄 것이다. 그것은 개별 출판사, 연관업종의 공간 확보만이 아니라 그것의 기능화, 집중화로 같은 면적임에도 훨씬 효율적인 공간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서 비롯될 경비 절감과 시간 절감은 도서소비자에게 그대로 전달될 것이다.

나) 도서의 공동관리는 인적, 물적, 시간적 절감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이다. 현재 우리 출판계의 유통 형태는 혼란스러운 정도로 다양하거나, 출판의 대동이라 할 단행본 업체는 그것의 영세성에도 불구하고 창고관리, 유통과 배본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것은 영업비, 관리비, 교통비, 창고비의 엄청난 낭비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출판사의 인적구성을 영업 편중으로 구조화하여 본연의 편집기능을 위축시키고 있다. 더구나 산재해 있는 서점들의 배본 작업은 인력과 시간을

상만이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도시를 다양하게 전시하며 구입 절차와 과정이 간소화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단지의 이같은 유통중심지화는 가령 도서전시회라든가 소매상과의 상담의 등으로 공동의 판촉 활동을 가능케 하며 따라서 영업비의 절감과 효과적인 광고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출판금융기관의 합성적인 이용으로 재정적인 이득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 출판문화단지의 조성은 출판에 관련된 각종의 정보 집중 및 교환의 중심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에게서 해외의 출판 학술 정보가 날마다 급증하며 그것의 적절한 수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할뿐더러 국내외 다양한 정보들도 마찬가지로 집산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87년의 국제저작권회의의 가입과 국내 저작권의 발표로 저작권의 체계적 처리는 우리 출판문화의 체계 변화와 그를 통한 질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판단지는 국제저작권대행자들의 유치와 가령 데이터베이스의 설치 등과 같은 작업으로 내외의 정보 유통을 보다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작업은 출판협회, 출판연구소 등 출판유관기관의 유치도 보다 효율적인 정보관리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며, 집중된 출판사들의 공격, 사적 교류를 통해 이 정보들의 바람직한 확산이 이루어지고 출판사들간의 중복출판, 과당경쟁도 회피될 길이 열릴 것이다.

비) 전향적 발전 추구가 이 단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한국 출판계는 그것의 사회적, 교육적, 정보적 기능의 발휘에 있어 가장 선진적인 작업을 이룩해 왔고 출판을 통해 제시하는 메시지들은 가장 현대적이고 진보적인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만큼 아이러니컬한 현상은, 정작 그 책을 만드는 실제 작업과 그것들의 보급에 있어서는 가장 보수적이고 낙후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일반 기업의 경영과 기술의 혁신은 도사하고 같은 문자적 매스 미디어인 신문과 방송에 비하면 우리 출판이 도저히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후진적이라는 점에서, 이 미디어들이 도서 독자들을 유인해 가는 데 대해 속수무책의, 그래서 도서문화가 경쟁 매체들과의 관계에서 완전 낙오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까지 유발한다. 이에 대한 대처는 출판계의 영세성과 기술적 후발성을 고려하면, 보다 적극적인 노력에, 그러기 위한 집단적 노력에 기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리의 출판단지는 이러한 집단적인 공동작업을 가장 가능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가) 우리의 도서 생산체제는 다른 후진국 수준에 비해 선진적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출판총수가 비슷한 서구제국들과 비교하면 그 격차는 현저하다. 도서용지가 다양하지 못하며 질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점, 인쇄인력과 재료의 재료들도 수준급에 미치지 못한다. 출판산업단지가 형성되고 제작업종들의 공동작업화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재료들과 기술 측면과 다양한 품종 개발 및 평가 생산의 길이 모색될 수 있다. 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다양한 측면의 기술 개발 지원이 수행되어야 하겠지만, 그 재료들의 수요가인 출판계와의 협력이 보다 용이해지기 때문에 단지에서의 이러한 작업들이 더욱 적극적이고 실용적으로 추진될 수 있으나 나아가 신소재 개발 작업의 유인이 훨씬 강해질 것이다.

나) 급속한 기술 개발을 수용하는 데 있어 출판단지는 보다 적절하게 대응하고 출판제작 기술의 발전에 능동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현재 컴퓨터의 보급이 출판사의 업무 전산화와 조판에서의 컴퓨터가 가장 대표적이지만, 그리고 이러한 전산화 작업이 더욱 가속화될 추세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이용을 활발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것은 전산시스템에 대한 인식과 지식의 아직 미약한 때문으로 이에 대한 진지한 추구가 요청되는 터이다. 출판단지는 이러한 신기술의 도입과 이용에 효과적인 기법과 자극을 제공할 것이며, 나아가 가로조판의 보급에 따라 요청되는 글자들의 개선으로부터 인쇄, 제본 등 생산 계속면에 이르기까지의 출판 실제작 기술 개발이 경제적으로 혹은 공동작업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 측면은 출판 제작 재료의 개발과 같은 성격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 출판문화단지는 출판 전문인력의 양성을 적극화하며 그 인력의 원활한 공급 시장을 제공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출판계는 그 발행종의 증가와 그 도서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전문 편집자, 영업자, 경리인들의 수가 매우 부족한 형편이며, 그 공급과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 때문에 출판의 편집인대학을 비롯, 최근 출판 인력의 교육기관이 몇 군데 생겨났지만, 그 수준과 교육 내용이 반드시 만족스럽다고는 보기 어렵다. 문화단지는 본격적이며 체계적인 편집인 교육 연구 기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우리에게 그 과정 자체가 매우한 영업자, 경리인들에게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교육 연수는 출판계만이 아니라, 도제식으로 기술 전수가 이루어져온 인쇄, 제본, 조판 등 제작 각부면에도 확산 보급되어야 할 것인 바 문화단지는 그러한 시도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문인력 확보는 그들의 수요공급을 활발하게 개방시키고 이러한 일련의 성과

들은 우리 도서 문화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라) 출판문화단지의 활성화는 우리 출판문화의 국제화와 우리 도서의 해외 진출에 진전기지가 될 것이다. 외국에도 전례가 없는 출판타운의 형성은 출판관계 학술회의, 도서전시회의 국제 규모급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외국출판 서적상을 유치, 우리 도서의 수출과 인쇄 제작 등의 가공 무역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 때문에 도서박물관, 출판도서관 등 우리 문화유산을 전시, 연구할 문화공간이 시설된다면 평생공화 세계적인 출판문화 중심지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화공간은 88올림픽 개최의 성과에 못지않은 문화한국의 위세를 드높여 줄 것이다.

마) 이 출판단지에서 또한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기대되는 것은 출판 및 연관업종 종사자의 사원주택 건설 계획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주택문제는 극히 심각한 주제이거나 특히 보수가 지대한 출판계에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출판인들의 관심은 각별한 바 있다. 그것은 좋은 인력의 출판계 유치를 위해서나, 출판계에서도 점차 대두되고 있는 사원복지 문제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나 매우 절실하게 그리고 현실감을 가지고 취급되는 과제이다. 더구나 사택과 직장간의 근접성은 작업 효율을 고조시킬 것이며, 각종 위락, 편의 시설이 예정대로 시설된다면 노동 환경과 그 성과는 그만큼 높아질 생산성 제고가 분명하게 성취될 것이다.

※ 출판문화단지의 형성은 출판의 문화와 산업만이 아니라 사회 일반에 부대적인 효과를 크게 발휘할 것이다. 그것은 서울 인구의 분산 정책에 호응하여, 과원주택의 건설이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5천 명의 취업인구, 따라서 20만 명의 실주인구를 수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가령 과원과 같은 서울 위성도시가 집값도시 기능밖에 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다 실질적인 서울 인구의 유출 실과를 열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계곡, 유휴지의 일반화, 공동화 효과로 교통 혼잡이 완화되는 데 이 단지는 기여할 것이며 지역 개발과 국제문화도시화의 이중적인 성과를 동시에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출판문화단지의 성격은 외국에서도 전례가 거의 없던 시회한 것이다. 일본 동경의 간다출판가가 우리 출판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곳인 하지만, 21세기에 걸쳐 자연형성된 이 출판가는 서점과 출판사가 밀집해 있다는 자랑 외에는 그것의 복합적인 다목적 기능, 설계된 능률적 배치가 이루어진 곳이 아니어서 우리 단지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출판 도시의 조성은 세계적인 명소로서 우리

출판문화의 전통과 수준을 보여주는 전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 문화와 산업이 조화롭게 융합된 우리의 첫 민간 주도 개발 계획 도시로서의 중요한 선택이 되어야 하므로 예상해 볼 수 있는 예술도시, 교육도시의 전범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의 문제점

아마도 우리는 이 출판문화산업단지의 원대한 계획과 그것이 배태될 막중한 효과에 대해 너무 큰 기대를 갖고 그것의 절실한 욕구 때문에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소박한 신념에 매여 있는지도 모르겠다. 정부가 막강한 행정력과 재원을 가지고 단호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가령 분당 등의 신도시 건설이 많은 난관에 부딪치고 있는 것을 목격하는 터에, 가늠할 힘으로, 그것도 몇몇 중소 출판인의 모임으로 이 거대한 메아드 울림을 떨쳐려 하는 것은 어쩌면 들로 재산을 치는 무모한 투기로 보여까지 한다. 실제로 그것은, 바람직하고 꼭 있어야 한다고 확신하는 그만큼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솔직하게 시인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이 출판문화산업단지의 필요성이 충분히 납득되고 그래서 출판계 자체는 물론 정부와 사회 각계에 지원과 투자의 욕구를 유인할 정도의 실천력을 어떻게 일구어낼 것인가의 문제이다. 출판은 다른 문화부문보다도 더욱, 정부와 일반의 관심사 중에 가장 멀찍이 떨어져 있는 분야이다. 그것은 지원이나 육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감독이나 견제의 대상이 되거나 불운지역 혹은 불황집단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왔으며, 실형 출판문화의 공헌이나 그것의 빈약한 실정이 긍정적으로 이해된다 해서 막대한 투자와 노력의 소요되는 메아드 출판타운 건설의 의욕까지 뒷받침해 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 불행에는 출판계 자신이 감당하고 추진할 몫보다는 출판계 외부의 몫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 작업의 주역들은 각 분야의 관계처를 이해시키고 동의받으며 참여하도록 설득해야 하는 어려운 일에 먼저 부딪힐 것이다. 그리고, 이 단지가 출판인들 스스로 생각하는 만큼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또는 사회 부자의 우선성에 의욕 가질, 혹은 단지 건설이 야기할 마이너스 효과에 우려를 가질 많은 비판들과 맞설 수 있는 이른바, 실천적 대응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침요한 실득 끝에, 그래서 다행히 각계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실제적인, 그리고 보다 큰 난관들을, 이 단지 계획안은 만나게 될 것이다.

첫째로, 부지 문제이다. 준비위가 막연하나마 서울 근교의 적어도 50만 명 이상의 부지를 요망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어디에, 어느 정도의 경비로 가능할 것인가는 이 단지 건설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다. 이 부지는 교방, 수도, 전기 등 제반 간접 투자가 열가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현재 분당과 일산 등 정부가 계획한 신도시 개발지에 포함되는 곳이라면, 지가의 높음에도 적정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별도의 독립된 출판도시 건설은 기술과 절차상에서 많은 문제를 내포할 뿐 아니라 그것의 경제성 자체가 회의적일 것이다.

둘째로, 이에 못지않게 관련이 되는 난제가 재원 문제이다. 준비위가 구상하는 출판타운이라 할 때, 도시화 기반 부지는 세액높고 용지구입, 건물 건축, 시설 등의 직접투자에만도, 거친 계산으로 최소한을 잡더라도 5천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 우리 출판 산업의 1년간의 총액형액과 맞먹는 이 자금은 이 단지의 조성술 가장 감당하는 중소출판업체로서는 실형 장기 처리 용자보다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부 보증의 금융 지원만이 아니라 정부 자신이나 일반 기업계와 직접 지원 또는 참여를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용지와 자금이 확보되고 난 다음의 세번째 문제는 토목, 건축의 문제이다. 이 계획은 단순한 신도시건설이 아니라 문화공간이면서 산업단지의 이중적이며 다목적적이기 때문에 매우 까다로운 설계와 디자인상의 문제뿐 아끼 않는다. 곧, 아름다우면서도 기능적이고, 편리하면서도 다양한 임업들이 동시에 수용될 수 있도록 조화되어야 한다. 이 까다로운 조건들을 한꺼번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토목, 건축, 조경, 환경, 디자인 등 도시 건설에 필요한 모든 부분의 신중하면서도 조목적이고 탁월하면서도 조화로운 만남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임종과 업체들의 수용을 도모하는 단지가기 때문에 그간에 풀림없이 야기될 이해 상충을 어떻게 조종하고 그 갈등을 해소하는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우선은 아주 사소한 일로 보이지만 이 계획의 성취가 분명하게 예상될 때 의외의 심각한 충돌로 단지의 배치, 배정을 간섭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한편으로는 참여자들의 대승적 호양 정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 다른 한편으로는 단지 작업 주체들의 지체와 과단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아마도 전망에서는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그 실연에서는 낙관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이 현명할지도 모른다. 이 말은 80년대 마지막에 발의되어 90년대



이중한

에 실려 화하며 2세기에 드디어 한국출판의 역사에 획기적인 성취로 기록될지도 모를 이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의 건설이, 비관적인 단원들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극복하는 낙관주의적 추진력을 통해 성공되기를, 되어야 할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닐 실재한다면 그 책임과 과실은 출판인에게 돌아오겠지만 그 현대적 작업이 마침내 완성된다면 그 보람과 의미는 우리 국민과 문화사의 전환에 확산될 것이다.

- \* 출판업계의 경제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반례를 그 명산성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1980년 제 1차 출판 계획이 1억2천만 원인데 비해 1987년에 그것은 1억7천만 원으로 약 50% 성장되었으나 1년당 평균 정가가 3천5백 원에서 5천 원으로 인상되어 그 신장율을 모두 흡수해 버렸다. 그리고 1개사당 평균 종업원수가 21명인 바, 그 명산성은 6백여만 원에 불과하다.
- \* 출판사 수로는 서울이 전체의 75%를 차지하지만 출판장수로는 83%, 발행부수로는 95%가 서울로 집중되어 있다.

### 문화전략으로서의 출판도시

이중한  
서울신문 부설위원 출판평론가

#### 1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계획안은 한마디로 '판상적 도전'이다. 그러나 이 '판상적 도전'은 상당히 많은 문명의 '현실적 도전'의 부른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꿈구는 역할과 도전의 규모가 이제는 아만한 크기를 갖게 되었다는 의미와 함께 또 이를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신념의 구축만으로도 이 도전은 문화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때문에 이 넓은 출판영역에서만 도전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의 성격과 관계없이 이러한 도전 자체가 우리 문화의 전환기반에 신선한 刺激의 刺激으로서 활력적 영향을 주는 것만으로도 전체 문화에 의미 획득이 가능하다. 뛰어 일어나고 힘을 모으는 문화의 이미지는 오늘날 같이 그 중요성에 따른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는 문화영역의 지위에 있어 우선 느낌으로써나마 상당한 전환점의 계기가 되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이 도전이 완성을 뛰어넘어 현실이 되게 하는 여러 노력과 그 과정 자체가 문화의 전략으로서 사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무엇보다 기본 관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 2

그러나 현단계의 안으로써는 상당히 단선적 출발점에 서 있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출판의 모든 과정이 함께 모인다는 것이 이 발전의 핵심적 목표가 되는 점인데, 그러나 이것이 출판과 출판경영인의 입장에서만 접근되고 있고 연관산업이나 연관시정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단선적이다. 예컨대 제본업이나 장고업의 경우는 출판과의 이해가 직결되어 있으므로 쉽게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세지업이나 인쇄업의 경우는 상호교류되는 작업종이나 또는 자기 자신의 작업량 규모에 따라서 단지와의 입주가 꼭 합리적인 것이냐는 별도의 문제이다. 출판은 합리적이지만 사정의 경우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송사자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현재의 상황에서 출판송사자는 아마도 가장 이동률이 높은 직업일 것이다.

출판연관산업의 총집합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출판연관산업들의 부

문별로 보면 그 각 부문이 별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인쇄부문만 하더라도 출판의 發注力量에 따라 인쇄역량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쇄 나름대로의 발전단계를 거치는 것이다. 따라서 출판산업단지에 들어선 출판업의 요구에 적합한 각부분별 입지라는 것이 무엇이나를 우선 확정하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분명치 않지만 5십만 명이든 1백만 명이든 그 절대용지의 위치가 독립된 단지나 또는 어느 도시지역의 한 부분으로서의 단지냐에 따라 기본적인 구도를 전혀 다른 성격의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도시지역의 한부분일 때는 더욱 출판만의 기능적 요구에 적절한 집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출판박물관·출판자료관·출판예술학교 등의 공공문화적 발전이 있다. 그러나 이 항목은 별도의 다양한 조건의 전개와 여건의 조성으로서만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출판산업단지의 기능적 집합의 영역과는 별도의 영역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 두 영역은 서로 유안적이지 않다. 단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나은 편제일 뿐이다.

결국 출판문화산업단지안의 초안은 기능적 단지나 문화적 단지나와 기본 이념을 좀더 분명히 해야만 그 구도의 선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 3

이 관점에서 출판문화산업단지는 문화의 의미를 우위로 하는 가정 '출판문화도시' 또는 '출판문화박물관도시'의 개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그렇잖아도 오늘날의 박물관 개념은 유물보존이나 전시의 영역을 넘어서서 오늘 의 삶에 살아 있는 문화센터로서의 발전을 하고 있다. 이 개념에 적용하자면 출판 박물관만이 박물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출판산업단의 전체를 박물관으로 설정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출판행위 모두를 박물관 프로그램으로 설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이 도시는 출판인들이 출판작업만을 기능적으로 하는 도시가 아니라 이 기능적 작업까지를 포함해서 이 도시 전체가 전국민이 와서 특별하게 보고 즐길 수 있는 대상으로서 변화되고 이 기획에 의해 출판산업의 기반이 보다 크게 확산되는 본질적 발전전략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도에서는 서점의 존재도 다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도시의 기본

시장과 같은 역할을 부여하는 대규모 서점을 창출할 수 있고, 국민들은 이 대규모 서점만을 따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망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을 받은 출판사를 함께 보고 가는 출저용까지 가질 수 있다.

살아 있는 출판문화박물관으로서의 도시의 창조는, 단일 가능하다면 세계에서 최초의 창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때 이 도시 창조에 보다 공공적인 지원도 그 합리성을 얻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초안에 들어 있는 박물관과 자료관은 그 내용범위를 세계의 출판으로 확대시키는 것도 매우 자연스러운 당위가 될 것이다.

④

안에 들어 있는 여러 개의 개별적 목표들이 실제로 실현되는 각기 다른 소요기간과 소요예산의 창출이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적절히 연계구성되는지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도전의 과제이다.

현재로서 보자면 출판사가 사용할 오피스빌딩과 상고건물과 그리고 종사자용 아파트 등은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이 먼저 실현되고 그 이외의 것들이 적절한 時差를 넘어 불확실하거나 지연될 때 이 단지의 지향은 급격히 퇴색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한 시점에서의 퇴색을 다음 시점까지 다시 再起시키는 일은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더욱 어렵다.

따라서 어느 항목이 어느 시간에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밀하고도 철저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보다 문화적 접근을 하게 된다면 또 당연히 출판박물관이나 출판자료관 또는 도서 전문시장 건설 등이 동시이거나 먼저 이루어져야만 그 입지가 분명하게 될 것이다.

각 항목별로 상호보완성, 상호유인성, 상호가치성들이 帶動的인 때에만 이 계획이 성공될 것이라고 본다면 출판은 출판연관산업의 추이를 좀더 과학적으로 예측해야 한다는 부담도 갖고 있다.

이제는 뉴 미디어의 시대에 들어서 있고 따라서 출판 자신도 뉴 미디어 속에서의 출판 미디어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고전적 가치나 고전적 형식의 출판지향으로서 한 도시 규모의 출판의 有效性을 公衆적으로 설득한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 역시 설득커뮤니케이션적 중요파제로 살아야 할 것이다.

출판도시의 타당성

김형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시계획

⑤

건축축면에서의 도전은 완전히 또다른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산업단지의 건축이 아니라 문화단지의 건축이다. 따라서 도시규모에서의 기능적 배치나 기능적 용량의 합리적 구성이 문제가 아니라 문화로서의 建築 그 자체의 문제이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건축문화의 이상적 도전을 실현할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안을 그 도전의 최초이며 거의 유일한 기회로 삼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인간의 주거환경로서의 이상적 접근이 요구될 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이나 작업장이 들어설 수도 있어야 한다는 요구도 갖고 있다. 하기는 이러한 요구가 도전만으로서 보면 도전의 규모 자체를 화려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무실, 주거공간, 작업장, 박물관, 자료관, 캠퍼스, 편익시설들의 복합 체계로서의 단지는 환경설계에 있어 최대의 難題인 것만은 사실이다.

더욱이 이 안에는 개별 출판사들의 개별 건축을 전체로 하고 있다. 이 점은 별도로 개별 건축이면서도 그 건축의 도시로서의 복합적 평가를 거치게 하는 기능을 갖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⑥

이러한 복합적 도전을 함으로써만 우리는 이 안을 문화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안은 스스로가 문화전략으로서 의미와 과제로서 발전될 수 있도록 설계를 만들어 가야 할 요구도 갖고 있다. 출판자신의 기능적 결합만을 우선 시킬 때 당연히 문화전략적 차원과는 멀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또 사회적 문화적 지원의 형식도 바뀌게 마련이다.

오늘에 있어 문화적 환상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일 수 있다. 문화적 환상은 과학적 환상보다 可觀의이다. 단지 문제는 문화적 환상에의 도전을 누가 얼마나 이해해 주느냐에 달려 있다. 이 理解度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주물럭이라는 악점을 갖고 있다. 이것이 가장 非可觀의인 벽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도전에 나서보자. 무엇보다 마스터플랜 작성이라는 작업만으로도 문화의 결실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 머릿말

이 글은 출판인들이 구상중인 '출판도시'의 실현가능성을 도시계획적 시각에서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출판인들의 구상에 따르면 출판 및 연관업체가 밀집하여 단지를 형성할 경우, 출판단지의 고용수준은 소규모 도시를 형성할 만한 맥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생겨날 출판도시는 능히 자족적인 신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출판도시가 이루어지면 그건 국가산업으로서 그 중요성과 비중이 확인된 출판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공간적 틀이 될 것이며, 출판도시에 자리잡은 출판업체는 거개가 서울에서 이전 될 것이기에 우리 사회의 현안인 서울과밀해소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 다.

출판인들의 지구, 자발적 구상은 국가사회와 지역사회의 이익에 합치할 수 있는 만큼 그 사회적 정당성이 확인될 것이다. 그 정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정당성을 도시개발과 국토개발의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출판인들의 구상은 도시계획적으로 보아 일종의 '백지계획'이다. 도시계획적 논의는 먼저 장소가 전체가 되는 것이 보통인데 출판도시의 경우는 수도권 입지라는 개인적 조건 외에는 장소에 대한 개념이 할 그대로 백지상태인 점에서 백지계획이다. 하지만 장소가 확정되지 못했다 해서 공간계획의 구상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도시 공간은 도시 활동에 의해 그 틀이 짜여지는 것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백지계획의 상황에서도 출판도시의 공간적 그리고 비공간적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다.

2. 출판산업의 현황

가. 현황의 현실

지난 한세대에 걸쳐 오로지 수출입국 임님 하나로 달려온 국가정책의 가시적 성과로 우리가 세계 10대 무역국에 들게 됐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수출입국정책에 밀린 나머지,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출판산업이 세계 10대 출판국에 올라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정부정책의 육성산업이 아니었고 그 결과 영세성이 특징임에도 오로지 자생력 하



김형국

나로 생산의 형에서 세계 군지의 나라로 등장한 것은 한마디로 의외이고 경이이다. 발전의 시대에 출판산업이 경제적 육성의 대상이 되지 못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출판은 '경제' 또는 '산업'의 범주에 들지 못했고 따라서 수출입국에 출판이 기여할 바는 없다고 치부된 것이 그 하나고, 출판문화의 기사는 세계사적으로 저평가되었는데(최정호, 1989), 우리의 현대사에서도 다분히 그러했기 때문에 출판업에 대한 정부 태도는 호의적일 수 없었던 것이 또다른 하나다.

#### 나. 도시경제학적 위상

구조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도시발행종수가 1988년 현재 자유세계 제5위에 올라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출판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고, 그만큼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출판산업의 주변현황은 서울 집권이 큰 특징이다. 전국 출판사의 75 퍼센트가 서울에 있고, 이들의 발행종수와 출판양은 각각 전국의 93 퍼센트와 96 퍼센트를 차지한다(김병익, 1989). 이렇게 높은 출판산업의 서울집중도는 '취업계층적 편향'(Thompson, 1972)이 작용한 결과라 보아진다. 취업계층적 편향이란 상위직종의 경우 장소에 따라 하위직종의 선호에 무관하게 그들의 거주장소가 상위직종의 그것에 종속된다는 말이다.

출판산업은 무엇보다도 두뇌결정적 산업이다. 저술적 두뇌를 정점으로 이를 팔자화하고 상품화하고자 하는 출판업자, 출판업을 가능케 하는 창의적, 행정적, 사무적 인력이 계층적 고리로 이어진다. 따라서 출판산업의 서울집중은 출판산업의 결정적 인자인 저술적 두뇌의 서울 선호와 관련되어 있다. 저술적 두뇌의 서울 밀집은 여러 기표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른바 저명인사의 서울밀집도 그런 지표의 하나다. 연건에 귀향된 인명록에 의하면 저명인사의 서울집중도는 약 92퍼센트에 달한다.

서울에 밀집된 출판산업은 서울에서도 도심의 입지를 선호한다. 도심입지의 선호는 소규모성(또는 중소기업성)이란 출판산업의 특질과 관련이 있다. 출판산업은 기획, 편집, 디자인 등의 전문적 두뇌의 도움이 필요하여, 각종 전문적 두뇌는 한 출판업체의 조직 안에 모두 내부화하는 것이 창의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언론기업이 경영하는 출판기업이 대형사업규모에 걸맞은 출판수준을 보이지 못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출판기획같은 '연성(soft)' 출판업무가 책을 생산, 유통하는 경성(hard)출판업무를 내부화할 필요는 더구나 없다.

22

내실이 늘어날 독서문화는 출판의 국내시장 확대로 이어질 것이고 그래서 출판산업의 진흥을 자극할 것이다. 독서문화는 넓게는 우리 문화수준의 한 부분인데 문화발전단계론에 따르면 우리의 문화수준은 이른바 '제급화합론' 수준(Gans, 1974)이다. 이 수준에서는 독서문화의 주장은 실용성을 높이 산다. 읽어서 당장 실용에 도움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문화이다. 집, 자동차, 증권, 요리 등에 대한 책이 잘 팔리고 또 출세를 자극하는 책들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높다. 문화수준이 다음 단계로 진행하면 독서는 단지 실용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기쁨이 되는 단계가 나타난다. 독서가 중요 여가수단이 된다는 말이다. 그런 '나날의 번잡에서 펼쳐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Winston Churchill, 1965).

셋째, 출판산업의 앞날을 밝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문명발전단계론과 관련되어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산업사회를 넘어 정보사회가 도래한다는 것인데 정보사회는 앞선 나라에서 확산되고 있는 중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그 징후가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보사회는 정보가 가장 값진 재화가 되는 사회를 말한다. 정보의 생산, 유통, 확산에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출판이 큰 몫을 차지할 것이다. 때문에 출판산업은 다가오는 정보사회를 선도할 첨단산업의 하나인 것이다.

넷째, 출판산업은 정보사회에 특히 합당한 유망 도시산업이다. 무엇보다 복지로 평가 높은 산업이다. 인력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고용효과가 높고, 그 고용효과가 고소득층과 함께 저소득층에도 두루 미치기 때문에 분배효과도 높다. 분배효과는 특히 주목해야 할 특징이다. 컴퓨터의 도움이 필수적인 정보사회는 자본집약적 사회이기도 한데 이 자본집약은 저소득층에 더 많은 부담을 줄 것이라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출판산업은 그런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 산업이라 기대되고 있다.

#### 4. 출판산업과 수도권 정비정책

수도권역역제는 우리 사회의 현안이다. 그래서 서울의 과밀현상을 규제하는 한편 수도지향성이 불가피한 도시기능은, 서울 외곽의 수도권에 적정 재배치하는 것도 이른바 '수도권인구 재배치계획'의 중요 정책목표가 되어 왔다. 안산시의 반월공단예 제조업체가 유치되었고, 중앙정부기능이 파원시로 일부 분산된 것은 모두 수도권 재정비의 일환이었다.

비슷한 발상에서 서울행경구역 안에서도 도시혼잡을 빚는 업종을 선별적으로

24

대신, 관련 전문적 두뇌를 의무화한 책 출판기획의 다양한 요구가 생길 때마다 외부에서 선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대안이다. 다시 말해 출판산업의 경쟁력은 규모경제 또는 내부경제가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관련업체간의 외부경제를 통해 재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이제 출판업의 영세성의 원인이기도 하다. 거꾸로 출판업의 소규모성은 출판기업정신 하나로 승부를 걸 수 있다는 사회관행의 결과이자 전문적 서비스를 외부에서 구하는 것이 오히려 능률적이라는 출판산업의 구조적 특징 때문에 생겨난 것이기도 하다.

관련 서비스를 외부에서 얻는 것도 능률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출판산업이기에 집진 서비스와의 기능적 유대(functional propinquity)는 많고, 빈번하고 긴밀한 것은 당연하다. 특히 출판업무의 기획단계에서는 관련 업무간의 기능적 유대는 공간적 유대(spatial propinquity)를 요구한다. 출판업무의 기획단계는 어쨌든 책이 상품상태에 앞서 작품상태에 있는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기능적 관계가 전회, 배서 등에 의해 통신연결적으로 해결되기보다는 관련 사람들간의 면접접촉에 의해 중요하게 해결되는 게 정상이다. 그리하여 면접접촉은 필연적으로 교통의 효율을, 교통의 효율은 관련업체간의 공간적 유대, 연계, 근접을 요구한다.

높은 지가에도 불구하고 출판관련업체가 서울의 도심 또는 그 주변의 강북지역에 밀집한 것은 불충분하나 관련 출판업체의 기능적 유대를 공간적 유대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업무의 요구 때문이다. 출판산업의 관련업체간의 기능적 유대가 공간적 유대를 요구하는 것은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대기업 본사, 금융기관 등의 중요 사무활동이 서울 도시에 밀집한 것과 같은 도시경제적 논리의 결과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출판사 같은 연성업의 도심밀집은 인쇄업, 종이유통업 같은 경성출판업종의 도심입지에서 파생된 것이다.

#### 3. 출판산업의 전망

서울에 밀집된 한국의 출판산업의 미래는 꽤 낙관적이다. 첫째, 출판산업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거의 전무했음에도 세계 10대국에 들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력이 높은 산업임을 증명한다. 이 자생력은 장차에도 출판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둘째, 한국의 독서문화가 전향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장차에

23

재배치된 바 있다. 가락동 농수산물센터는 용산의 청곡시장을 흡수한 것이고, 장안동의 골동상들은 광학동, 정계천 7가 일대에서 그리고 용산의 전자상가는 세운상가 일대에서 옮겨가고 있다.

저간에 그러나 출판업체는 서울 안에서 또는 수도권 안에서 재경비해야 한다고는 의외로 바 없었다. 도심안쪽에 밀집되어 도심혼잡에 환류 하는 출판업이 그런 대상으로 고려되지 못한 때는 그럴만한 잠재적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첫째, 출판업체의 정체가 정권당국에 간명하게 파악되는 것이 아니었다. 인쇄같은 경성 출판산업은 제조업인가 하면 연성 출판산업은 제4차산업의 사무활동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정책대상이 되기에는 그 정체가 혼들스러웠다.

둘째, 출판업의 구성인 서점, 재료상, 제작자가 서울 안의 이곳 저곳에 분산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세운전자상가나 용산청곡시장처럼 도심혼잡 유발 단일부분으로 인식되지 못했다.

셋째, 서울 또는 수도권외의 재경비정책이 공해같은 문제극복의 소극적 시각에서 추진되었을 뿐 재경비를 통해 보다 나은 발전을 모색한다는 적극적 시각에서는 추진되지 못했다.

#### 5. 출판도시의 구성과 개발방식

출판인들의 핵지계획에 따르면 출판도시에 이주가능한 출판 및 관련업체가 모두 5백개 업체이고, 업체마다 평균 20인의 종사원이 일한다는 데 그렇다면 총고용 인구 1만명의 파급으로 최소 5만인구의 도시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거기에 전문교육기관, 연구소, 박물관, 전시·집회·공연공간 등 출판관련도시기능도 다수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출판산업의 주도로 출판도시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전문적 시각에서 말하면 출판산업이 그 도시의 기간산업이 된다는 뜻이다. 출판산업은 기간산업으로 삼는다면 다른 이점도 많다. 도시산업 가운데 비경쟁산업인 것이다. 또, 다소 역설적이지만 산업이상의 출판문화라는 사실이다.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문화만큼 게 없다. 이미지는 도시의 인위적 조성에 특히 요긴하다.

5만인구의 도시가 등장하리라 보는 것은 실현가능한 전망이다. 종사원들이 모두 가구형성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종사원 1만인이 5만의 도시인구로 나타날 것이라

25

보기 어렵다 하겠지만 출판산업에 의한 간접고용효과도 지대할 것이라 보면 출판업 종사자 1만명이 5만의 도시인구를 형성할 것이라는 전망은 과대평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새 도시의 입지는 모도시 서울로부터 한시간 교통시간대에 자리잡아야 하는 입지적 요구는 필수적이다. 모도시로부터 한시간 거리대는 이른바 서울 도시권(urban field) 안이 된다. 그래야만 모도시와의 접촉경제(connectivity economics)를 누릴 수 있다. 모도시 서울에 밀접한 지리적 두뇌와의 접촉 용이성이 접촉경제의 중요 내용인 것이다.

출판인들은 '단지개발방식'과 '신도시개발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출판산업의 현대화가 내부경제와 확대를 통해 이루어지기 어려운 체질이고 현실임을 감안하여 관련업체간의 외부경제를 효율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이를 위한 단지(complex 또는 estate) 조성이 합당한 방도이고, 단지는 동시에 소규모이나마 자족적 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핵이 된다는 판단이다.

단지개발이나 신도시개발은 개발대상을 일차에 새로 개발하자는 것이다. 신개발(development)이 재개발(redevelopment)보다 발전의 목표 추구에 효과적임은 도시개발의 실무에선 하나의 상식이다.

### 6. 출판도시의 공공정책적 의미

출판단지가 자족적인 출판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자족도시라 함은 도시사업의 취업요구와 주거요구를 해당 도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도시이다. 전래적으로 대도시 주변에 계획된 신도시는 재적인 주거환경의 확보에 역점을 둔 주거 도시이기 쉬웠는데 이 경우 한결같이 모도시와의 교통혼잡을 야기하곤 했다.

그런 점에서 출판도시가 자족적 신도시로 형성되면 거주간 근접의 효율이 있을 것이다. 또한, 다가오는 정보사회에 열려있는 복지효과의 역진성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정보사회의 대도시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직주간의 거리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부담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사회계층은 저소득층이다. 직주의 확대로 늘어날 교통-통신비는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족적 신도시는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도시다.

출판도시 구상은 모도시 서울의 혼잡 완화에 기여할 것이다. 도심의 혼잡에 가담

하는 도시산업을 서울시 행정구역 바깥으로 분산해야만 도시혼잡이 완화된다. 출판업체가 서울행정구역을 빠져나갈 수 있다면 그만큼 서울의 혼잡을 완화할 것이다.

수도권의 공간정비에도 크게 기여할 소지가 있다. 수도권의 공간정비는 이른바 수도권의 '다핵도시화' 또는 '(대)도시안의 도시'(currie, 1975) - 곧 수도권의 정점인 서울을 모도시로 하여 인근 자도시들이 서울취업인구의 침대도시로 머물지 않고 상당 수준의 도시기능이 자도시 안에서 자족적으로 처리되는, 다시 말해 자도시 스스로 많은 취업기회를 갖는 -로 지향하는 것이다. 출판도시는 거기에 부합된다. 출판도시는 수도권의 다핵도시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자족도시를 지향하는 것이다.

### 7. 출판단지 건설의 조건

출판신도시는 출판단지가 핵이 될 도시다. 출판단지는 선문적으로 말하면 '사무단지'(office estates 또는 office parks)의 일종이다.

사무단지를 조성하자면 무엇보다 도시기반 시설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저간에 많이 시도했던 공업단지 조성의 경험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사무단지를 조성해 본 외국의 경험에 따르면 여러 기반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Hartshorn, 1973). (1) 학교 같은 도시공공시설, 접근로, 넓은 주차공간의 이용가능성; (2) 잘 짜여진 도시조경 및 건축; (3) 대도시간의 교통편의; (4) 세계상의 혜택 및 용자 편의; (5) 교외형 쇼핑센터 및 개인 및 전문서비스에의 접근성 등이다. 정부의 직접 투자가 필요한 부문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출판단지의 조성은 대량의 토지확보가 그 전제다. 우리 사회의 경우, 높은 지가에도 토지의 대량구매가 지난하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정부의 도움은 국공유지의 매각 편의에다 서울의 출판업체가 옮겨갈 수 있도록 용자편의 제공 및 세계상의 혜택도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8. 출판도시 실현의 가능성과 제약

출판인들의 구상은 서울의 혼잡이 종래처럼 정부만의 인식이나 아니라 서울의 매력에 관성적 짐작을 보여왔던 민간부문에서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수도권과 밀접해소가 공공정책의 현안인데 저간에 이전대상이고 지목되던 민간부문이 공공정책의 시도에 협조적이지 아니했다. 반면, 문제제기가 민간부문의 자발로 이루어진 출판도시의 경우, 적정수준의 유인책을 구사한다면 서울소재의 도시기능을 효율-효과적으로 서울외곽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호기이다.

문제는 예상된다. 출판단지는 출판 및 관련업체간의 외부경제를 높이자는 것인데 최근 공업단지에 보았듯이 노사분규 같은 외부불경제가 동시다발로 내부화될 염려도 있다.

출판인들은 최근 서울의 주택문제의 심각성에 자극받아 정부가 건설계획중인 2개의 신도시 하나 안에 출판단지 조성가능성도 타진하고 있다. 뜻처럼 그 신도시 안이나 외곽에 출판단지는 조성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근접해서 종사원들의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일이 또다른 난제다. 출판단지의 종사원을 위한 아파트 우선 분양이 주택분양에서 공평을 요구하는 사회적 기준에 우선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 9. 맺는말

출판도시 백지계획은 출판인들의 자구노력의 일면이다. 체질상 중소기업이 적 정규모라 할 수 있는 출판 및 관련업체는 업체간의 기능적 유대를 공간적 유대 강화를 통해 현대화하는 것이다. 이런 당면 요구를 서울 안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점에서 이를 서울 외곽의 신도시에서 일거에 해결하자는 것이 출판도시이다. 그러나 의욕적이고 야심적인 계획구상임에도 불구하고 출판업체의 영세성은 문제해결을 일거에 이루기에는 역부족이다.

대안은 출판업체의 자구노력이 갖는 사회적 정당성에 기댄 수밖에 없다. 그 사회적 정당성만큼 정부의 정책지원이 정당성을 갖기 때문이다.

출판산업의 잠재력은 이미 길게 논의했다. 대안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다. 출판도시 같은 대형 공간적 프로젝트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 없이는 사실상 실현하기

어렵다.

저간에 출판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호의적이지 아니었다. 앞서 말한대로 출판문화는 역사적으로 저항문화였는데, 마찬가지로 출판업계가 반정부 운동권의 피난처가 됐던 것도 우리의 지난 경험이었다. 명시적으로 침묵된 바는 없지만 출판업은 정부의 눈에는 '미운 오리새끼'로 비치는 대목도 많았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졌다. 우리가 이제 살아갈 시대는 민주대도의 시대이고 장차의 나라발전이 마침내 문화입국으로 귀결돼야 한다는 점에서 출판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의 당위성은 새로 확인돼야 한다.

지금까지 출판도시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논의했다. 출판인들의 발상의 자발성, 산업시대의 공업단지가 정당했던 것처럼 정보시대에 사무단지가 정당성을 가질 것이라는 점, 수도권정비기 직주근접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 등에 중점적으로 착안했던 것이다.

이번 적극적 평가는 거창한 도시계획사업의 실현에 특히 유효하기 때문이었다. 가능성의 적극 평가만이 어려운 과제를 현실로 실현시킬 수 있다는 지적(Hirschman, 1967)은 도시계획 실무의 황금률인 점에서 그랬다.

#### 참고문헌

김병익, '출판문화산업단지의 구상과 그 기대', 세미나 보고서, 1989.  
최정호, '무사상의 사상', 《사상》, 1989, 여름.  
W. Churchill, *Painting as a Pastime*. New York: Cornerstone Library, 1965.  
L. Currie, 'The Interrelations of Urban and National Economic Planning', *Urban Studies*, Vol. 12, No. 1, 1975.  
Herbert Gans, *Popular Culture and High Culture*. New York: Basic Books, 1974.  
T.A. Hartshorn, 'Industrial/Office Parks: a New Look for the City', *Journal of Geography*, Vol. 72, No. 3, 1973, pp. 35-45.  
A. Hirschman, *Development Projects Observed*. Washington: Brookings Institution, 1967.  
Hyung Kook Kim, *The Spatio-Temporal Patterns of Personal Contact in the Office Sector: The Case of Seoul*, Ph.D. dissertation, Univ. of California, Berkeley, 1983.  
W. Thompson, 'The National System of Cities as an Object of Public Policy', *Urban Studies*, Vol. 9, No. 1, 1972.



강병기

### 출판도시의 설계

강병기  
현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시설계

아니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필연적으로 복합적 기능을 갖게 되고, 따라서 다양성이 내재한다. 또 그러기에 상대적으로나마 자족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하면 단지란 도시나 지역의 한 개 구성지구 또는 부분지역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규모에 있어 작을 뿐 아니라 대개의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가지 기능으로 기울어 있거나, 한가지 기능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수의 기능이 조합되거나 집합한데 불과하여 다양성이라는 도시의 본질적 자질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기에 정도의 차가 있다고는 하지만 사람의 삶이나 일터로서 볼 때 대개의 경우 외부 의존적이고, 현대 생활이 요구하는 다양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말하자면 도시라는 조직체의 부동 또는 부분은 어무르는 것으로 자취한다.

#### 출판 컴비나트

다음으로 발기취지 설명에 보면, 출판단지는 마포에 있어 왔던 출판단지와는 사뭇 다른 것 같다. 즉 마포시대의 출판단지가 출판활동 중의 몇가지 기능만을 한곳에 모았을 뿐이고 나머지 필요한 모든 기능을 마포라는 인근지역과 더 나아가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갖고 있는 여러 기능과 공간에 의존해 왔던 것과는 달리, 출판활동이 필요로 하는 직접, 간접적인 모든 기능 또는 활동은 물론이고, 나아가 출판활동이 파생시킬 수 있는 발전적 기능까지도 함께 엮어서 한 단지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발상은 1950년대에 컴비나트(Combinate)라 해서, 어떤 공업생산 분야에 관계되는 모든 생산기능들을 한곳에 모이게 하여 마치 거대한 하나의 조직체처럼 효율적인 생산공간으로 만들기 시작한 사실을 연상케 한다. 출판공업지역이 그런 발상이고, 큰 공업단지 안에 소위 연관단지라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은 컴비나트의 개념이 낳은 산물이다. 이런 뜻에서 본다면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출판단지는 출판 컴비나트라 이름함이 처음 발기와 뜻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우선 출판과 문화와 산업을 함께하는 뜻에서 출판+문화+산업단지라 했는지도 모르겠다.

#### 출판단지의 구성요소

여기서 출판단지 발기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자.

가. 출판산업의 직접적 기능으로서

- 1) 출판의 편집, 디자인 기능을 포함한 출판사

최근들어 우리나라 출판간행물의 양과 종류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신문광고나 책방에 매일같이 신간이 쏟아져 나와 잠시 쌓였다가 팔려나가는 일들을 보며 실감하고 있다.

누가 그랬듯이 책쟁이들이 좀 살만하니까 이제 정말 좋은 일 좀 해보고 우리나라 문화향양의 기수 노릇 한번 해봐야겠다고 마음 먹었는지, 어느날 갑자기 대규모의 출판문화단지를 만든다더라 하고 신문에 기사화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나는 또 어떤 꿈들이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고 어디다가 한 땅을 골라서 파헤치는 일을 시작하나라고 하고 냉소적으로 생각한 게 사실이다.

#### 왜 園地라고 했을까?

園地란 말의 원 뜻을 잘 생각해 보면 都市計画法에 규정되어 있는 都市計劃事業 가운데 一區의 住宅地(또는 공업지) 조성사업이란 게 있는데, 단지란 본시 여기서 말하는 일단의 조성지라는, 이미 개발되어 있거나 앞으로 개발하려는 土地의 풀이 하나의 덩어리(반드시 整型임을 뜻하지 않음)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착목한 뜻이다. 住宅地 또는 工業地라고 못박은 것은 아니고, 그 덩어리 土地 안에 담겨지는 利用用途 또는 기능이 默示의으로 어떤 한 종류로 特化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한가지 기능이 主調의이거나 하는 關係形態를 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一區의 市街地라든가 일단의 저자거리일 수도 있는 것이어서, 반드시 特化된 기능의 範圍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말에서 단지라 할 때 어떤 목화 된 기능들이 한곳에 덩어리져 있다는 뜻으로 쓰여왔기 때문인지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그 뜻으로 쓰여지고 있다. 내가 出版園地라고 들었을 때도 그러한 출판으로만 특화되어 있는 뜻의 園地가 또하나 생겨나고 별 불일 없고 재미있게 끝나기 십상이구나 했던 것이다.

#### PUBLISHING CITY!

그런데, 疑起疑文을 읽고, 관계하시는 분들의 취지와 이미지를 들여보았더니 사뭇 내가 오해했었던 것 같다. 우선 영문으로 Korea Publishing City 라 하고 있다. 의석해서 City 라는 말을 썼는지의 여부는 모르겠지만 City 와 단지란 말의 뜻은 포괄성에서 매우 다르다. 도시는 보다 더 크고, 복합적 성격을 전제로 하거나,

- 2) 인쇄, 제본, 종이 등 재료공급기능을 가진 출판관련제작업체

- 3) 출판제작물의 도매와 소매기능을 담당할 유통업체

이상 세가지 기능을 단지의 핵심기능으로 삼고, 한 덩어리로 단지화함으로써 출판기업과 편집을 현대화, 효율화하고, 출판제작 및 생산의 전과정을 일관된 흐름과 계통 속에 근접배치하여, 마치 하나의 공장내의 여러 개 생산라인과 과정이 적임제 있고 효율적으로 흘러가도록 체계화하며, 이렇게 해서 생산된 제품(출판물)들을 좀더 근대적 장비와 운영방식을 가진 유통기구에 실어 전국 방방곡곡뿐만 아니라 세계만방과 신속하고 긴밀하게 유통시키고자 한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 있는 어떤 업종의 공장이 일관 생산함으로써 대량생산을 효율적으로 해내자는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제품을 기획하고 디자인해서 설계하여 형태를 결정한 것을 제작라인에 보내 제작과정과 피드백(Feedback)하면서 최종결정이 떨어진 다음에는 재료와 원료를 그리고 관련된 부품들을 지체없이 대량조달하여 24시간 밤낮없이 기계를 움직여 야에 포장까지 해서 내놓으면, 중계상인에 의하여 실려나가고, 얼마 후 대금이 자기 계좌로 입금되어 주었으면 하는 꿈은 생산자로서 으레 가질 만한 꿈이다.

출판물이 생성되어 최종소비자의 손에 들어갈 때까지의 과정과 공정만을 생각한다면, 위에서 구상하고 있는 직접적 기능들이야말로 출판산업의 3대 結構機能이라 할 수 있다. 결절기능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들 기능이 기실 많은 부분기능과 부분체계를 제각기 갖고 있어야 비로소 출판산업이란 전체체계가 움직이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기능들을 들여다본다.

나. 기획, 편집, 디자인이 가능하기 위한 部分下位機能

- 1) 정보기능 : 도서판, 출판정보센터, 출판산업과 관련된 제조품에 관한 정보 및 견본전시센터
- 2) 기획, 편집, 디자인의 아이디어를 배우고 배양하기 위한 각종 학교, 각종 회합공간
- 3) 아이디어 자극을 위한 세미나, 워크샵 등을 위한 집회공간
- 4) 아이디어 자극을 위한 각종 전시, 공연공간
- 5) 머리를 식히기 위한 레저시설, 휴식시설과 공간
- 6) 심신을 이완, 재생시키기 위한 향락적 시설과 공간
- 7) 외부세계와 연계, 팔리, 생생하게 연락하기 위한 첨단통신기능



8) 각종 Computer Aided Design 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다. 제작, 생산기능의 부분기능으로서는

1. 印刷機能

- 1) 각종 인쇄소 : 손으로 쓰고 미는 등사판 인쇄에서부터 하이테크를 활용한 최신 인쇄공정까지 여러가지 인쇄장비
- 2) 대·소 인쇄소 : 한 사람이 출판인쇄의 전과정을 맡고 하는 인쇄소에서부터 담당과 부서가 구분되어 있고 종업원도 많은 인쇄소까지
- 3) 각종 조판업체
- 4) 각종 식자업체
- 5) 각종 색분해업체
- 6) 각종 사진현상, 필름작업 관련업체
- 7) 각종 활자 및 로고 제작업체

2) 製本機能

- 1) 각종 제본업소(호치키스, 和福 등을 포함한 여러가지 제본형태의)
- 2) 헌책의 재생제본소

3. 材料 공급기능

- 1) 종이취급업소
- 2) 각종 종이전시장
- 3) 종이연구소
- 4) 각종 잉크 취급소
- 5) 잉크연구소
- 6) 색채연구소

4. 福祉 厚生機能

- 1) 주택 및 기숙사
- 2) 휴식, 위락시설과 공간
- 3) 체육시설, 공간
- 4) 각종 여가활동, 교양학습시설 공간
- 5) 각종 집회공간

5. 流通機能

- 1) 출판단지 입주업체 공동출자에 의한 도서판매주식회사의 설립과 이

회사에 의한 유통체계의 총괄과 종합화, 현대화

- 2) 분야별 중간 도매기업
- 3) 운송회사 : 장거리, 근거리, 대형, 소형, 대량, 소량 취급
- 4) 수송 배달방식 : D.P.E.정 방식의 유통방법(정기적 배달 및 수거)택을 권의하고 싶다.
- 5) 수거 및 재생산
- 6) 휴식, 위락시설, 공간
- 7) 체육시설, 공간
- 8) 주택 및 기숙사

6. 倉庫機能

이상의 기능들이 한곳에 모여 있으면 출판물의 생산과 유통을 현재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대량으로 진행시킬 수 있을 것임은 틀림없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왜 文化를 내거는가

그러나 출판문화라고 내건 내용을 생성, 발전시키는 데는 모자란다. 생산 자체 또는 그들이 모여진 집적체가 어떤 출판인들이 분위기를 조성해 낼 수 있었지만, 마치 공장단지나 공장단지 안에서 내버려 두어도 출판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문화적 기질을 가진 요소들이 모인다고 곧 문화가 형성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어느 의미에서 문화는 생산이라는 목적의식에서 벗어나 생산이라는 목적과 결과를 평가해 보고 반성하는 과정과 절차를 통하여 응고되어 가는 그 어떤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인은 이 방면의 전문가가 아니므로 딱 잘라 말하기가 매우 어려우나, 생산과정이 하나의 독특한 문화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에 필요한 여러가지 기능 이외에 반성하고 평가받고 또 생산이라는 소용돌이를 빠져나와 스스로의 일들을 객관시할 수 있는 기회의 주어지야만 문화란 것이 발효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래서 생산기능 다음으로 이러한 문화로 승화할 수 있는 문화화를 위한 기능과 공간이 필요해진다. 그런 기능과 공간으로

- 1) 각종 자료관, 도서관, 박물관 등
- 2) 각종 전시, 공연공간

도시의 다양성

다양성과 복합성은 얼핏 비슷하면서 매우 다르다. 컴비나트는 일명 복합단지라고도 하듯이 복합조직체를 목적으로하는 단지다. 물론 복합의 정도와 종류가 많아 지면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다양성이란 반드시 복합 종류의 많고 적음에 관계하지 않는다. 어떤 집단의 구성요소가 한 목소리가 아니고 제 나름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 상태라고 비유함이 알기 쉬울지도 모른다. 제각기의 목소리를 가졌다고 합창과 화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마음먹으면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 있다.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과 한 목소리밖에 못낸다는 것은 아주 다르다. 한 목소리밖에 못낸다는 것도 문화라고 할 수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雜獲의 이익을 좇고 효율성을 통한 현대화를 좇아 모이는 출판단지는 한 목소리를 크게 내지는 것이다. 그러나 출판문화를 위해 모이겠다는 사상은 문화배양의 기회를 확대하고 그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의 것이 아니겠는가.

이 두 가지 취지와 욕구를 풀어주는 도시설계적 접근방법으로는 다양성이란 개념을 어떻게 내부화하고 형태화, 가시화하느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많은 업체들이 모이게 하되 작은 것에서부터 거대한 것까지, 구닥다리 수공업수준의 것에서부터 최신식 첨단수준의 것에 이르는 다양한 경영규모와 경영방식, 만화 출판에서 최귀한 출판에 이르는 다양한 영업종류의 업체들이 되도록 많이 모이는 일부터 필요하다. 인쇄 등 제작업체나 유통업체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다양성은 실은 일반도시에서 볼 때 처음부터 존재했던 현상은 아니고 전문화, 대형화, 통방성, 元講下騰 등 여러가지 진화과정을 겪는 역사적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서서히 조성된 상황인 것이다. 조성중이거나 설립은 도시라든가 신도시일수록 표면적인 요란스러운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저변에 깔린 문화적 다양성은 미흡하여 금방 실종이 나게 한다. 오래되고 성숙된 도시일수록 일견 전체적 분위기라는 표면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개개의 독자성이랄까 개성이 다양하게 깔려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서울의 강남과 강북지역을 연상해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다.

개별적 다양성은 전체적 개성과 상치하지 않는다. 출판문화산업도시는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가질 수 있다. 출판산업이라는 통일된 성격을 밑에 깔고, 그 위에 펼쳐지는 다양성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는 나름대로의 아이덴티티와 분위기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 3) 각종 집회공간
- 4) 각종 음식, 요식점
- 5)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출판산업의 여러 공정과 과정이 종전처럼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필실 속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내다보일 수 있도록 하는, 살아 있는 전시기능을 할 필요가 있다.
- 6) 활자제작 자체와 활자제작을 이용하는 모든 예술분야를 위한 학교와 제작·전시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문화란 어떤 삶의 결과이지만, 때로는 목적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위에 문화를 형성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여러가지 기능을 중의 몇가지를 들었지만 이러한 기능들이 어떤 문화적 상황을 형성해 내는가 하는 상황적 결과는 이들 기능들의 존재양태와 상호작용 형태에 따라 여러가지로 변한다. 예를 들어 대한교과서 주식회사처럼 모든 교과서만 출판물을 특이적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대량으로 기획, 편집, 인쇄, 유통시키는 단일가치적 대량생산의 출판산업은 문화라기에는 어색한 단세포적 획일주의문화로 귀착한다. 그러나 같은 물량과 장비들을 몇십 몇백 개로 나누어 제각기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 기획, 편집, 인쇄, 유통시킨다면 같은 양의 출판물과 종사자와 물량이 소비, 동원,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산과정에서 생성되는 문화는 매우 다양성 있는 성질의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출판도시(PUBLISHING TOWN)

출판산업이라는 제품화의 과정을 문화화까지 승화시키는 일이야말로 출판산업의 현대화라는 구호 아래 숨어 있는 효율주의를 넘어, 출판단지조성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출판산업이 우리나라 문화창달에 기여하는 방도라고 생각된다.

출판단지가 출판컴비나트라는생산의 효율을 목적으로 출판의 주요기능들을 모으는 것으로 족하며, 생산환경의 조성에서 머무르지 않고 출판의 문화형성적 기능에 착안하여 출판물 통한 문화환경의 조성을 의도한 지역이라면 단지는 물론이고 '컴비나트'라는 이름도 적절하지 못하다. 영문으로 표현한 City 즉 도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입지가 서울에서 30~60분 거리에 있고 그 규모도 상주인구 5만 정도라면 같은 도시라도 Town 정도가 낫겠다.

다음에 이러한 유사기능 속의 다양성에 대하여 기능이나 업종의 다양성 즉 복합 요소간의 다양성이 필요하다. 전자를 間隔間 다양성이라 한다면 이것은 異種間 다양성이라고나 할까. 동종간 다양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근친교배에 의해劣性化하는 것을 이종간 다양성은 돌연변이 등의 환경자극을 일으켜 어떤 집단이 활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 이런 뜻에서 출판문화 도시는 복합적으로 다양성을 지녀야 한다.

### 미리 풀어야 할 문제들

지금까지 우리는 출판문화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이리이러했으면 하는 공같은 이야기와 희망을 말해 왔다.

어떤 기능이 내 열에 와 있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필요성에 귀해 말한 것이지, 그러한 기능들을 결어 오게 만드는 방법과 가능성에 관해서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다.

첫째, 위치가 좋으나 또는 활동하는 사람이 많으나 내 열으로 와주었지는 않질서 시대는 절대 낡았다. 위치가 받으며 주지 않는 이상 위치가 좋으나 모으려는 기능이나 업체들은 몇 안 될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그러니까 출판사들이 많은 일을 만들어 내어 각종각종의 인쇄업체들이 일 년내내 그 인력과 장비를 취지 않게 하고 가동시킬 수 있을 만큼의 일 양을 안정적으로 공급 또는 발주할 수 있을가 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되도록 많은 그리고 여러 종류의 출판기업들이 이 출판단지로 들어가 주어야 한다. 그 총체 규모가 크면 각종 관련업체들은 많이 그리고 여러 종류의 업체들이 뒤따라간다. 그러나 전체 입주 출판사들의 일일 발주량이 한두 개 인쇄기업의 소화량 정도에 지나지 않다면, 발주량의 계절변동이 심해서 안정적 조업의 보장이 없을 경우, 이들 인쇄기업들은 더 기회가 많은 서울 시내의 현재 위치를 지키려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인쇄기업들도 출판단지에서 안정적 조업을 하자 하는 출판단지건설의 취지에 전적으로 합동하면서도 말이다. 다른 관련업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논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한 타당성 검토가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한다.

셋째, 관련업체가 들어온다 해도 그 수와 수준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면, 이번에는 출판사들의 활동이 자유스럽지 못하고, 관련업체들의 능력이 機能이랄 수 있는 출판기능의 제약조건으로 역작용해 버린다.

40

넷째, 이들 관련업체들이 안정적 조업에 자신을 갖고 그것도 다양한 종류와 계층의 것들이 입주하기 시작하고, 출판활동도 자유자재로 전개될 수 있는지의 여부, 즉 안정적으로 컴비나트로서 가동하기 시작한다는 예상이 확고해지는 일에 이 출판단지의 성패가 달려 있다. 생산물의 종류와 양이 일정하지 못하다는 출판산업의 특성이 컴비나트를 행상하는 데 최대의 난제이기 때문이다. 이 한계선을 넘어서면, 다음 단계로서 문화적 성과를 갖추도록 하는 일은 출판계의 기획, 편집에 종사하는 직업인들의 아이디어와 집필자들의 조업에 의해 서서히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실적 문제의 하나로 적시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가 출판도시의 토지관리 방식이다. 입주자 개인에게 분양할 것인가, 아니면 공동소유로 하고 입주를 포기하거나 나갈 때는 토지를 직접 매매하지 않고 입주 공동체에서 배각(반환)하도록 하는가 하는 문제다. 분양방식을 택할 경우 입주희망자와 토지수요는 많을 것이나, 실제 도시행성은 지지부진하고 출판도시건설의 처음 취지가 지속될지 의문이다. 공동소유방식인 경우 부동산 투자의 측면의 매력력이 적어 입주희망과 토지수요가 많지 못할 것이나, 단지의 건설조성이나 취지와 목적의 유지·발전은 지속적일 수 있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이 위에서 언급한 구체적 설계에 앞서야 할 과제들이다. 이 출판도시는 서울이라는 거대하고 다양한 매력적 도시 속에 이미 자리잡거나 살고 있는 현대인들을 메로시릴 만한 재미있는 내용과 모습을 갖추어야 성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술은 문화의 창조에 동참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 절대적 필요조건이 출판도시가 지니고 풍겨낼 수 있는 다양성이다.

41



## 자료 ③

### 제목 발기 취지문, 발기인 승낙서

—우리는 왜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를 건설하는가

### 작성자 건설준비추진위원회

작성일 89. 7.

### 배경 발기 취지를 밝힌 문서로

심포지엄 행사장에서 발기인 승낙서와  
함께 배포되었음.

#### 발기취지문

#### 우리는 왜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를 건설하는가

다사다난하고 고난에 찬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 21세기를 맞이하는 이 전환기에, 우리 국가사회가 세계의 정신문화와 물질문명을 주체적으로 수렴하여, 우리 민족의 보다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출판문화의 기능과 역할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출판은 나라와 사회의 정신적·물질적 풍요를 담보하는 창조적 원동력이다. 나라와 사회의 발전 전략 및 그것을 뒷받침하는 지식과 지혜의 힘은 책의 문화를 통해 비로소 창출된다.

이 민족사회에 위대한 시대가 될 21세기를 맞으면서 우리는 찬란한 민족문화의 역사와 전통을 우리의 긍지와 근거로 삼는다. 모든 문화의 핵심이자 국가사회의 발전의 원천인 출판문화를 우리는 그 어느 민족사회보다 일찍부터 창출해 낸 바 있다. 위대한 조상들이 창출해 내 오늘 우리들에게 남겨준 찬란한 문화와 전통을 우리 스스로의 역량으로 새로운 시대 21세기에 힘 있게 계승·창출해 낼 단계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민주화시대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우리는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스런 문화를 새롭게 되살려 자유민주주의에 뿌리 내리는 선진된 산업사회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문화의 힘을 인식하고, 그 문화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출판물 국가와 사회의 기본정책으로 가꾸어야 한다.

21세기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문화입국 정책·출판입국 정책을 우리의 중심개념으로 삼아야 한다. 21세기는 새로운 과학과 산업의 시대다. 이 과학의 시대, 산업의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지식 및 정보산업의 기간으로서 출판산업의 육성은 당면한 요구된다. 출판산업은 이제 책을 쓰고 만들고 읽은 사람들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발전하는 국가사회의 보편적 필수조건으로서 우리 앞에 떠오른다. 격변하는 국제사회를 우리 민족의 것으로 창출해 내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시각과 감각, 그리고 사상과 논리가 국책화되어야 하고, 바로 이 국제화작업이 출판물 통해 체계적·조직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출판문화의 주체로서 그 창출작업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출판인들은 우리의 문화적·직업적 소임을 다하고자, 그리고 다가오는 21세기의 세계를 우리 민족의 것으로 창출하기 위해 우리의 지혜와 열정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한국출판문화단지를 건설하려 한다. 우리의 문화적·직업적 직능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출판문화의 진과정을 현대화시키고 과학화시켜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고 출판창출기술을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고 출판의 잠재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심으로서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출판물의 현대적인 생산관행과 유통질서로부터 벗어나 현대화되고 과학화된 새로운 출판문화산업을 창출하고 그 발전을 가속화시켜야 할 시대의 과제를 안으려 한다.

우리의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는 좁은 의미의 출판문화를 창출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사회·문화 및 문화산업의 총체적 발전을 이끌어가고 실현해 내는 중심적 동력원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국내외의 다양한 문화행사가 출판문화산업 단지에서 치러질 것이다. 세계의 산업과 문화, 학문과 사상을 호응하는 열린 문이 될 것이고, 우리의 민족문화를 세계화시키는 창구가 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세계의 한국화, 한국의 세계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면 우리의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는 바로 이 역할을 넉넉하게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는 따라서 출판문화 및 문화일반을 진경으로 이해하는 정부의 정책입안자·지식인·문화인·전문가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의 성원과 지지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다. 우리가 세계에 내놓아 자랑할 수 있는 문화창출의 터전으로서, 그리고 가장 한국적인 내용과 형식을 담아내는 우리 민족사회의 긍지로서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를 건설하자. 21세기 우리 민족의 위대한 가능성이자 문화창출의 공간으로서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의 건설을 여기 알리면서, 우리는 이 건설 작업에의 연대를 광범위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1989년 7월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준비추진위원회

## 발기인 승낙서

본인은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추진계획안의 취지에 적극 찬성하며, 발기인으로 취임할 것을 승낙합니다. 이에, 귀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제시한 아래 사항에 이의 없음을 약속합니다.

### 아래

1. 발기인이 되기로 승낙한 이는, 이 계획안의 시대적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이 계획의 실현을 위해 공동체적 연대의식과 전문가적인 기량, 그리고 성실성을 바탕으로 한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한다.
2. 발기인이 되기로 승낙한 이는,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일차 추진기금으로 일금 일천만원을 1989년 월 일까지 납부하도록 한다.
3. 이 기금은 전액 공공금융기관에 적립하되, 그 적립처에 대해서는 추진준비위원장에 위임한다.
4. 추진비용은 추진기금의 과실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추진비용의 사용에 관한 일은 새 집행부가 구성되기까지는 추진준비위원회에, 그 이후에는 새 집행부에 위임한다.
5. 적립된 기금은, 추진준비위원회 또는 새로이 발기되는 단체가 해체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반환하며, 본인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발기인 승낙일로부터 2년 후에 반환한다.

1989년 월 일

①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준비추진위원회 위원장 귀하

자료 ②

제 목 출판도시계획 참고자료

작성자 대한출판문화협회 사무국

작성일 89. 7월말

배 경 건설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  
건설 전문가들에게 제공한 정보자료로서  
출현에 의뢰, 국내외의  
관계자료를 뽑은 것임.

출판사 도시 계획 참고자료

1. 한국의 현재 실정

1) 평균 종업원수 : 22명(최대 1,000명, 최소 1명)	
2) 사업장 규모별 출판사 분포	
사업장 규모	출판사수
10명 미만	7(8.0%)
10-29명	41(46.5%)
30-49명	19(21.6%)
50-99명	5(5.7%)
100-499명	14(15.9%)
500명 이상	2(2.3%)
계	88(100%)

자료 : 도서유통실태조사(전원제) 53페이지.

3) 사업장 소용량에

적가	42(51.2%)
임대	40(48.8%)
계	82사(100%)

자료 : 상가서

4) 금정출판사의 경우  
1인당 4명 — 1,000부 (250㎡)

5인가에서는 매년 9월 "뉴욕은 책의 나라이다"  
(New York is Book Country)라는 전시행사를  
개최한다.

( 일본의 경우 )

일본 : 출판물은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도시의 산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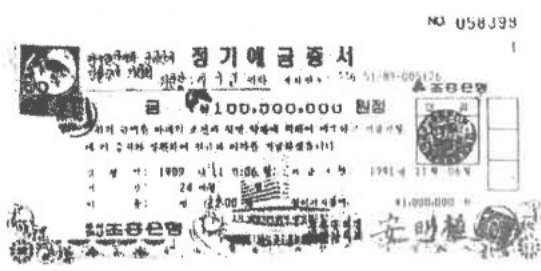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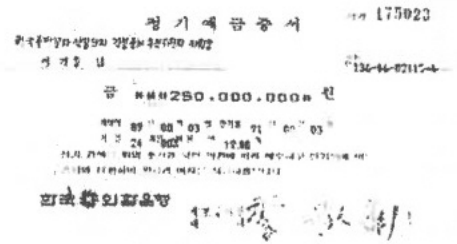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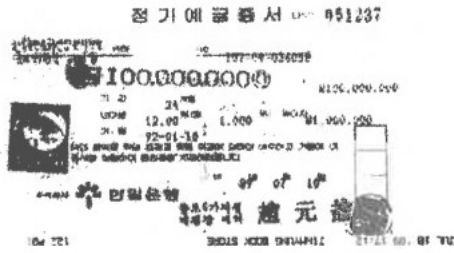
특히 일본은 수도 동경도내에 편재한다. (일본전체의  
약 90% 차지) 그런데 동경 도내에서도, 교육 문화시설과  
출판물 유통기구를 사적화, 기술적 이유로 각종 교육구역에  
엄격편제하고 있다. (각시도공공시설의 90%)

- 1) 신주쿠구(新宿区)근방 — 동경출판계에 중심지사가  
적지한 지역의 출판사수 : 약400개사
- 2) 미도리구, 긴자(銀座, 丸の内)근방 — 일본출판  
판매부속회사와 학사가 오랜 대학은에 위치한 지역의  
출판사수 : 약200개사
- 3) 방조구(文京区)근방 — 동경대학을 중심으로 2편 전통의  
학문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의 출판사수 : 약400개사

근거자료 : '87년 일본출판연감

2. 외국의 "출판타운"과 같은 예

- 일본 : 간다지역 출판.서점가  
진보로 1-2경목을 중심으로 스미노 마시역과 오사노 마시역에  
이르는 반경 1 Km 이내에 세계 최대의 북이주는 출판.  
서점가 형성.  
출판사 약 30개. 서점 147개점(1987년 현재)
- 독일 : 마인르시  
부엔베르크가 출판 인쇄업을 발명하기 이전부터 출판의  
중심지가 되어 온 전통적인 출판도시 프랑크푸르트의 영향으로  
출판사수는 많아 없으나 부엔베르크 북쪽근동에 있는 동 출판  
문화도시 성격이 강함.
- 프랑스 : 파리 제6구  
50개년대의 출판사가 밀집되어 있으며 출판협회, 출판업동  
조합등 관계단체들도 이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  
데릭등 교육문화의 중심지라는 입지적 조건의 유리함을 배경  
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됨.
- 미국 : 뉴욕 맨하탄  
미국의 대표적인 주요 출판사들이 대부분 이 지역에 밀집되어  
자연스럽게 출판타운을 형성하고 있으나 근해 광산 상충등의  
이유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출판사가 늘고 있다함.



領收證

No. \_\_\_\_\_

金壹仟萬圓整 ₩ 10,000,000

내역 :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1차 추진기금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19 년 월 일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준비위원장

귀하

인수증

목적:

수량:

상기의 도서를 정히 인수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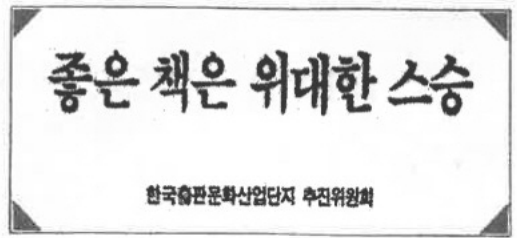
( )에 기증합니다.

19 년 월 일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추진위원회

( ) 귀하



- 예금증서 사본 일부
- 추진기금 납입 영수증
- 인장 및 공문 발송인
- 도서 인수증 및 독서 캠페인 표어

자료 ①

제 목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계획안

작성자 건설준비위원회

작성일 89. 8. 10.

배 경 도시설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단지 건설의 구체적인 계획안. 이 자료는 추진위원회의 내부용으로 활용되었음.

#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 계획안

1989. 8. 10.

##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준비위원회

### 1. 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의 배경

#### 가. 현황

##### 1) 산업경제적 특성

가) 도시발행 종수 : 1988년 현재 자유세계 제5위, 세계 10대 출판국임. 한국은 세계최초의 금속활자 발명국임.

##### 2) 산업영역적 특성

가) 소규모도 작장 규모

- 기획, 편집, 디자인 등 출판에 필요한 각종 전문과 두뇌는 한 출판업체의 한 조직 안에 모두 내부화하는 것이 반드시 효율적이지 않음.
- 출판기확같은 '연성(Soft)' 출판업무가 책을 생산, 유통하는 '경성(Hard)' 출판업무를 내부화할 필요는 출판업의 필수조건이 아님.

나) 소규모는 영세정인 점에서 약점임.

##### 3) 국토경제적 특성

가) 서울 집중성

- 전국 출판사의 75%, 발행종수와 출판량은 각각 전국의 93%와 96%를 차지.
- 높은 서울집중성은 '위업계층적 편향'(상위계층의 거주장소에 따라 하위 계층의 선호에 무관하게 그들의 거주장소가 상위계층의 그것에 종속되는 경향)이 작용한 결과.
- 따라서 출판산업의 서울집중은 출판산업의 질적역 인자인 저술력 두뇌의 서울 선호(전국 저명인사의 92%가 서울 거주)에 따른 과집임.

##### 4) 도시경제적 특성

가) 도심입지 선호 :

- 높은 지가에도 불구하고 출판관련업체가 서울의 도심 또는 그 주변의 강북지역에 밀집한 것은 관련 출판업체의 기능적 유대를 공간적 유대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입주적 요구 때문임.

출판자의 경영은 관련 전문적 두뇌를 외부화한 채 출판기획의 다양한 요구가 생길 때마다 외부에서 선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대안임. 다시 말해 출판산업의 집적경제는 규모경제 또는 내부경제가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관련업체간의 외부 경제를 통해 제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임.

- 관련 서비스들 외부에서 얻는 것도 능률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출판산업은 관련업체 또는 업무와의 기능적 유대(functional propinquity)가 많고, 빈번하고 긴밀함. 특히 출판업무의 기획단계에서 관련 업무간의 기능적 유대는 공간적 유대(spatial propinquity)를 요구함. 출판업무의 기획단계는 이를테면 책이 상품상태에 앞서 작품상태에 있는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기능적 연계가 전화, 팩스 등에 의해 통신연결적으로 해결되기보다는 관련 사람들간의 직접접촉에 의해 중요하게 해결되는 게 정상임. 그리하여 직접접촉은 필연적으로 교통의 효율을, 교통의 효율은 관련업체간의 공간적 유대, 연계, 근접을 요구함.

나) 역사적 입지의 관성 : 출판관련산업의 강북 밀집

- 출판사같은 연성 출판업종의 도심 밀집은 역사적으로 인체임, 종이유통업 같은 경성출판업종의 도심입지에서 파생된 것임.
- 최초 입지가 관성을 얻어 특히 강로구, 중구 안쪽에 밀집을 낳았음.

#### 나. 문제

##### 1) 산업경제적 문제

가) 정회적 육성 대상에서 제외

- 발전의 시대에 출판은 '경제' 또는 '산업'의 범주에 들지 못했고 따라서 수출입 국에 출판이 기여할 바는 없다고 치부되었음. 또 출판문화의 기저는 세계사적

으로 저항문화였는데, 우리의 현대사에서도 다분히 그러했기 때문에 출판업에 대한 정부 태도는 호의적일 수 없었던 것이 직간의 사정임.

2) 산업경영력 문제

- 가) 영세성·30평 이하의 사업장 규모가 전체의 54.5%.
- 나) 비경제성: 관련기능의 도심 안팎 분산에 따른 높은 제작 경비.
- 다) 공동체적 발전노력전개의 어려움.

3) 국토경제적 문제

- 가) 국토균형개발의 대상이 아니었음
  - 출판업계의 경제가 경제당국에 간명하게 파악되는 것이 아니었음. 인쇄같은 정성 출판산업은 제조업, 연성 출판산업은 제4차산업의 사무물 등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수도권 경비경책이 대상이 되기에는 그 경제가 불확실했음.
  - 수도권의 재정비정책의 공해같은 문제극복의 소극적 시각에서 추진되었음. 분재경비를 통해 보다 나은 발전을 모색한다는 적극적 시각에서는 추진되지 못했음.

4) 도시경제적 문제

- 가) 출판업의 관련기능간 외부경제는 교통혼잡같은 외부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음.
- 나) 그럼에도 서울의 공간구조 정비의 대상은 아니었음.
  - 서점, 재료상, 제작처가 서울 안의 이곳 저곳에 분산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새운 전자상가나 용산청파시장처럼 도시혼잡 유발 단일 부문으로 인식되지 못했기 때문임.

다. 집단이전의 필요성

1) 외부경제의 효율제고

만민구의 도시가 가능하다는 제안임.

- 전 세계적으로 대도시 주변에 계획된 신도시는 쾌적한 주거환경의 확보에 역점을 둔 주거도시이기 쉬웠는데 이 경우 한결같이 모도시와의 교통혼잡을 야기했음. 그런 점에서 출판단지가 택이 될 자족적 신도시는 적주근접의 효율이 있을 것임.
  - 적주근접은 다가오는 정보사회에 열려있는 복지효과의 역진성 완화에도 도움이 될. 정보사회의 대도시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적주간의 거리가 확대될 전망인데 이럴 경우 부담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음. 사회계층은 저소득층이라 전망되고 있음. 적주근접의 자족적 신도시는 그만큼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도시임.
- 다) 정보시대의 선도도시가 될 수 있음.
- 출판산업은 정보사회에 특히 합당한 유망 도시산업임. 또한 인력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고용효과가 높고, 그 고용효과가 고소득층과 함께 저소득층에도 두루 미치기 때문에 분배효과도 높음.

3) 모도시 서울에 미칠 효과

- 모도시 서울의 혼잡 완화에 기여할 것임. 도심의 혼잡에 가담하는 도시산업은 서울시 행정구역 바깥으로 분산해야만 혼잡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수도권의 공간경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수도권의 공간경비는 이른바 수도권의 '다핵도시화'로 지향하는 것인데, 출판도시는 거기에 부합됨.

마. 추진경위 및 현황

1) 참여업체: 출판 및 연관 583개 업체

- 대한출판문화협의회 회원사 380개사
-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 조합원사 94개사
- 재본공업 협동조합 조합원사 29개사
- 그 밖의 연관업체 80개사

- 출판산업의 현대화가 내부경제의 확대를 통해 이루어지기 어려운 체질이자 현실이기 때문에 관련업체간의 외부경제를 효율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출판업 육성의 방도임.
- 외부경제의 증진은 공업단지에서처럼 단지(complex 또는 estate)조성이 합당한 방도임.

2) 신개발의 이점 확보

- 신도시로 집단이전함으로써 신개발의 이점을 얻을 수 있음. 개발대상을 일거에 새로 개발하는 신개발(development)이 재개발(redevelopment)보다 발전의 목표 추구에 효과적이기 때문임.

라. 기대효과

1) 출판계에 미칠 효과

- 가) 출판업무공간의 확대
- 나) 유통, 배본 등의 공동관리로써 경제성 제고
- 다) 출판산업의 기술혁신 도모에 유리
- 라) 공동체적 발전 노력이 가능

2) 신도시에 미칠효과:

- 가) 일단의 출판산업이 신도시의 기간산업이 될 것임.
  - 신도시를 자족도시 하자면 기간산업의 임지가 필수적임.
  - 출판산업을 기간산업으로 삼는다면 부수효과도 많음. 역설적이지만 산업 이상의 출판문화인대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문화만한 것이 없음. 이미지는 도시의 인위적 조성에 특히 요 함.
- 나) 신도시를 자족도시로 유도할 수 있음.
  - 출판도시에 이주가능한 출판 및 관련업체가 모두 5백개 업체이고, 업체마다 평균 20인. 종사원이 일한다는데 그렇다면 총고용인구 1만명의 파급으로 최소 5

2) 추진경위

- 1989년 초 출판계 관심인사들에 의해 출판단지 설립의 가능성에 관한 의견교환 시작.
- 1989년 6월 14일 다수의 출판사들이 참여,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가칭)건설 계획 초안작성.
- 1989년 6월 20일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준비추진위원회 구성(대한출판문화협회장 의 11인).
- 1989년 7월 5일 국토개발연구소 초청으로 동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들은 위 의 초안 및 추진 취지를 설명.
- 1989년 7월 19일 출판단지 건설을 위한 제1차 심포지엄 개최(학계, 전문가, 언론계, 출판계 및 관련업체 다수 참석).
- 1989년 8월 1일 인쇄·제본업체 대표를 포함한 추진위원 13명 보강.
- 1989년 8월 18일 출판업계 및 연관업계를 위한 설명회 예정.
- 1989년 9월 1일 발기대회 열고, 출판문화산업단지건설조약 결성예정.



2.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사업계획구상

가. 개발 프로그램

1) 입지선정조건

- 서울 도심으로부터 1시간권 이내 위치
-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이용의 편의성과 화물수송을 위한 고속도로/철도와의 원활한 연계 보장
- 집단이주를 위한 대규모 신개발주거지 인접
- 도시기반시설 완비
- 저렴한 지가

2) 수용기능 및 시설

- 출판기획기능  
출판사, 디자인센터, 편집센터, 저작권중개업소, 출판물수출입업소
- 제작생산기능  
사전제판업소, 사진식자 및 컴퓨터업소, 인쇄소, 계본소, 지엽사, 인쇄제본계묘상, 색분해, 라미네이팅, 합지, 특수인쇄
- 유통·보관기능  
대형유통회사, 서점, 창고 운송회사
- 관리·정보기능  
출판문화산업센터, 출판정보센터
- 교육기관  
출판전문인양성교육기관
- 사회·문화기능  
도서관, 출판·인쇄박물관, 공연·집회장

8

- 복리·후생기능  
기숙사, 공연 등 휴식시설, 체육시설, 병원

3) 공간수요추정

- 출판문화산업단지에 수용될 시설의 소요부지 산정은 개발목표연도를 6년후인 1995년으로 하여
- 출판사, 인쇄소 등 출판물의 기획, 제작, 배포업무와 직접 관련된 시설들은 경제기획원에서 발간한 업소별 현황자료에 의한 요소별 원단위를 추출하여 추정하되, 향후의 성장가능성을 감안하고
- 사회·문화시설 등 사업추진체의 외지에 의하여 건설되는 시설들은 유사사례를 검토하여 적정규모를 결정함.

4) 적용기준

- 출판인쇄관련시설

시설명	수용업체수	업체당평균 종업원수	종업원1인당 건축면적	평균개발밀도 용적률(%)
출판사	380	9	16	50
인쇄소	94	6	14	100
계본소	29	22	13	150
지엽사	10	33	12	70
기타출판 관련업소	20	35	13	80
출판관련 서비스업체	50	7	12	350

9

5) 시설별소요면적

- 출판인쇄관련시설

시설명	건축연면적 M <sup>2</sup> 평		대지면적 M <sup>2</sup> 평	
출판사	107,400	32,500	214,800	65,000
인쇄소	15,500	4,700	15,500	4,700
계본소	16,500	5,000	11,000	3,300
지엽사	4,000	1,200	5,300	2,400
기타출판 관련업소	8,200	2,500	10,000	3,000
출판관련 서비스업소	8,400	2,500	2,400	700
계	160,000	약50,000	259,000	약80,000

- 유통관련시설

시설명	건축연면적 M <sup>2</sup> 평		대지면적 M <sup>2</sup> 평	
대형유통기구 및서점	64,000	19,500	43,000	13,000
운송및 배송업	680	200	10,000	3,000
창고업	21,500	6,500	43,000	13,000
계	86,580	26,200	96,000	29,000

10

- 유통관련시설  
대형유통기구 및 서점은 출판사 소요면적에 대비하여 건축면적은 60%, 대지면적은 20%를 책정  
운송 및 배송업은 1개단지로서 박차, 주유, 정비 등 운수관련 종합기능을 갖추도록 규모책정  
창고업은 출판사 소요면적의 20%를 책정
- 사회·문화시설  
도서관은 출판단지형성의 가장 상징적 시설이므로 대도시 공공도서관 규모로 대형시설 건설  
박물관은 특수박물관 중에서 공의기관에서 건설한 규모 중 평균규모로 건설  
공연장과 집회소는 동일건물로서 건설하고 규모는 구민회관 규모로 건설  
도서관시장은 전시장관을 이외에 옥외에서도 대규모 전시회 및 집회의 개최가 가능하도록 규모설정
- 관리·정보시설  
출판문화산업센터와 출판정보센터는 출판문화산업단지의 중추시설이므로 대형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부지책정
- 교육시설  
대형학원규모에 준하여 부지책정
- 도시간선시설(도로등)  
총소요면적의 20%로 책정

11

• 사회·문화시설

시설명	건축연면적 M <sup>2</sup> 평		대지면적 M <sup>2</sup> 평	
	도서관	10,000	3,000	10,000
박물관	5,000	1,500	5,000	1,500
공연장 접촉소	5,000	1,500	5,000	1,500
도서관시관	5,000	1,500	16,500	5,000
계	25,000	7,500	36,500	11,000

• 관리·정보시설

시설명	건축연면적 M <sup>2</sup> 평		대지면적 M <sup>2</sup> 평	
	출판문화 산업센터	10,000	3,000	10,000
출판정보 센터				

• 체육·휴식시설

시설명	건축연면적 M <sup>2</sup> 평		대지면적 M <sup>2</sup> 평	
	운동장 체육관	10,000	3,000	16,500

12

구분		건축연면적	대지면적	계
업무용시설	면적	79,200평	112,000평	2,136억원
	공사비	792억원	1,344억원	
교육시설	면적	500평	1,000평	13억원
	공사비	5억원	8억원	
사회문화 체육시설 간선시설	면적	10,500평	41,400평	210억원
	공사비	210억원		
계	면적	90,200평	154,400평	2,359억원
	공사비	1,007억원	1,352억원	

나. 영향평가: 모도시 서울관련

1) 교통

- 출판산업관련 업무교통은 물론이고 출판유통관련 교통량의 감소로 특히 동대문, 정계권 일대의 도심교통량의 감소효과가 예상된다.

2) 인구

- 출판산업 종사원에 대한 주택복지 편익이 주어질 경우 서울인구의 지방분산 효과가 발생할 것임. 종사원 1천명이 신도시로 이주하면 약 5만명의 인구분산효과가 있을 것임.

3) 도시재정

- 출판업체의 신도시 이전은 일차적으로는 도시재정의 감소효과로 작용한다. 그

14

• 교육시설

시설명	건축연면적 M <sup>2</sup> 평		대지면적 M <sup>2</sup> 평	
	출판인양성 및 계교육 기관	1,650	500	3,300

• 도시간선시설

대지면적 84,000 M<sup>2</sup> / 25,400평

6) 총소요면적

- 건축연면적 : 293,219 M<sup>2</sup> / 90,200평
- 대지면적 : 505,300 M<sup>2</sup> / 154,400평

• 경제기획원간행 출판업적 통계조사보고서(1986년)참조

- 출판인력인원증가의 성장률은 한국은행에서 간행한 경제통계연보(1988년)의 '80·87년간 백상지 및 아보지 생산량증가율(년12%)을 적용하여 목표연도에는 현재보다 약 230%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소요면적증가는 사무기계화 등을 감안하여 100%만 증가되는 것으로 산정

7) 사업비추정면적

- 건축부준중 업무용시설과 학교시설은 100만원/평, 사회문화, 체육시설은 200만원/평으로 공사비적용
- 대지구입비중 업무용시설은 120만원/평, 학교시설은 조성원가 80만원/평 사회문화, 체육시설은 대지비를 계상치 않음.

15

러나 사무실이 절대부족한 서울에서 출판업체가 신도시로 이전하면 사무실 임주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수요에 충족될 것이고, 그래서 도시재정에도 차질을 가져오지 않을 것임.

4) 이전적지의 활용

- 출판업체의 업무공간이 소규모로 존재했기 때문에 집단적, 계획적 노력으로 활용해야 할 적지는 없음. 소규모의 업무공간은 민간부문의 시장기능에 의해서도 효율·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임.

### 3.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사업시행 계획

#### 가. 사업추진조직

- 출판과 출판관련업체 간의 협동화사업을 위한 협동조합(중소기업법에 의한)을 결성, 추진주체로 삼는다.

#### 나. 사업추진 일정계획

- 1) 전반기-추진 준비자금 30억원을 1989. 8. 31까지 조성  
1989. 9. 1. 발기위원회의 결성 및 조합발족.
- 2) 중반기-토지구입대금 중 30%인 계약금 조성.  
계약 후 계약조건에 따라 구입대금 조성 지급함.
- 3) 하반기-건축은 계속사업이므로 1992년부터 1995년까지 건축대금 연차적으로 조성함.

#### 다. 자금조달계획

- 수요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모든 자금은 580개업체 평균 분담액 4억원정도 이므로, 만약 자체자금 미달분 발생경우, 재산처분과, 한국출판고, 한국출판협동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문예진흥기금, 근로자 아파트 기금 등으로 충당.

16

### 4. 소요주택 공급계획

구분	건설주체	소요량	건의사항
독신근로자용 숙소	자체건설	3,000명	소요토지분양
저소득자 임대아파트	건설당국	2,000가구	임주우선권의
사원주택 조합아파트	자체건설	2,000가구	소요토지분양

17

### 5. 결론과 건의

#### 가. 결론

- 1) 출판단지가 핵심 신도시 곧 출판도시는 국가산업으로서 그 자생력과 중요성이 확인된 출판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공간적 틀이 될 것임.
- 2) 정보사회의 도래에 즈음한 공간적 대응이다. 정보사회는 앞선 나라에서 확산되고 있는 중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그 징후가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음. 정보시대에 정보의 생산, 유통, 확산에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출판이 큰몫을 차지할 것임. 때문에 출판산업은 다가오는 정보사회를 선도할 첨단산업의 하나임.
- 3) 정보사회의 도래에 대비한 문화도시의 조성이다. 정보사회는 경제지상주의 대신에 문화다원주의가 지배는리임. 경제지상주의 시대에 공업도시의 조성이 필연적이었던 반면 문화다원주의 시대에는 문화도시의 조성 또한 필연적임. 출판에 관련된 모든 활동이 전개될 신도시는 살아 있는 문화박물관이 될 수 있음.
- 4) 신도시에 자리잡을 출판업체는 기계가 서울에서이전될 것이기에 우리 사회의 현안인 서울과밀 해소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다. 종래, 수도권과밀해소가 공공정책의 현안인데 저간에 이전대상이라 저류되던 민간부문이 공공정책의 시도에 협조적이지 아니었음. 반면, 문체계가 민간부문의 자발로 이루어진 출판도시의 경우, 격정수준의 유인력을 구사한다면 서울소계의 도시기능을 효율-효과적으로 서울의밖으로 분산시킬 수 있을 것임.

#### 나. 건의

- 1) 대량의 토지확보가 문제다. 우리 사회의 경우, 높은 지가에도 토지의 대량 구매가

18

지난하기 때문에 정부에 도움이 절대적임.

- 2) 용자편의 제공 및 세계상의 혜택이 출판업체의 이전을 효율적으로 자극할 것임.
- 3) 신도시의 핵심 출판단지 조성예의 도시기반 시설의 조성이 선결과제다. 학교 같은 도시공공시설, 접근로, 넓은 주차공간의 이용가능성 : 잘 짜여진 도시조경 및 건축 : 대도시간의 교통 편의 : 교외형 쇼핑센터 및 개인 및 전문서비스의 접근성 등이 필요 기반시설임.
- 4) 신도시의 자족성 제고와 제공간 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 근로자들의 주거공간 편의제공이 요청됨.

19



1989년 8월 31일 기자회견에서  
주요 추진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위원장과 홍보위원

자료 ①

제 목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  
-건설의 필요성과 건설계획구상 제1안

작성자 건설준비추진위원회

작성일 89. 8. 9.

배 경 「건설계획안」(자료①)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관계부처 및 해당 기관들에  
제출되었고 관련업계와  
회원들에게 배포되었음.

#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건설

건설의 필요성과 건설계획 구상

## 제1안

1989. 8. 9.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준비추진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72-9

### 목 차

- 1. 추진경위 ..... 2
- 2. 출판문화산업의 현황 ..... 3
- 3. 단지조성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4
- 4. 단지건설계획 구상 ..... 6
- 5. 사업추진계획 ..... 9
- 6. 이주자의 주택공급계획 ..... 11
- 7. 결론 및 선의 ..... 12
- 별첨 : 공간소요 추정기준 ..... 13

#### 1. 추진경위

##### 가. 추진주체

-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출판 및 언론산  
업분야의 583개 업체 참여(’80. 8. 9 현재)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원사 : 380 개사  
-서울신대출판문화진흥회 조합원사 : 94 개사  
-대한신문공업협동조합 조합원사 : 2 개사  
-기타 언론업체 : 80 개사

##### 나. 추진경과

- 1988 초 출판단지건설의 필요성 대두, 관심인사들에 의해  
건설 타당성 및 가능성 모색 시작
- 1989. 1. 정부의 신도시건설계획 발표에 따라 본격 검토  
착수
- 1989. 6. 14.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계획 시안 작성
- 1989. 8. 20.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준비추진위원회 정식  
경성
- 1989. 7. 19. 동 사업을 위한 1차 심포자움 개최, 사업의 당위성  
확인(산업계, 학계, 언론계, 도시계획 전문가 다수  
참여)
- 1989. 7. 건설부, 문공부, 국토개발연구원 등 신도시건설  
관련 정부기관에 사업의 필요성 재진, 적극적인 협조  
요청

## 2. 출판문화산업의 현황

### 가. 산업의 특성

- 출판, 디자인, 편집 등의 출판기획; 배판, 인쇄 등의 제작 및 생산: 창고, 서점 등의 유통 보관기능으로 구성된 도시형 복합산업
- 문자문화창달의 증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지식산업
- 대표적 중소기업으로서 고도의 노동집약성과 산업연관도를 지니고 융합승수의 시대

### 나. 산업의 현황

- 도서발행 총수 기준, 1988 현재 자유세계 5위, 세계 10대 출판국으로 성장
- 시골에 전국 관련업체의 75% 집중(출판사의 96% 집중)  
(대부분 강북지역, 특히 종로구, 중구에 밀집)

구분	출판사 수	출판권 수	인쇄대용량	성인서점 수	발행권 수	인쇄부수	유통업체 수
1984년	1,227	1,099만	3,300만권	1,087	2,246만	184,700,000부	1,470
1988년	1,312	1,530만	3,300만권	1,087	2,246만	184,700,000부	1,470

### 다. 산업의 전망

- 고도 경제성장과 정보화시대 도래에 따라 국내 수요급증 예상
- 선진국에서의 생산비증가로 출판문화산업의 수출산업화 전망 양호 (싱가포르, 이탈리아, 캐나다 등 상대적 인건비 저임국가의 출판문화산업 기지화 추세)
- 관련업종의 세분화, 전문화 추세로 업종간 기능적, 공간적 유대 강화 필요성 증대

등의 산업기능과 출판문화산업센터 및 도서관 등의 지원 기능, 기숙사 등의 후생복지시설을 고루 갖춘 문화산업의 콤플렉스 건설

### 다. 기대효과

- 출판문화산업의 선진화 촉진으로 민족문화 창달 육성
  - 유통, 배판의 공동관리로 생산성계설 대폭 신장
  - 계획적 공간환경 향유로 산업의 기술축진 가속화
  - 관련산업의 계열화 촉진으로 산업의 공동체적 도약 제기화
- 문화기능의 신도시 도입으로 도시 특성 부여, 경제기반 강화
  - 대표적 문화산업의 집단지원으로 문화도시로서의 명확한 도시 특성과 도시 이미지 창출 가능
  - 산업과 종사자의 집단지원으로 신도시의 경제기반 대폭 강화와 자족성 제고
  - 직주근접의 시현으로 토지의 고도이용 및 교통문제와 근원적 저감
- 이권저지의 활용으로 서울의 도시경비 기회 제공
  - 교통유발시설의 대량이전으로 교통부담 완화에 기여
  - 산업종사자의 집단지원으로 인구분산효과 시현 (총업원 7,000, 가족포함 20,000인 이권 예상)
  - 이전저지 발생으로 도심부 토지이용의 순회 및 환경개선효과 제기

## 3. 단지조성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가. 문제 및 필요성

- 도심집중에 따른 외부 불경제 유발
  - 부속적 시설의 도심밀집도 교통난 가속 및 고도 토지이용 저해
  - 고지가지역 밀집도 경제적 부담가중, 산업의 현대화 좌절 발생
- 시설 열세성에 따른 산업경쟁력 약화
  - 규모의 명세성으로 산업경쟁력 취약 (30명 이하 사업장 규모 전체의 54.5%)
  - 시설의 노후화로 경영적 효율성 저하
- 관련업종간 계열화 미비로 산업생산성 저하
  - 자연형성적인 도시내 혼산밀집으로 관련업체 또는 업무간 불필요한 교통수요 발생, 생산의 비경제성 초래
  - 공간환경적 제약으로 출판문화산업 전체로서의 공동체적 발전계획 추진 곤란 (유통구조의 현대화, 출판정보기능의 강화 등)
- 국가의 산업 및 공간계획정책에서 소외
  - 출판문화산업의 막중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산업발전정책에서 소외
  - 서울 도심밀집에 따른 도시문제와 산업경제문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재정비 및 서울 공간구조 개편의 주요 대상으로 미대두

### 나. 단지조성의 방향

- 수도권 외곽에 건설 예정인 신도시의 일정 구역을 "출판문화산업단지"로 용도를 특화하고, 합리적 계획 아래 출판, 인쇄, 배판

## 4. 단지건설계획 구상

### 가. 기본방향

- 산업구성 및 규모의 적정성 확보
- 신도시 건설계획과의 결합성 유지

### 나. 도입기능

- 증추생산기능
  - 출판기획기능: 출판사, 디자인센터, 편집센터, 저작권 중계업소, 출판물 수출업소
  - 제작생산기능: 사진제판업소, 사진식자 및 원류티업소, 인쇄소, 색본소, 지명사, 인쇄세본제조상, 색분쇄, 라미네이팅, 합지, 특수인쇄
- 유통, 관리기능
  - 유통보관기능: 대형유통회사, 서점, 광고업소, 운송회사
  - 관리정보기능: 출판문화산업센터, 출판정보센터
- 공동지원기능
  - 교육훈련기관: 출판전문인 양성 교육훈련시설
  - 사회문화기능: 도서관, 출판·인쇄박물관, 공연집회장
  - 복리후생기능: 출판원기숙사, 휴식시설, 의료시설

### 다. 공간 소요 추정

- 추정기준
  - 목표년도를 1995년으로 하되 추후 성장 가능성 확보
  - 이전 희망업체 기준으로 하되, 산업구성의 적정비 감안

- 시설유형별 원단위는 업소별 현황자료와 출판진흥국의 유사 사례 감안하여 설정하되 경제적 토지이용률 전체로 최소 토지소요 추정 (구체적 추정기준 및 추정과정은 별첨)

• 총 공간 소요

유형	대지면적(평)	건축면적(평)
총계	155,400	90,700
출판인쇄관련	80,000	50,000
유통관련시설	29,000	26,200
사회·문화시설	11,900	7,500
관리·정보시설	4,000	3,500
체육·휴식시설	5,000	3,000
교육시설	1,000	500
도로·주차장	25,400	-

다. 공간계획

• 위치조건

- 신도시의 도심화지로 상업업무기능과 주거기능의 전이지역
- 평탄기로서 화물운송을 위한 간선도로 및 철도노선 인접지역
-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서 복합용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

• 계획개념

- 일단으로 개발하되 시설유형에 따라 지구별로 기능 구분
- 단지 중심부에는 유통관리기능과 도서관, 박물관 등 공동 지원기능 배치하되, 국제 출판전시회 등 개최할 수 있는 여유공간 확보
- 일부지역은 복합용도로 개발하여 상업기능과 종업원숙소 등 후생복지기능을 중첩 배치

5. 사업추진계획

가. 기본방향

- 추진주체로 가정 "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조합"을 결성하여 사업 주도('89. 9. 1 결성 예정)
- 건설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전과정에 걸쳐 정부 관련기관의 심의, 조정으로 신도시건설사업과의 결합성 확보 및 사업의 공공성 보장

나. 추진방법

• 계획수립

- 신시가지 기본계획에서 출판문화산업단지의 위치, 규모 등 기본사항 포함하여 확정
- 건설조합이 당시의 도시설계안 수립하여 정부 심의조정 후 확정
- 이 과정에서 공영의 등 개최하여 유관기관, 참여업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기회 마련

• 도시공급

- 신시가지개발계획과 관련 사업계획에 의거, 신도시개발주체에서 택지 개발 후 조합에게 입찰 분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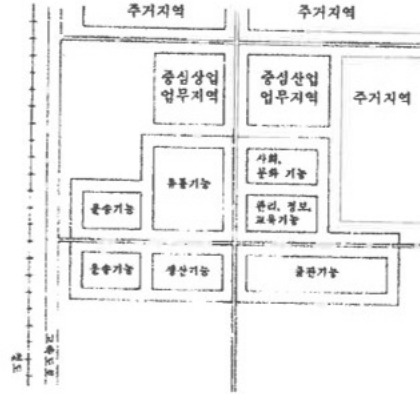
• 건설 및 처분

- 상거 도시설계에 의거하여 조합이 참여업체에게 필지별로 공급하고 조합 및 정부유관기관 감독하에 참여업체별로 건설, 이전
-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및 단지내 기반시설은 조합에서 직접 건설

• 관리운영

- 조합을 상설기구화하여 건설 후 공동시설의 관리운영 전담

• 출판문화산업단지 기능 배분 구상도



다. 재원조달계획

- 토지매입 및 공동시설 건설비는 참여업체 승언으로 기금 조성, 승당하되, 추가적으로 한국출판금고, 한국출판협동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문예진흥기금, 근로자이프라프 기금 등 활용

6. 이주자의 주택공급계획

가. 필요성

- 출판문화산업단지의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주근접이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이전업체 종사자들에게 대한 주택공급이 필요 불가결함.

나. 주택소요추경

구분	소요(세대)
독신 종업원 숙소	3,000
사원 임대 아파트	2,000
사원 분양 아파트	2,000

다. 공급방안

- 독신 종업원 숙소는 산업단지내에 복합용도로 조합이 자체 건설
- 사원 임대 아파트는 수요자에게 임대 우선순위 부여
- 분양아파트의 일부는 분양조합을 결성하여 공공주택 공급분 중에 분양받고 잔여분에 대하여는 조합을 결성하여 민간건설부지내에서 자체 건설 공급

별첨 : 공간소요 추정기준

1. 적용 기준

• 출판인쇄관련시설

시설	수용인원수	일제당평균 종업원수	종업원1인당 건축면적(m <sup>2</sup> )	평균제당인도 (용적률 3%)
출판사	380	9	16	50
인쇄소	94	6	14	100
계본소	29	22	13	150
지입사	10	33	12	70
기타출판관련업소	20	25	13	80
출판관련 서비스업체	50	7	12	350

• 유통관련시설

- 대형유통기구 및 서점은 출판사 소요면적에 대비하여 건축면적은 60%, 대지면적은 20%를 책정
- 운송 및 배송업은 1개 단지로서 주차, 주유, 정비 등 운수관련 종합기능을 갖추도록 규모 책정
- 창고업은 출판사 소요면적 20%를 책정
- 사회·문화시설
  - 도서관은 출판단지 형성의 가장 상징적 시설이므로 대도시 공공도서관 규모로 대형시설 건설
  - 박물관은 특수박물관 중에서 공익기관에서 건설한 규모 중 평균 규모로 건설

7. 결론 및 건의

출판문화산업은 민족문화 창달을 위한 핵심적 산업으로, 정보화사회의 도래와 출판산업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급격한 기능 신장이 요청되는 대표적 도시형 중소기업이나,

서울 도심부에 분산 집중되어 있어 산업성장에 구조적 제약이 있을 뿐 아니라 인구집중, 교통혼잡, 토지이용부정 등 각종 도시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한편,

구체적인 문화기능을 신도시에 유치함으로써 도시의 특성과 이미지를 부각하고, 신도시의 경제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부적격 시설의 대폭 이전으로 수도권 인구 및 산업 재배치의 효과를 기함과 동시에 도심 환경 정비의 기회가 창출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어 사회, 경제, 문화, 지역계획 등 다방면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일산 신도시건설계획에 포함하여 출판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을 건의하며,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전을 희망하는 출판문화산업분야업체들로 구성되는 조합에 소요토지를 저렴가격으로 공급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세반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조치를 강구하고,

단지건설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당 산업종사자를 위한 주택공급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 공업장과 집회소는 동일건물로서 건설하고 규모는 구민회관 규모로 건설

- 도서전시장은 전시장건물 이외에 옥외에서도 대규모 전시회 및 집회의 개최가 가능하도록 규모 설정

• 관리·정보시설

- 출판문화산업센터와 출판정보센터는 출판문화산업단지의 중추시설이므로 대형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부지 책정

• 교육시설

- 대형학원 규모에 준하여 부지 책정

• 도시 간선시설(도로 등)

- 총 소요 면적의 20%로 책정

2. 시설별 소요 면적

• 출판인쇄 관련시설

시설명	건축면적		대지면적	
	M <sup>2</sup>	평	M <sup>2</sup>	평
출판사	107,400	32,500	214,800	65,000
인쇄소	15,500	4,700	15,500	4,700
계본소	16,500	5,000	11,000	3,300
지입사	4,000	1,200	5,300	2,400
기타 출판관련업소	8,200	2,500	10,000	3,000
출판관련 서비스업소	8,400	2,500	2,400	700
계	160,000	약 50,000	259,000	약 80,000



• 유통관련시설

시설명	건축면적		대지면적	
	M <sup>2</sup>	평	M <sup>2</sup>	평
대형유통기구 및 서점	64,400	19,500	43,000	13,000
운송 및 배송업	660	200	10,000	3,000
창고업	21,500	6,500	43,000	13,000
계	86,560	26,200	96,000	29,000

• 사회·문화시설

시설명	건축면적		대지면적	
	M <sup>2</sup>	평	M <sup>2</sup>	평
도서관	10,000	3,000	10,000	3,000
박물관	5,000	1,500	5,000	1,500
공연장 집회소	5,000	1,500	5,000	1,500
도서관시관	5,000	1,500	16,500	5,000
계	25,000	7,500	36,500	11,000

• 관리·정보시설

시설명	건축면적		대지면적	
	M <sup>2</sup>	평	M <sup>2</sup>	평
출판문화 산업센터	10,000	3,000	10,000	3,000
출판정보 센터	1,650	500	3,300	1,000
계	11,650	3,500	13,300	4,000

15

• 체육·휴식시설

시설명	건축면적		대지면적	
	M <sup>2</sup>	평	M <sup>2</sup>	평
운동장 체육관	10,000	3,000	16,500	5,000

• 교육시설

시설명	건축면적		대지면적	
	M <sup>2</sup>	평	M <sup>2</sup>	평
출판인 양성 및 재교육 기관	1,650	500	3,300	1,000

• 도시 간선시설

- 대지면적 84,000M<sup>2</sup> / 25,400평

\* 경제기획원 간행 출판업체 통계 조사 보고서(1988년) 참조.

\* 출판인재양성 관련시설의 성장율은 전국주방에서 진행된 경제통계연보(1988년)의 '81~'87년간 책상의 첫 어프치 생산액 증가율(연 12%)을 적용하여 목표년도에는 현재 보다 약 230%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수요 면적 증가는 사무 기제화 등을 감안하여 100%만 증가되는 것으로 산정.

16

## THE KOREA PUBLISHING CITY NEWS

출판도시뉴스는 출판도시의 소식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지는 출판도시의 현황과 전망을 소개하고, 출판도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출판도시의 문화와 예술을 소개하고, 출판도시의 정책과 제도를 소개한다. 본지는 출판도시의 소식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지는 출판도시의 현황과 전망을 소개하고, 출판도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출판도시의 문화와 예술을 소개하고, 출판도시의 정책과 제도를 소개한다.



주요한 출판도시의 발전은 출판도시의 현황과 전망을 소개하고, 출판도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출판도시의 문화와 예술을 소개하고, 출판도시의 정책과 제도를 소개한다. 본지는 출판도시의 소식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지는 출판도시의 현황과 전망을 소개하고, 출판도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출판도시의 문화와 예술을 소개하고, 출판도시의 정책과 제도를 소개한다.

추진위원회에서 발간하는 부정기 간행물·출판도시뉴스 제1호

자료 7

위대한 책의 문화를 창출하자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조합 발기선언문

제 목 위대한 책의 문화를 창출하자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조합 발기 선언문-

작성자 건설준비추진위원회

작성일 89. 9. 5.

배 경 단지건설 사업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확인한 후 출판 및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89년 9월 5일 상오10시 대한출판문화협회

강당에서 건설조합 발기인대회를 열고

이 선언문을 채택하였음.

출판은 나라와 사회의 총체적 발전을 담보하는 창조적 원동력이다. 우리는 오늘 이 나라 이 사회의 총체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출판문화의 위대한 가능성을 확인 하면서,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의 건설을 시작한다.

다사다난하고 고난에 찬 20세기를 마감하고 우리 민족사회에 무한히 새롭고 희망 찬 시대가 될 21세기를 향하고 있는 이 전환기에, 보다 소망스런 출판문화의 창출과 업을 위해 우리 출판문화산업인은 우리의 직업적 소명 의식을 여기 다시 다짐한다. 우리는 지식과 정보의 시대에, 한량한 민족문화의 전통을 우리의 긍지로 삼으면서, 우리의 모든 지력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의 건설을 발기하는 것이다. 모든 문화와 예술, 학문과 사상 창조에 원천이자 그것의 궁극적 성과로서 나라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구체적 전력이자 힘이며, 모든 인류의 보다 복된 삶을 평화적으로 보장하는 출판문화가 이제 우리 시대의 중심주제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건설하는 출판문화산업단지는 21세기 우리 국가사회 발전의 실질적 상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 민주화된 복지사회를 지향해 전진하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화된 복지사회는 문화로 나라와 사회의 토대로서 증식하고 그것은 바로 책의 문화, 책의 힘을 의미한다. 21세기를 우리 민족사회의 위대한 시대로 창조해내기 위해 서 우리는, 문화창출의 기본구조를 이루는 출판물 우리 세대의 중심주제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문화적 전통을 오늘에 되살리고 이 과학과 산업의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식과 정보산업의 핵심역으로서 출판문화산업을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당연히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날로 진전되고 있는 산업화시대에 출판문화산업은 이제 발전하는 국가사회의 보편적 필수조건으로서 우리 앞에 제시되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작업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고 있는 이 민족사회의 역사적·시대적 요구에 대한 우리 출판문화산업인의 주체적 대응이다. 출판문화산업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가 힘으로 건설하는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는 다음과 같은 국가적·사회적 역할을 해낼 것이다.

1

첫째, 우리 출판문화산업 창출의 획기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현대화·과학화가 급속도로 추진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산업화에 따른 지식 및 정보에 대한 요구는 날이 갈수록 폭발적으로 증대할 것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출판문화 창출의 현대화·과학화는 당연하고도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출판문화산업의 현대화·과학화는 출판문화 창출 및 생산의 전근대적인 관행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일일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른 문화적·산업적 생산 및 창출작업을 양적으로 증대시키고 질적으로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출판문화산업의 현대화·과학화는 출판문화산업단지에서의 집중화된 연구와 공동노력으로 용이하게 추진될 수 있다. 출판문화산업단지는 우리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출판문화 창출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우리가 건설하는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는 출판계의 숙원인 출판물 유통망의 현대화를 당면히 해결시킬 것이다. 우리 출판계의 오랜 과제인 출판물 유통의 현대화는 유력한 출판사가 대거 참여하는 출판문화산업단지에서 자연스럽게 추진될 수 있고 이는 날로 증대되는 출판문화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다. 출판물 유통의 현대화를 통해 우리는 독자층의 대량적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곧 우리 사회의 총체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셋째, 우리가 건설하는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는, 좁은 의미의 출판문화 창출의 공간으로서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창출해내는 모든 문화적 결실이 힘차게 전시되고 공연되고 토론되는 우리 문화 창출의 중심으로서 그 역할을 당당히 해낼 것이다. 국내의 수준의 다양한 문화행사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에서 치러질 것이고, 이는 곧 출판작업을 통해 확산되고 재생산될 것이다.

넷째, 우리가 건설하는 출판문화산업단지는 변천하는 세계를 호응하고 우리의 문화를 세계로 내보내는 국제적 문화공간으로 존재할 것이다. 국제도시권을 비롯한 세계적 규모의 문화행사가 우리의 출판문화산업단지에서 치러질 것이다.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는 세계의 문화와 예술, 학문과 사상을 호응하는 열린 창이 될 것이고 우리의 민족문화를 세계화시키는 창구가 될 것이다. 세계의 한국문화와 한국의 세계화는 21세기 우리 사회의 지평이고 바로 이같은 작업이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를 통해 이뤄질 것이다.

다섯째, 우리가 건설하는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는 출판문화 창출작업에 나서고 있는 모든 일꾼들의 인간다운 삶의 공간이 될 것이다. 출판문화의 사회적 위상의 정당한 회복과 더불어 출판문화 일꾼들의 삶의 질이 적절하게 보장될 것이고, 따라서 출판문화산업단지의 건설은 출판문화 일꾼들의 복지를 도모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우리의 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은 출판계 인위으로부터의 열렬한 응원과 성원뿐 아니라 문화계 등 범사회적인 지지와 격려에서 이제 그 당위성이 명백히 제시되면서 놀라운 추진력이 축적되고 있다. 역사와 전통을 지향하는 명문 출판사들과 개성 있는 책으로 새로운 출판문화를 개척해내고 있는 신예 출판사들이 손을 잡았을 뿐 아니라 인쇄·재본 등 출판연관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다자간 등 책의 문화를 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가세하고 있다. 출판계 인위에서 우리 출판의 발전을 위한 여러 시도가들이 진지하게 있었지만, 이번의 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을 위한 우리들의 힘동작업은 출판문화산업계의 새로운 역사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문화계·학계·언론계와 경제인간기관 및 정책입안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는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의 밑거름이 되고, 크나큰 격려가 되고 있다.

우리의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근거이자 자산으로서 우리 모두의 명예와 양식과 긍지로 건설되어야 한다. 민족문화사의 대역사로서 오늘 출범하는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는 따라서 단시일내에 착공으로 건설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연대해 창출하는 하나의 거대한 예술품으로서 기획되고 연구되며,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세계에 내놓아 자랑할 수 있는 문화 창출의 집단공간으로, 그리고 가장 한국적인 내용과 형식을 담아내는 민족문화의 궁지로서 우리는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를 건설하자. 21세기 우리 민족사회의 위대한 가능성이자 민족문화 창출의 현대화되고 과학적인 공간으로서 우리의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를, 책의 문화를 신뢰하는 우리 사회 모든 성원과 더불어 건설해나가자.

1989년 9월 5일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조합 발기인 일동

3



1980년 9월 5일, 김경희 회원이  
발기선언문을 낭독한 후  
발기인들이 박수로 채택.



자료 8

출판문화산업단지 발기 준비위원

재 목 출판문화산업단지 발기준비위원 및  
실행위원 명단

배 경 89년 6월 20·7월 31일까지의 준비위원 (오른쪽)  
89년 8월 1일·9월 4일까지의 준비위원 (아래 왼쪽)  
89년 9월 5일·90년 현재까지의 실행위원의 명단 (아래 오른쪽)

성 명	사무실	가 락
위원장 이기용 (영취당)	719-4167	903-3251
권병익 (기학사)	392-4225	393-1155
이왕성 (평택출판사)	734-3341	732-6690
김경희 (서식산업사)	734-1978	739-5170
김병익 (문학과학사)	338-7222	387-5830
기 획 김연호 (한길사)	922-9525	552-6254
기 록 김홍수 (한울)	702-7571	032-662-6756
박병호 (민용사)	734-2000	599-3034
윤명두 (범우사)	717-2121	877-0676
전병석 (문예출판사)	737-2356	363-4261
나병식 (물빛)	363-5995	695-0507
재 정 최선호 (정안문화사)	277-2914	415-8116

출판문화산업단지 발기 준비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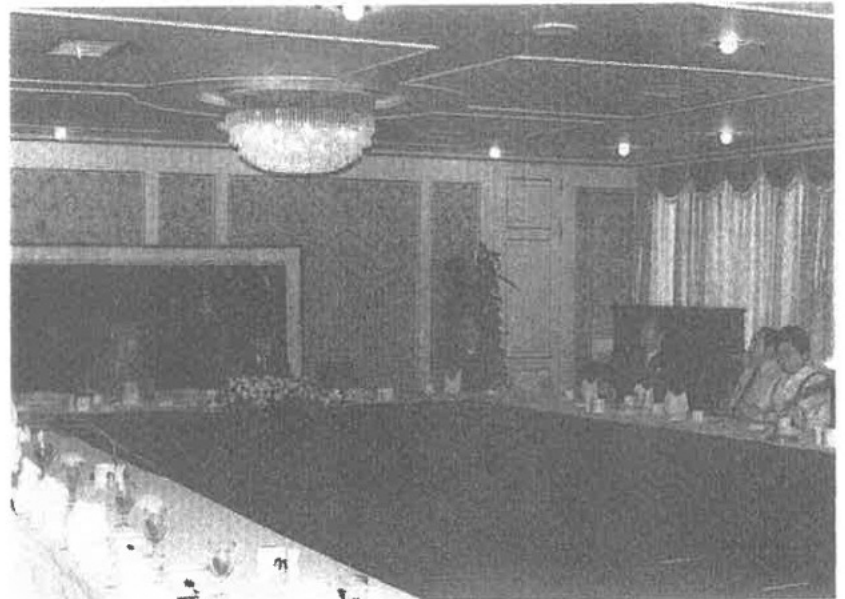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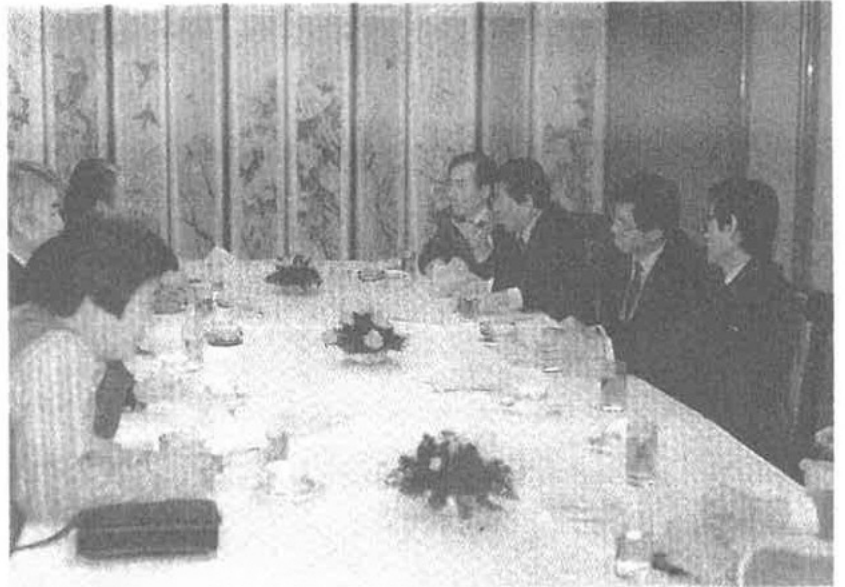
위원장	성 명	출판사명	사무실	가 락
	이기용	영취당	719-4167	903-3251
	권병익	기학사	392-4225	337-1155
	이왕성	평택출판사	734-3341	732-6690
	김경희	서식산업사	734-1978	739-5170
	김병익	문학과학사	338-7222	387-5830
기 획	김연호	한길사	922-9525	552-6254
기 록	김홍수	한 울	393-7331-3	032-662-6756
	박병호	민용사	734-2000	599-3034
	윤명두	범우사	717-2121	877-0676
	전병석	문예출판사	737-2356	363-4261
	나병식	물 빛	363-5995	695-0507
개 정	최선호	정안문화사	277-2914	415-8116
	윤석균	웅진출판사	742-7933	
	박기봉	비룡출판사	234-3365	
	정인철	한국프리뷰	548-3576	
	김현식	문악출판사	864-2066	
	임인수	한빛출판사	735-5146	
	김광수	대한교과서	557-8873	
	김관석	역광출판사	392-9921	
	나은호	영광당	249-3333	
	이은재	신일출판	676-7771-4	
	이왕성	경일계행	714-1069	
	김직송	민중경제연구소	335-6161	216-1261
	한태용	한덕계분	712-9491-2	
	김홍병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	336-6932 (차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발기 실행위원명단

성 명	회사명	사무실	가 락	비 고
이기용	영취당	719-4167	903-3251	위원장
권병익	기학사	392-4225	337-1155	전신
김경희	서식산업사	734-1978	739-5170	정관
김병익	문학과학사	338-7222	387-5830	홍보
김연호	한길사	922-9525	552-6254	홍보, 업무
김연호	영지사	865-0041	444-2667	전신
김홍수	한 울	393-7331	702-7579	기 록
김현식	문악출판사	866-8890	542-6224	재정
박기봉	비룡출판사	234-3365	422-4822	재정
박병호	민용사	734-2000	599-3034	건 설
박지업	포플러	312-4061	978-8744	홍보, 업무
박용갑	신동인쇄	730-8171	591-1366	건 설
박호진	법보사	735-6473	336-5378	재정
윤석균	웅진출판사	742-7933	542-6730	재정
윤성광	문국출판사	735-6198	386-4667	경 관
윤명두	범우사	717-2121	877-0676	개 결
이은재	후문공	676-7771	354-9119	전신
임인수	한빛출판사	735-5146	334-1987	전신
정인철	한국프리뷰	549-7761	417-5802	재정
최선호	정안문화사	277-2914	415-8116	개결, 업무
이정경	문예출판사	734-3341	732-6690	경 관
전병석	문예출판사	737-2356	363-4261	경 관
최상호	남양출판사	587-2054	583-9266	감 사



1989년 11월  
실행위원회의 풍경



자료 9

제목 긴급보고와 「일산 신도시 계획에 관한 공청회」유인물

작성자 추진위원장, 국토개발연구원

작성일 89. 12. 12.

배경 국토개발 연구원들의

「일산 신도시 개발 계획안」이 발표된 후 열린 공청회의 자료와 함께 추진위원들에게 배포된 위원장의 보고서.

건급 보고드립니다.

법령으로 동봉해 드리는 유인물은 일산 신도시 개발계획에 관한 공청회 서류입니다. 이 서류가 바로 국토 개발 연구원에서 시안한 일산 신도시 개발 계획안입니다.

지난 12월 12일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 4시간 30분에 걸쳐 전지한 공청회본체가 있었는데 본인도 처음서부터 끝까지 방청,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니다.

일산 단지 주민들이 제기하신 것은 열린공청회의 열기는 대단했으며, 특히 역사성과 아름다운 지역사회의 부가가 높은 일산지역을 개발하여 일어 쟁을 만들고 있는 우리 출판인들은 진지하고 숙연한 자세로 임하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검토하시면 아시겠지만, 출판문화산업단지는 일산 신도시의 남동부 전일부에 배치되어 있는 상업업무지역입니다.

실제 실무자에 따르면, 기차 업무 시설지역을 포함 약 6만 여평이라고 하는데, 이는 확정면적이 아니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출판문화에 인접한 공원 용지도 걸리는 출판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될것으로 믿어집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추진위원장의 명의로 12월 8일 건설부장관 및 토지 개발공사사장 앞으로 건의된 우리의 계획서에 의하면, 출판문화가 필요로 하는 면적은 155,400 평입니다.

따라서 이같은 면적은 우리로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극강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들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일국에 의하면, 일산신도시는 유역없는 폐쇄한 전원 도시이기 때문에 상업업무 지역의 면적이 워낙 부족하고, 따라서 모든 건물을 고층화 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도시를 개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6만평이라도 당초 우리의 계획에 합당한 건축면적이 충분할 뿐 아니라 오히려 용족한 면적이 나온다는 실망이 있었습니다.

이 서류를 검토하시고, 이제 우리의 계획을 내세웠는 계획으로 합리화시키고 구체화시킬 준비를 해야하겠습니다.

본인은, 앞으로 당국과 끊임없이 협의하고, 그 내용을 여러본게 "출판도시뉴스" 나 "건급공론" 이나, 직접 "설명회"를 통해 보고 드리는 일을 계속미 하지 않을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로서, 출판도시 건설계획의 일단계 작업이 마무리되고, 이제 이단계 추진업경과 계획을 잡아, 우리 출판계의 결성된 힘을 보여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자들을 포함하여 출판계 종사자들의 수택문제를 먼저 일산에 확보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겠기 때문입니다.

주거문 제와 아울러 일산시에 출판단지에서 4-8 미로 미터 떨어진 외곽 지역에 대규모 제2의 출판타운을 건설하는 계획도 서급히 서둘러야 할 과제입니다.

어려분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989. 12. 13.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이 가 용



# 一山新都市開發計劃에 관한 公聽會

日時：1989. 12. 12(火) 14:00-18:00  
場所：建設會館 中會講室  
主催：國土開發研究院  
後援：建設部·韓國土地開發公社

趣 旨

現在 研究중에 있는 首都圈內 新都市開發計
劃에 대한 各分野 專門家 및 國民의 意見을 事
前 收斂하여 우리나라의 傳統과 現實的 條件
에 부합되는 바람직한 新都市開發 模형을 定
立하고자 함.

主題發表 및 時間計劃

- 14:00-14:30 開會式
14:30-15:30 主題發表
15:30-18:00 Coffee Break
18:00-18:00 總會討論

會議概要

- 1) 名 稱: 一山新都市開發計劃에 관한 公聽會
2) 日 子: 1999. 12. 12(火) 14:00-18:00
3) 場 所: 建設會館 中會議室 (2樓)
4) 主 催: 國土開發研究院
5) 後 援: 建設部, 韓國土地開發公社
6) 討論會構成: 主題發表 및 總會討論
7) 參加人員: 發言者 2人
司會者 1人
討論者 11人

分科別 參席者 名單

- 司會者: 許善錫 (서울대 교수)
主題發表: 安건택 (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
정석희 (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
討論者:
學 界: 강병기 (한양대 교수), 김희원 (경희대 교수), 김형국 (서울대 교수), 오위영 (한양대 교수)
官 廳 界: 정병수 (MBC 해설위원), 최택안 (서울신문 논설위원)
政 府: 김건효 (건설부 신도시건설기획실의장), 조재효 (경기도 도시계획국장)
關 聯 企 業 界: 임광수 (한국토지개발공사 특별사업본부장)
市 民: 김철수, 무이환

目 次

Table with 2 columns: Section Title and Page Number. Includes sections like I. 新都市의 概念, II. 開發의 背景과 意義, III. 開發의 立地條件과 開發의 形態, IV. 計劃地區 現況, V. 計劃의 基本方向, VI. 計劃 模範, VII. 計劃의 執行.



# I. 新都市의 概念

## 1. 新都市 開發의 歷史

- 新都市開發의 포괄적 개념이 최초로 정립된 것은 19세기 말로서 英國의 하워드(H. Howard)에 의한 田園都市理想으로 볼 수 있음.
- 田園都市에 대한 하워드 제인의 주요내용은 大都市의 인구에 대한 住宅供給 및 都市問題와 解決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었으며 都市와 農村生活의 양면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강조되었음.
- 그후 1946년 英國에서 新都市法(New Town Act)이 공포된 이후로 서구의 여러나라에서 大都市의 過밀을 해소하기 위한 巨額의 都市政策으로 新都市 建設이 추진되었음.

## 2. 新都市의 定義

- 新都市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지만 크게 廣義와 狹義의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廣義의 新都市는 "計劃적으로 開發된 새로운 居住地"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며, 衛星市 依存的인 衛星都市나 郊外田園 住居市 뿐만 아니라 대도시 내부에 新構로 개발되는 大規模 住宅團地까지도 新都市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음. 狹義의 新都市는 새로운 개발된 獨立의인 都市만을 의미하게 됨.
- 新都市의 유형은 주로 都市機能의 차이에 따라 分類할 수 있는데 自足的都市, 農業都市, 衛星都市, 研究開發都市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음.

## 3. 新都市開發의 必要性

- 新都市의 개발은 大都市에서 발생하는 住宅 및 交通問題, 도시의 혼잡 등 제반 都市問題의 해결과 廣域補出 등의 목적을 위하여 포괄적인 國家的 次元的 政策代案으로 흔히 채택됨.
- 따라서 新都市의 建設은 國家의 土地資源과 財政의 敍事的인 이용, 人口의 合理的 再配置, 住宅供給 및 양질의 住居環境提供, 地域開發의 거점 형성 등에 기여할 수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新都市 계획의 관련계획인 總土計劃이나 地舖計劃 등 上位計劃과의 상호연계적인 政策獨立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본래의 新都市 開發效果를 기대하기 어려움.

# II. 開發의 背景과 意義

## 1. 新都市開發의 背景

- '60년대부터 가속된 都市人口集中과 大規模 工業團地 造成으로 인한 郊外都市의 필요성 등에 의해 新都市 開發이 시작
- '60년대 後半: 울산, 성남
- '70년대 後半: 반월, 창원, 과천 등
- '80년대 末 : 분당, 일산 등
- '80년대부터 政府의 福祉政策 強調, 環境의 質에 대한 關心과 복지고조, 車禍削減의 증가와 도시내 生活環境 惡化 등으로 인해 交通이 편리한 新市街地, 郊外 住居地로의 移住 욕구가 급증

- 所得增加와 核家族化로 住宅需要가 급증하는 반면, 宅地價格 暴騰, 住宅價格 暴騰으로 인한 住宅難이 부진, 이로 인한 住宅不足 現象이 惡化됨.

## 2. 新都市 開發의 決定的 動因

- 200萬戶(首都圈內 90萬戶)住宅建設 政策의 遂行을 위한 大規模 宅地開發事業이 新都市開發이 아닌 宅地開發 形態으로 2~3년 전부터 計劃 推進
- 既存都市內 大規模 開發可能土地가 枯竭되어가고 地價가 暴騰하여 大量의 低廉地供給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GB外圈에 새로운 市街地 造成이 不可避

## 3. 新都市開發의 意義

- 都市政策 側面
  - 서울近郊에 新都市開發은 首都圈計劃의 實施政策과는 다소 相補되며 地域開發開發 측면에서도 否定的 影響이 존재함.
  - 그러나 新都市開發은 서울의 負擔이나 人口의 濃縮의 分散이라는 肯定的인 측면도 있으므로 開發을 推進하기 위해서는 上位計劃 細部內容의 調整이 필요하며, 同時에 開發의 結果가 首都圈計劃의 根本 理念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對策을 마련하여야 함
- 都市計劃 側面
  - 現在와 가까운 未來에 既存都市가 당면할 가장 큰 문제는 卓越의 增加와 이의 教育임. 計劃 新都市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여 過去

의 新都市라는 다른 都市形態을 갖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未來 指向的인 風氣都市로서의 開發이 可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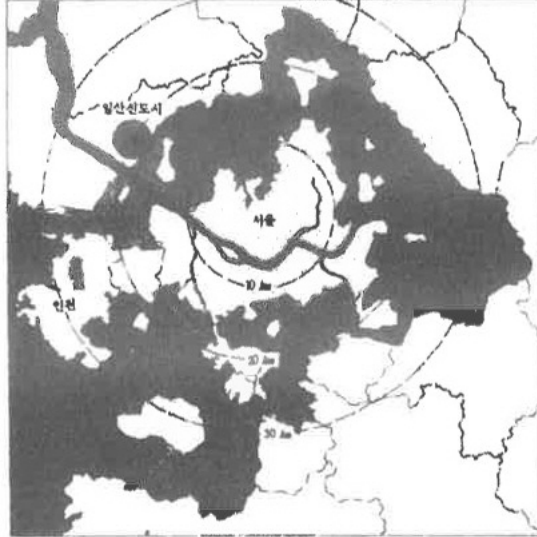
- 이제까지 新都市 住民은 대개 中低所得의 階層이 중심이 되어 왔으나, 計劃新都市는 政府가 의도한 대로 中産層의 移住도 큰 비중을 차지할 것임. 이는 車禍削減 증가추세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轉來 中産層 이상 階層의 郊外住居地로의 이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都市開發이나 建設에 관련된 각종 法規와 法則들은 좀 더 나은 都市開發을 만드는 데 있어 制限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 대륙적인 수정이나 새로운 제도의 導入이 필요한 실정임. 新都市는 制度와 基準을 導入, 適用하는 적절한 기회가 될 것임. 특히 過去의 경직되고 僵固적인 基準과 法則에서 彈力한 性能主義 原則에 입각한 기준을 설정하게 됨으로써 制度改善의 시정대가 됨.
- 住宅, 都市政策 側面
  - 大量의 住宅供給이 이루어지면 宅地價格의 급등현상은 다소 진정될 수 있을 것이 예상되며 심각한 住宅의 不足現象을 緩和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土地公販制의 擴大, 投機抑制, 分讓制度의 改善등 새로운 制度나 政策의 改善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임.

## Ⅱ. 新都市의 立地與件과 開發의 課題

### 1. 立地與件

#### ○ 立地與件의 位置

- 서울도심에서 北西방향으로 20 km 반경내에 위치하여 衛星都市로서는



〈도면 1〉 位置圖

-9-

대우 가까운 편임. (부천, 안양, 성남, 하남, 의정부와 함께 市廳을 중심으로 한 동심원상에 위치)

- 行政區域上으로는 고양군 일산을 일대와 고양군 송포면 대대리 일대에 걸쳐 開發指定區域이 지정되어 있음.
- 北으로는 파주군을 거쳐 일산강에 연결되고, 南과 西로는 京江을 사이에 두고 김포군과 마주하며, 東으로는 원당읍, 지5읍, 화전읍 등을 거쳐 서울이 北西에 연결됨.
- 주변의 主要灌溉도는 임진각 (25 km), 광탄점 (35 km), 김포강탈 (12 km)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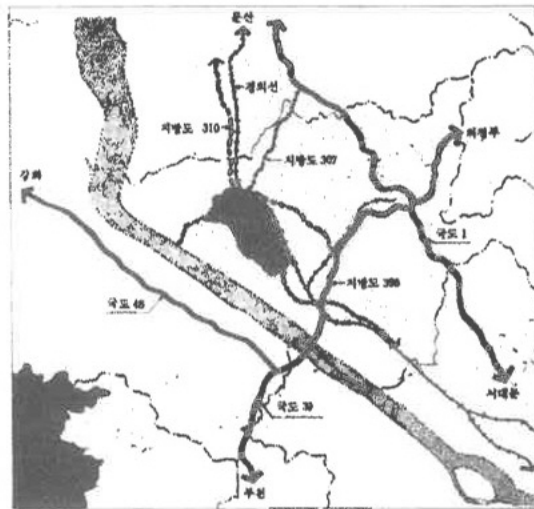
#### ○ 交通

- 경의선 單線鐵道가 該地 北西에 外環을 지나가고 있으며 該지역과 일산역이 計劃指定地와 隣하는 區間에 위치함.
- 旅客線을 차는 예시간 半日씩 運行되고 있으며, 하루 16회 서울 방향 운량이 이루어지고 있음.
- 道路를 통한 計劃指定地로의 진입은 地方道 398, 307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며, 부지밖으로는 國道 39, 48 등을 통해 他都市와 연결됨.

-10-

포함할 것이 예상됨. 따라서 該市の 一山邑을 포함한 市界計劃이 樹立되어야 할 것임.

- 一山新都市周邊에 전담읍과 지도읍이 가까이 위치하며, 특히 지도읍에 대규모 宅地開發事業이 추진되고 있어 一山新都市와 相互交通가 예상됨. 따라서 中小規模의 都市들이 개별적으로 提供할 수 없는 서비스시설들을 공동으로 또는 機能分擔을 통하여 확보하여야함.
- 新都市開發이 완성되면 人口 55萬~40萬의 都市가 되므로 周邊地域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都市의 成長이나 周邊地域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否定的 效果에 對處하기 위하여도 廣域의 開發計劃이 樹立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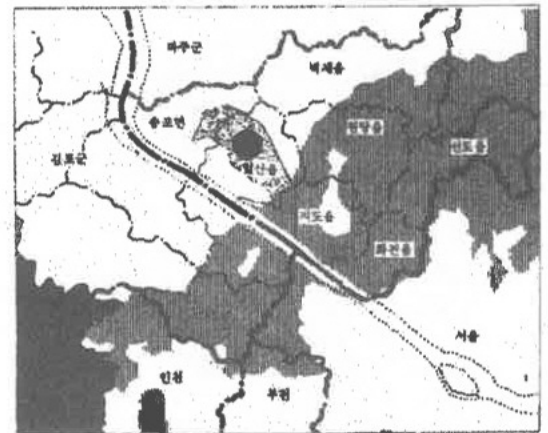
〈도면 2〉 既存道路網圖

### 2. 開發의 課題

#### ○ 廣域의 開發計劃의 樹立

- 一山新都市는 計劃區域과 隣하고 있는 一山邑 市界地와 隣접한 關係를 갖게 되어 市界 넘겨지더라도 行政區域內에 既設 市界地를

-11-



〈도면 3〉 周邊都市 現況圖

-12-

○ 成長考慮

- 一 都市의 人口가 30萬 規模 이상이 되면 자연적으로 成長의 힘을 갖게 된다. 一山新都市는 周邊地帶이 平坦이어서 어느방향으로나 成長이 가능하며, 특히 平坦地帶은 京畿道의 重要한 資源이 豐富하고 있으므로 將來 發展이 京畿道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一 南北間의 交通完善, 交通手段이 이루어지게 되면 京畿道로 都市가 發展할 것이 예상되며 그렇게 될 경우 水尾에 集中되는 서울의 副都門都市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都市開發總案에 있어 發展 發展에 대한 配分이 必要함.

○ 都市 自足機能의 漸出

- 一 一山新都市는 서울 도심과 거리가 가깝고, 設備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移住者들중 서울 도심에 發展을 갖고있는 層口主가 많아 자칫 서울의 베드타운이 될 염려가 큼.
- 一 서울의 베드타운이 될 경우 서울과 交通이 매우 심각해지게 되므로 이같은 發展을 新都市에 移轉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都市自足機能을 漸出하여 高層人口의 移住를 도모하여야 함.

○ 發展의 阻礙

- 一 一山新都市 開發의 目標年度인 1992年까지는 불과 3年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이 기간동안에 高層設施의 建設을 完了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임.
- 一 또한 같은기간 동안 倉庫, 坪村, 山本 등 惡化한 新都市開發이 추진되기 때문에 대량의 住宅이 競爭의으로 市場에 나오게 되어 때로는 여러지역에 未分讓 事態가 發生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都市의 開發은 住宅開發에 맞추어 段階的으로 이루어 나가도록 하여 시간적 여유를 갖고, 計劃開發의 質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함.

IV. 計劃地區 現況

1. 計劃地區와 관련한 上位計劃現況

1) 首都圈 發展計劃

- 一 一山이 포함되어 있는 高層專容 首都圈 發展計劃 중 移轉促進區域에 포함되어 있음.
- 一 移轉促進區域에서는 人口集中開發施設을 다른 區域으로 移轉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施設의 新規開發은 禁止하고 있음.  
 <移轉促進施設> : 工場 (별표 2 업종제외), 學校, 業務用 建築物 (25,000 ㎡이상) 등 人口集中開發施設  
 <新·增設 禁止施設> : 專門大學 이상의 高等教育機關, 公共圖書館 (3,000 ㎡이상) 및 大規模 建築物  
 <首都圈發展 : 容積率, 國家機關 設施의 新增設 (부, 청, 직속기관, 會社 等)로 가능한 1차소속기관 / 90,000 ㎡이상의 倉庫, 保險, 銀行 行爲) 券券 / 國家政策研究施設等 / 展覽用 建築物 40,000 ㎡이하

2) 都市計劃現況

- 都市計劃區域 : 計劃地區內 一山邑 마두리, 백석리의 일부지역이 기존 現行 都市計劃區域에 포함됨.
- 計劃地區周邊 都市計劃 現況 (1988年 現在)

읍	1988년 인구현황	계획면적 (천㎡)	용도지역(천㎡)						개발제한구역
			주거	상업	공업	자연녹지	생산지	농지	
원당읍	52,153	33,707	1,095	98	-	184	-	32,360	
일산읍	35,775	6,970	1,117	130	-	2,263	660	2,800	
지도읍	40,455	26,120	1,355	86	-	7,860	1,719	15,100	
백석읍	24,543	27,190	623	120	-	7,327	20	19,100	

資料 : 高陽郡

○ 都市計劃開發의 計劃現況

- 一 總體計劃現況 : 일산읍 마두리, 백석리의 일대에 4個 노선의 都市計劃道路가 계획되어 있음.

도로구분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대로 3-6	25	6,200	묘당리	마두리
중로 1-5	20	450	백석리 대 3-6	백석리 중 2-5
중로 1-6	20	2,550	마두리 대 3-6	석사리
중로 2-5	15	1,400	백석리 대 3-6	마두리 중 1-6

資料 : 고양군, 원풍도시개발계획, 1984. 1

- 一 施設地 : 경의선철도 兩側에 幅 30m의 施設地 設置

3) 周邊地帶의 開發計劃 現況

○ 宅地開發計劃

- 一 일산, 원당 및 지도읍에 6個 地區의 宅地開發事業이 推進中에 있으며, 이 사업에 의해 약 20萬名의 새로운 人口가 計劃地區 周邊에 居住하게 됨.

〈宅地開發事業 概況〉

지구명	위 치	면 적 (천㎡, 원평)	수용가구수 (가구)	수용인구 (인)	예 정 시 설 자
화정지구	지도읍 화정리일원	2,037 ( 617)	14,500	58,000	토 개 공
농곡지구	지도읍 백신리일원	1,275 ( 386)	12,700	50,800	주택공사
백신지구	지도읍 백신리일원	1,055 ( 320)	14,500	58,000	고 양 군
윤산지구	일산읍 일산6리	230 ( 70)	2,300	9,200	고 양 군
탄현지구	일산읍 탄현리	477 ( 145)	3,000	12,000	고 양 군
성서지구	원당읍 성서리	258 ( 78)	1,500	6,000	고 양 군
계	3개읍 6개지구	5,332 (1,616)	48,500	194,000	

○ 公共施設計劃

- 영주대학교설치와 道路擴張, 配水地工등등 公共施設 建設事業이 周邊 地域에서 추진되고 있음.

〈公共施設 事業概況〉

공공시설사업명	사 업 내 용	공사기간	시 행 자
1. 영주대교 확장공사	폭 14.5m, 연장 1,460m	'87~'90	건설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 지방도 310호 확폭	4차선확폭, 연장 6km	'89~'91	경기도
3. 국도 39호 우회도로공사	4차선확폭, 연장 4km	'89~'91	건설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 배마 배수지 공사	시설규모 1500톤	'88~'89	고양군

2. 計畵地區의 自然概況

○ 地形

- 計畵地區는 대부분이 평坦한 地形이며, 中央에 標高 86.5m의 槓발산이 위치하고, 이로부터 陂池와 畵谷이 주위로 퍼져 있음.

- 陂池畵谷地帶가 약간 높으며 漢江쪽으로는 낮아짐.

○ 養生

- 地區內 낮은 丘陵이 散在되어 있으며 그 위에 樹木이 잘 보편되어 양호한 景觀을 조성함.
- 林畵이 양호한 지역은 대외리 6만평, 槓발산 57만평, 백석리 12만평 등에 分布되어 있음.

○ 水系

- 地形가 낮아 뚜렷한 水系는 형성되지 않으나 대부분의 지역이 논 농사를 위한 畵土로서 水路가 잘 발달되어 있음.
- 洪水時 漢江물이 氾濫하는 常習 浸水地域인.
- 幅 25~30m, 延長 6,100m의 水路에 農業用水가 흐름.

3. 人文概況

○ 人口 및 聚落

- 人口 23,000人, 5,526戶口가 居住하며, 全體 家口중 2,171戶口는 賃入者임.
- 一山邑 백마부락과 후동부락에 畵畵 788戶口, 721戶口가 밀집하여 畵落을 形成.

〈建築物 概況〉

건축물	계	주 택	공 상	공공건물	공동건물	종교시설	기 타
층수(棟)	3,530	3,085	104	51	67	16	207



〈도면 4〉 地區 現況圖

○ 土地利用

- 平田地形에 있는 논과 밭이 전체의 65%이며, 낮은 丘陵地에 위치한 林畵가 21%로서 畵耕地 및 林畵가 전체의 86%를 차지함.

〈土地利用 概況〉

용 도	면 적(만 평)	구 성 비(%)
논	222	48.2
밭	77	16.7
임 아	98	21.3
대 지	17	3.7
도로 및 기타	46	10.1
계	460	100

○ 施設物

- 學 校: 백마역에 인접하여 백마國民學校 1個所가 있음
- 工 場: '89.10.18 현재 등록된 工場은 24個所로서 1,060人이 종사하고 있으며, 無許可 工場은 82개소로서 종업원은 880人 이 됨.
- 其 他: 共同墓地 2個所, 無圖近隣街 3個所, 우유소 1개소, 양수장 1개소 등이 있음

## V. 計劃의 基本方向

### 1. 開發의 目標

#### ○ 快速한 環境

- 新都市는 未來指向的 都市로서 都市의 快速性이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확보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新都市에는 水, 공기의 汚染을 最小化하여야 하며 經濟公營에 대해서도 各별한 對策이 마련되어야 함.
- 新都市에는 住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公園과 綠地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이와 아울러 레저施設, 休息施設이 갖춰져야 할 것임.
- 新都市에는 변화있는 總物의 스카이라인, 建築物의 自然의 調和, 總物의 適正한 配置에 의한 空間의 多樣함이 아름다운 景觀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安全한 都市

- 新都市에는 建築物, 道路, 橋梁, 各種 施設들이 이용자의 안전을 考慮하여 計劃, 設計되어야 하며 都市內에 예기치 않은 事故發生 가능성에 대처하여야 함, 특히 步行者나 老弱者를 保護할 수 있는 總體體系와 시설의 확보가 必須的임.
- 單獨住宅地가 많이 확보되는 一山 新都市에는 隣地나 住宅의 領域性을 분명히 하여 物理的 障礙이 범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특히 公共空間을 확보함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의 감시로부터 벗어난 사각지대가 形成되지 않도록 함.

-21-

#### ○ 計劃人口의 特性 (실문조사 분석결과)

- 家口主의 연령구조로 보아 30세 전후의 "가족형성기"와 지니가 성장한 55세 이상의 "축소기"의 家族比率를 높임.
- 所得階層으로는 中層보다는 약간 낮게 나타나나 低所得層과 高所得層이 비교적 많은 階層化 現象이 나타남.
- 隣近地域 住民의 높은 移住嗜好로 보아 類似한 住民特性을 보일 것임.
- 家口主 직장 소재지는 서울도심, 강남, 여의도 순으로 많이 나타남.
- 單獨住宅嗜好가 他地域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며 獨立住宅 需要도 비교적 높은 반면 高層아파트의 需要는 겨우 낮게 나타남.

### 3. 都市總體의 設定

#### 1) 新都市總體의 基本類型

##### ○ 一般 都市維持總體

- 人口 40萬 都市 유지를 위한 行政機關, 教育機關 및 一般 서비스 總體

##### ○ 計劃的 專導總體

- 都市의 特性開發 및 開發促進을 위한 計劃機關

#### 2) 計劃的 專導總體의 設定方向

- 國際空港, 休閑線, 板門店 등과 가까운 지역적 特色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
- 都市開發을 促進시키고 서울로부터의 移轉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능

-23-

- 京華나 火災에 대처한 消防警備體制, 警備시스템, 방공, 방재체제를 갖 추도록 함.

##### ○ 便利한 施設

- 地下鐵 시스템을 導入하여 地域間 大衆交通을 소화하고 이와 승환이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 交通手段을 확보
- 都市內 幹線道路에 共同溝를 설치하여 道路의 寬은 幅자를 사전에 豫망하고 各種 基礎施設의 管理, 維持를 용이하게 함.
- 開發施設들을 集團化 하여 快速한 開發促進을 達成하고, teleccm Plaza 등 尖端情報 시스템을 導入, 활용케 함으로써 開發의 效率性 提高

### 2. 計劃人口

#### ○ 市價地總 開發密度 比較

구 분	지 구	과 원	목 동	상계동	평 산	분 당	일 인
계곡지구면적 (ha)		230	435	334	510	1,838	1,518
주백지구면적 (ha)		99.8	231	153	219	657	529.5
계곡인구 (인)		54,000	114,500	145,000	170,000	390,000	280,000
계곡세대수 (세대)		13,522	26,600	36,500	42,000	97,500	70,000
총인구밀도 (인/ha)		235	264	437	333	213	184

#### ○ 人口密度 比較를 통한 計劃人口設定

- 田淵都市 성격유지를 위하여 果川보다 낮은 人口密度를 維持 : 약 180인/ha → 약 28만명

-22-

- 集團化 함으로써 都市의 性格을 特性化 시키고, 집적의 이익을 最大化 할 수 있는 範圍
- 首都圈內에 不足하나 장래 國家發展을 위해 確保되어야 하는 기능

### 3) 計劃的 專導의 對象施設

#### ○ 統一發展 開發施設

- 경제 증가될 對外交通을 위한 開發施設
- 平和市 建設이전에 그 機能을 담당하고 건설된 후 相互補充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설

#### ○ 國際會議, 賞品抽籤 및 觀光施設

- 國際空港과 近接한 景을 最大限 활용하여 大規模 國際會議을 辦 放할 수 있는 國際會議場 및 호텔시설
- 大規模 園內, 國際 賞品 抽籤會, 博覽會를 유치할 수 있는 常設 展示施設

- 休閑線, 板門店 觀光을 위한 支援施設

#### ○ 出版 文化施設

- 서울에 산재해 있는 出版開發機關을 移轉시키고 集團化하여 都市의 特性化 園地를 開發함에 있어 필요한 出版業, 인쇄, 유통 등 의 시설

- 圖書館, 博物館 등 出版文化 施設

- 寫眞, 디자인 등 出版과 關聯한 施設

#### ○ 言論施設

- 新聞社, 放送局 등의 言論施設

- 言論에 관련한 開發促進 施設

#### ○ 尖端技術 및 通信情報 供給施設

-24-

- 널리종종라자, 제이종종라자등의 情報網構想
  - 컴퓨터관련 技術開發構想(Software 등)
- 4) 計劃的 區域構想의 政策戰略
- o 供給方法
    - 選者者(實業界 團體)에 限해 供給받을수 있도록 供給對象者의 資格을 合理的으로 制限
    - 供給對象者의 範圍에 關하는 者 가운데 適合度가 높은 順序로 分額申請 또는 入札參加 順位 設定
  - o 政策的 誘導 및 支援
    - 公共機關의 政策的 移轉
    - 각종 稅制優待
    - 필요한 基礎施設의 공급
- 5) 施設類型 例示

시설 유형	시설 예시
o 통일관련업무	南北交際部(對南, 對北) 團體 등
o 국제회의 등	국제회의장, 관공호텔, 연세관, 기타관련시설
o 상품전시장	상설상품전시장, 단련업무시설
o 출판, 문화	출판단지, 관련시설
o 연 락	라디오방송국, 신문사
o 예술관련시설	공연장, 디자인업무단지, 전람회장, 야외전시장
o 첨단기술 등	통신업무시설, 컴퓨터산업 등

3) 區域交通網 構想

- o 江化江通道路의 活用
  - 성안대교-이산로-임진각 간의 19km에 6차선 都市高道道路를 擴張新設
  - 計劃地와는 3條 루트(순환고속도로 포함)를 통해 연결하여 서울進入의 主要 道路로 活用
- o 首都圈 외곽 環狀高道道路 新設
  - 효사리-삼송리-양주대교-고척방으로 되어있는 既存 計劃案을 조정하여 일선의 접근도를 提高
  - 計劃地와는 東南部에서 직접 연결하여 新都市와 環狀高道道路上의 衛星都市들과 연계를 용이하게 함
- o 기타 地域間 道路의 擴張 또는 新設
  - 수계-백석리간 11km를 4차선 도로로 확장하고 서오릉-원당-백마역간 13.5km구간은 4~6차선으로 확장
- o 鐵道
  - 地下鐵 3號線을 연장하여 新都市 中心部를 貫通
  - 상의 輕鐵線路의 複線化, 電氣化를 고려
- o 道路網 計劃表

구분	구간	연장 (km)	계획
도로	① 성안대교-이산로	19.0	6차선 확장 및 신설
	② 수계-원당	11.0	4차선 확장 및 신설
	③ 서오릉-백마	13.5	4~6차선 확장 및 신설
	④ 일산-백구	0.6	4차선 확장
	⑤ 대와리-이산로	2.6	4차선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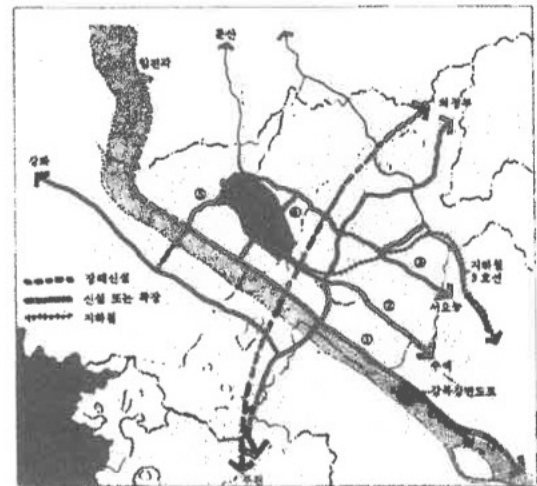
1. 廣域都市交通

1) 周邊交通供況

- o 交通施設
  - 서울로의 연결은 地方道 398號線으로 지도음을 통과하여 수계동 또는 강북강변도로로 연결되는 루트와 地方道 310號線과 鐵道39號線으로 相當음을 통과하여 다시 鐵道 1號線을 통해 구과앞로 연결되는 루트가 있음.
  - 경의선 單軌鐵道가 計劃區域 외곽을 繞行하며 백마역, 일산역을 통해 구역내로 進入할 수 있음.

2) 區域交通計劃의 方向

- o 서울과의 連繫
  - 서울 環狀道路를 3~4개로 分散시켜 서울市內에 미치는 影響을 最小化
  - 서울과의 連繫을 위한 大衆交通 手段으로 鐵道, 地下鐵 擴張開發
- o 周邊都市와의 關係
  - 직접영향권은 물론 부천, 인천, 안양, 의정부 등 衛星都市를 잇는 區域交通體系를 構築
  - 관상축 및 他 衛星都市와의 連繫 軸을 改善하여 衛星都市間에 圓滑 分佈 및 相互補充



(도면 5) 廣域交通 計劃圖

2. 都市圈內의 基本構想

- o 都市生活圈의 分化와 進展
  - 경남산의 프린트로 인한 生活圈의 層分
  - 지하철로 層分된 生活圈을 연결
- o 都市圈의 形成
  - 地下鐵을 軸과 環狀道路를 軸으로 하여 基本 軸으로 形

- 일산역과 백마역으로 부터 基本軸에 垂直으로 연결되는 生活圈 중심을 형성
- 청발산과 漢江을 연결하는 郡心軸 形成
- 主要機關의 配置
  - 新都市의 中心部인 清發산 서측, 2圈의 생활권 사이에 도심을 배치
  - 大規模 都市施設, 郡城施設, 他都市 郡府施設 등을 北西部, 南東部 약단에 배치
- 成長을 고려한 街路계획
  - 基本軸, 中心軸 등과 평행한 格子型 街路網 패턴을 調整
  - 漢江邊으로 용이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街路網 패턴을 구성

3. 生活圈 形成

- 廣域生活圈
  - 一山 新都市, 기존 일산읍, 지도읍, 원당읍, 백서 등 서울의 西北部까지를 포괄하는 廣域生活圈을 구성
  - 廣域生活圈의 필요시설을 도시별로 배분하되 一山이 中心이 되도록 주기능 부여
  - 一山 新都市가 있는 廣域生活圈 施設: 綜合運動場, 쇼빙센터, 유원지 여가터미널, 農水產物 流通基地, 綜合病院, 기타 屬屬出願地(出願地 地 등)
- 地域生活圈
  - 一山邑과 新都市를 합하여 大生活圈을 구성
  - 一山邑과 清發산을 사이에 두고 兩分兩 2個의 生活圈을 각각 中

- 生活圈으로 하고 자기 中心商業地域을 都會周邊에 배치
- 小生活圈 또는 近隣生活圈은 중구획, 학교등의 배치에 따라 細分化 (15개정도)



〈도면 6〉 生活圈 區分圖

4. 土地利用

- 住居地域
  - 兩大生活圈 中心部에 고밀도 아파트區地를 배치하고, 외곽부부 주변 시 저밀도의 單獨住宅區地 배치
  - 單獨立宅區地를 單獨住宅 區地內的 幹線道路邊에 배치하여 單獨住宅 地를 보호

- 中心業務 商業地域
  - 郡市 基本軸道路邊에 行政業務機關을 배치
  - 計劃的 郡政機關中 도심부 배치가 적합한 會議機關, 郡政業務機關 등을 도심 외곽에 배치
  - 쇼빙센터, 觀光호텔 등을 湖水公園 平和公園邊에 배치
  - 서비스기능을 내부에 배치하여 業務機能을 지원
- 其他 商業地域
  - 電磁碑舍의 郡勢圈에 地區中心 商業地域을 배치
  - 무프형 集分散道路邊에 戒指近隣商業地域을 배치
  - 住居區地 입구에 近隣센터 배치
  - 郡市 東南部 외곽에 近隣商業地域을 지정하여 郡市型 公업을 유치 또는 입주
- 郡市區域施設
  - 유원지, 綜合公園, 綜合運動場施設 등을 北西部 지역간 道路外側에 배치
  - 出展區地, 旅客터미널, 기타 서울로부터의 誘致機關을 南東部 郡市邊 入區에 배치
  - 綜合實品展示場, 國際會議場, 호텔 등을 湖水公園 平和公園과 연계시켜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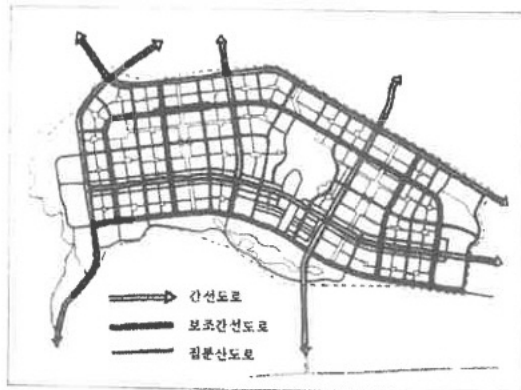
出展區地, 旅客터미널, 기타 서울로부터의 誘致機關을 南東部 郡市邊 入區에 배치

5. 郡市內 交通計劃

- 郡市進入
  - 新都市의 進入은 8個의 도로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 중에서 漢江邊 高規格道路와 郡心을 연결하는 접근로가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갖

게 함.

- 既存의 一山邑으로부터는 一山驛 서우 2 湖道路를 통해 접근되며 지도읍으로 부터는 東南쪽 幹線道路를 통해 진입가능
- 既存의 경희선철도 이외에도 서울地下鐵 3號線의 연장이 지도읍을 통하여 도시 東南쪽으로 地下化되어 연결
- 街路網 構造
  - 地下鐵 路線을 따라 郡市를 종단하는 中央幹線道路를 중심 서비스 축으로 하고 左右로 補助道路를 설치
  - 郡市를 環繞하는 무프형의 集分散道路를 설치
  - 鐵道邊, 湖水公園邊 등에 郡市外環道路를 설치



〈도면 7〉 交通網圖

- 都市를 整頓하는 主幹線道路, 次要道路, 集分線道路 등과 相連하는 中央公園으로 格차형 綠地를 구성
- 불러내부의 街路網
  - 單層住宅區地 內部는 步車專用道路를 主幹 형태로 設치 圖地가 小 경우에는 圖地의 相連 또는 整頓하는 12~15m의 步車 分線道路 를 設치
  - 中心商業地塊의 내부 街路網은 中陸이상의 道路를 원칙으로 設치 單 순히 서비스만을 위한 道路의 경우에는 步車專用의 小路를 設치
- 地下鐵
  - 地下鐵 路線은 이용편을 고려하여 都市를 相連하도록 設치
  - 步行者의 이용거리를 고려하여 5 條의 路線을 安排하고 路線마다 駐 車場과 버스정류장 등 승환시설을 設치

6. 公園·綠地體系

- 整頓상의 保全
  - 유일한 山地로서 都市景觀에 立脚性과 方向性을 제공
  - 整頓상을 중심으로 주변의 綠地公園, 近郊公園, 어린이公園, 湖水公園 平和公園 등과 연결
  - 中央公園으로서 施設을 배치하고 管理
- 都市를 整頓하는 綠地網 형성
  - 整頓상, 도심, 湖水公園과 都市外郭의 自然 綠地軸을 연결하는 中心 綠地軸을 형성
  - 2 條의 生活圈 中心을 각각 整頓하며 副線과 地下鐵線을 연결하

- 近郊公園軸을 형성
- 洪水時를 대비한 鐵道水路를 구성 綠地空間으로 활용
  - 沃土를 보전하고 湖水地로서의 空間을 확보
- 南西側에 湖水地塊 湖水公園 平和公園을 개발
  - 既存水路를 이용하여 湖江들을 공급
  - 湖江方向 都市成長에 대비하여 堤防의 湖心部 대형 綠地帶을 구성



<도면 8> 公園綠地 體系圖

- 施設綠地의 設치
  - 幹線道路邊에 10~15m 幅의 施設綠地를 設치하여 住居地 소용을 감 소시키고 道路의 綠地를 寬闊하게 함.
  - 鐵道邊에 50m 幅의 施設綠地를 設치하여 鐵道設施을 부여

- 鐵道
  - 또한 地下鐵線, 鐵道施設, 學校, 公園등과 연결
  - 車場과 立體的으로 分線된 完善的 鐵道網 구성
  - 자전거道路, 步行者를 위한 散策路 등을 수용

7. 住宅開發 概要

- 基本方向
  - 田園的인 都市性格의 부각을 위하여 여러 新都市보다 低層度 住居 地를 확대 공급
  - 이과지 用地的 高度化를 지양하고 容積率을 하향조정
  - 住居地內 步車施設, 綠地空間등을 확보하여 快適한 住居空間을 마련
- 住宅開發別 面積配分
  - 全額 住宅用地的 25%를 單層住宅用지로 확보하고 나머지 75%는 共同住宅 用지로 사용
  - 全額 住宅用地的 約 11%를 聯立住宅用지로 지정하여 單層住宅과 高 層아파트 사이에서 市라적 開發地帶으로서의 효과를 추구
  - 全額 住宅用地的 64%를 아파트用지로 하고 아파트用地的 平均容 積率을 165%정도로 하여 適正密度를 유지
  - 아파트 用지는 低層(6層이하), 高層(7층~15층), 超高層(16층이 상)의 유형을 고루 배분
- 開發別 戶數配分
  - 單層住宅 戶數는 綠地당 住居面積標準을 60~70坪으로 할 때 約 6,100戶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중 移住地用地 約 1,500 筆地를

- 계획하고 2,600筆地 정도를 일반에 분양
- 聯立住宅은 平均容積率 約 90%, 平均 住宅規模 約 30坪( 底層用 地 20坪, 中層層用 50坪基準 70:30 배분)
- 아파트의 경우 전체 容積率을 165% 平均 住宅規模를 約 30坪 (분양면적)으로 가정하면 58,200호 정도가 수용됨.
- 單層住宅戶數: 6,100戶
- 聯立住宅戶數: 5,700戶
- 아 파 트: 58,200戶

計 70,000戶+買入者(約5,000世帯 추정)

全體計劃人口: 70,000世帯×4人/世帯=280,000人

(買入者 포함한 最大受容人口: 30萬人)

(住宅開發別 面積 密度, 世帯數)

住宅用途	면적 (만평)	용적률 (%)	수용세대수 (세대)	인구수 (인)	비고
계	160.4	-	70,000	280,000	순인구밀도 592인/ha
APT	소계	102.5	58,200	232,800	688인/ha
	입대	15.3	11,600	46,400	920인/ha
	국민	39.2	23,400	93,600	723인/ha
분양	48	180	23,200	92,800	585인/ha
연립주택	18.2	90	5,700	22,800	379인/ha
단독주택	39.7	-	6,100	24,400	186인/ha

- 住宅用率: 總 對象地面積의 35%
- 共同住宅의 平均住宅規模(分層別標準): 30坪/世帯



8. 主要施設物の 記號

○ 基盤施設

- 共同路 歩道로 幹線道路邊 電柱와 電線을 제거
- 地域環境, 熱併合發電所 등을 설치하여 都市全體의 環境을 제고

○ 其他公共施設

- 綜合運動場은 地域條件을 고려하여 北西部에 배치하고 메인스타디움, 野球場, 體育館, 水泳場 등을 綜合 수용하여 周邊 商業都市와 함께 사용도록 하며 全島運轉의 體育大會를 誘致할 수 있도록 함.
- 江邊道路에서의 認知性, 親近性이 높은 廊心에 대형 쇼빙겐타를 誘致 開發하여 舊都市 北西部의 地域성태로서의 역할을 담당함.
- 綜合運動場과 인접한 綠地를 活用하여 大規模 商業施設을 개발하여 都市의 매력을 높임.
- 海水産物 流通선라는 都市北端에 배치하여 重要한 貨物交通이 都市를 贯通하지 않도록 함.
- 廊心과 정발산이 만나는 곳에 文化的 設備과 公衆施設등을 배치하여 市民들의 모임이나 행사할 가능케 하고 廊心軸 綠地를 통하여 海水公園과 연계시킴.
- 廊心部, 近隣生活 中心地, 電氣驛舍 주변에는 충분한 .公衆駐車場을 確保하여 駐車困難을 사전에 예방함.
- 인근 高速道路, 周邊都市의 접근을 고려 乘用버스나 터미널을 都市 南東部 電氣驛 주변에 배치함.



綜合開發 構想圖

V. 計劃의 執行

1. 段階別 開發

○ 開發 段階의 區分

- 新都市開發工事は 크게 基盤施設工事業 建築工事業로 나뉘어지며 개발 단계도 각각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基盤施設은 1992년까지 完了하도록 決定 開發되어 추진중에 있으나 사업추진 일정상 다소 조정이 예상됨.
- 建築工事業는 基盤施設工事業와 더불어 시작할 수 있으나 완료는 土地 需要, 住宅需要에 따라 목표년도보다 훨씬 늦어질 수 있음.

○ 段階別 開發計劃

	1990	1991	1992	1993	1994
기	설계 / 발주				
간		1 단계 사업지구	2 단계 사업지구		
시			3 단계 사업지구		
설			1 단계 사업지구		
계		도시설계	2 단계 사업지구		
후				3 단계 이후	

2. 執行策略

○ 都市設計의 推進

- 선원적 도시경관의 유지와 環境水準의 제고를 위해 都市設計를 작성
- 民間部門과 公共部門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 마련
- 民間부문에 대하여는 分讓시 도시설계 지침에 따르는 조건부로 분양

○ 開發促進 方案

- 住民入居를 吸引하기 위해서는 住居生活에 필요한 각종 公共 便益 施設을 入住와 동시에 利用可能토록 積極적 配慮
- 業務施設의 早期建設을 위한 특별지원책 마련 (住居用 開發과 연계 등)
- 交通施設, 娯興, 電話 등 수요자들이 관심을 갖는 시설이나 設備의 조성 또는 개선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추진위원회  
고문 추대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출판계 및 관련산업계의 원로 및 선배님들의 끝없는 성원과 가르침에 힘입어 그 결실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출판문화산업단지의 필요성을 느끼고 몇몇에 의해 이와같은 일이 나온 지 이제 불과 6개월이 지났지만 업계의 참여와 호응은 완전히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까지 참여한 업체수는 1백 60개사가 넘었고 지금까지 모아진 추진 기금만도 14억원이던 엄청난 액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응도는 저희 업계의 여러 원로 선배님들의 격려의 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이와같은 적극적이고 단호한 의지는 문화계 전반에 걸쳐 커다란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당국이나 국토개발원, 토지개발공사 등에서도 기정사실로 입안하는 단계에 이르러 있을 정도로 그 성과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기보다는 앞으로 남은 과제가 더 많은 것이 그 실정입니다. 저희들의 꿈이자 원대한 계획인 이 사업이 완성되기까지는 5년, 아니 10년 이상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우리들의 출판도시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이 국토 안에서 그 어디에 출판도시가 자리를 잡더라도 저희들은 백년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자책만으로는 잘못 실수를 하지 않을까 혹은 일을 그르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 몇몇 분을 고문으로 모시고 계속적인 지도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부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주시고 저희들에게 뜻과 지혜를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11월 28일 저희 실행위원회에서 고문으로 모시기로 한 분들은 다음의 열한 분임을 알려 드립니다.

경진숙(울유문화사)	이종익(신구문화사)
최원식(한국교육출판사)	김원대(계몽사)
한만년(일조각)	김광수(대한교과서)
양철우(교회사)	유익형(범문사)
민영빈(시사영어사)	권병일(지학사)
임인규(동화출판공사)	— 연세순

1989년 12월 5일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추진위원회

1989년 12월 11일 오후7시 선천 음식점에서 열린  
고문회의에서 출판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원로분들이  
적극 협조하여 꼭 이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신  
이종익 고문께서는 1990년 1월4일 불의의  
사고로 별세하셨다.

자료 ⑩

제 목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추진 현황

작성자 추진위원회

작성일 90. 1. 15.

배 경 문화부장관, 국회 문공위원장 및  
위원 등 관계기관에 브리핑하기 위하여  
'테이블 차트'화한 추진 현황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  
추진 현황**  
 (1990년 1월 15일)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추진위원회

목 차

1. 사업추진 경위
2. 건설목적
3. 출판문화산업의 현황
4. 단지조성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5. 사업추진 계획
6. 국토개발연구원의 일산신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한 대응방안
7. 일산 출판문화 산업단지 건설계획안
8. 여주자의 주택공급 계획
9. 사업추진의 당면과제
10. 결론 및 건의

- 1 -

1. 사업추진 경위

- 1988년 1월 출판계에서 대단위 출판단지의 필요성 논의, 소규모 도입으로 검토착수
- 1988년 9-10월 출판인 10여명이 여주군, 이천군, 용인군, 의정부, 안양 일원을 답사
- 1989년 1월 1백만평 규모 출판도시 추진을 위한 등산모임 시국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에 따라 연세방안 검토
- 1989년 6월 14일 출판문화 산업단지 건설계획 시안 작성
- 1989년 6월 20일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준비추진위원회 구성 (대한 출판문화협회 회장 외 11인)
- 1989년 7월 5일 건설부·문공부·국토개발연구원 등 신도시건설 관련 정부기관에 사업의 필요성 개진
- 1989년 7월 19일 제 1차 심도지엄 개최 (산업계·학계·언론계·도시계획 전문가 등 다수 참석)
- 1989년 8월 1일 인쇄·3E산업계 대표를 포함 추진위원 23명으로 보강
- 1989년 8월 18일 출판·인쇄·제본 및 관련업체를 위한 설명회 개최
- 1989년 9월 5일 건설추진위원회 발기인대회 (110개사 참석)  
실행위원회 및 전문분과위원회 구성
- 1989년 10월 16일 서울시 인쇄공업협동조합, 출판단지 건설에 적극 참여필의

- 2 -

- 1989년 11월 15일 출판도시뉴스 발간
- 1989년 11월 17일 고양군출판, 기득권과 건달의 개혁
- 1989년 12월 7일 출판문화산업단지 조성부처 필요요청 용문을 건설부 및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제출
- 1989년 12월 11일 고양군출판 위한 도시기증 (4,000여부)
- 1989년 12월 14일 추진위원회 프랑스 정부 초청으로 프랑스 출판계 시찰
- 1989년 12월 여원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부지요청에 대한 회신 접수
- 1990년 1월 13일 현대 출판 및 관련업체 220개사에서 참여 승락 (출판사 179개사, 인쇄소 20개사, 제본 10개사, 서점사 8개사, 디자인 5개사, 사진사 6개사, 라이더이팅 2개사)

## 2. 건 설 목 적

- 가. 출판문화산업의 총체적 발전
  - 출판산업의 효율성 제고
  - 출판산업의 현대화 및 과학화
  - 출판산업 종사자들의 복지 향상
- 나. 국가 사회적 측면에서의 균형적 발전
  - 고도 경제성장 정책으로 낙후된 문화산업의 육성발전
  - 민족문화·세계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

## 3. 출판문화산업의 현황

- 가. 산업의 특성
  - 기획·편집·제작·유통 등으로 구성된 도시형 복합산업
  - 지식·정보·정서 개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문화산업
  - 대표적 중소기업군으로 높은 고용창출 효과
- 나. 산업의 현황
  - 도서발행 종수 면에서 세계 10대 출판국으로 성장
  - 서울지역에 전국판권업체의 75% 집중
  - 출판량의 측면에서 서울집중률은 95%에 이함
- 다. 산업의 전망
  -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증대로 국내수요증대
  - 출판 제작 기술의 향상으로 수출산업으로 성장 가능

## 4. 단지조성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가. 출판산업의 문제점
  - 도심정황에 따른 외부 불경제 유발
    - 부적격 시설의 도심침투로 교통난 가중 및 고도도시 여용 저해
    - 고지가 지면 업지로 경제력 부담 가중, 산업의 현대화에 차질된 시설 영세성에 따른 산업경쟁력 약화
  - 관련 업체간 계열화 미비로 산업생산성 저하
  - 국가의 산업 및 공간계획정책에서 소외
- 나. 단지조성의 방향
  - 성도시의 일점구역을 '출판문화산업단지'로 용도를 특화
  - 합리적 계획 아래 출판·인쇄·제본 유통 등의 산업기능과 출판문화산업센터 및 도서관 등 지원 기능, 기숙사·체육관 등 후생복지시설을 갖춘 문화산업 콤플렉스 건설
- 다. 기대효과
  - 출판문화산업의 선진화 촉진으로 민족문화 창달 촉진
  - 문화기능의 성도시 건설로 도서 독점 부어, 자금자극 도모
  - 경제기반 강화
  - 이전 적지의 활용으로 서울의 도시정비 및 교통난 완화 계획추진

## 5. 사업추진 계획

### 가. 기본방향

- 추진주체로 '출판문화산업단지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사업주도 ('89.9.5 결성)
- 건설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전과정에 걸쳐 정부 관련기관과의 협의, 조정으로 선도시 건설사업과의 정합성 확보 및 사업의 공약성 보장

### 나. 추진방법

#### · 토지공급

- 선도시 개발계획에 의거, 토지개발공사에서 용지 개발후 추진위에 일괄분양

#### · 건설 및 처분

- 도시설계에 의거하여 추진위가 참여업체에 필지별로 공급하고 추진위 및 정부유관기관 감독하에 참여업체별로 건설
- 복지시설·공공시설·단지내 기반시설은 추진위에서 건설

#### · 관리 운영

- 추진위를 상설 기구화하여 건설후 공동시설의 관리운영 담당

- 7 -

## 6. 국토개발연구원의 일산선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한 대응방안

### 가. 국토개발연구원의 기본계획안

추진위의 요구면적 155,000평

국토개발연구원의 계획면적 60,000평

- 일산선도시 기본계획도 참조

### 나. 추진위의 대응방안

국토개발연구원의 계획면적을 제1차 단지로 수용

부족 면적에 대한 제2차 단지 계획을 추후 수립

- 8 -

## 7. 일산출판문화 산업단지 건설계획안

### 가. 업무시설

부지 - 40,000평

(총 60,000평중 도로및 공공용지 20,000평 제외)

건폐율 - 50%

연건평 - 200,000평 (지하-지상 평균 10층 규모)

토지매입비 - 420억원 (평당 70만원)

건축비 - 2400억원 (평당 120만원)

자금계획 - 전액 자체자금으로 조달

### 나. 출판산업 중추시설

#### 1) 출판문화센터

복합문화회관으로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금고, 출판연구소, 출판산업정보센터, 출판인클럽, 회의장, 비즈니스 호텔 등

(대지 4,000평, 연건평 20,000평, 소요자금 428억원)

자금계획 - 기존재산처분, 부족분은 공역자금 등으로 충당

- 9 -

#### 2) 대형유통기구

첨단화된 시설의 대형유통기구를 설립, 단지의 중추기능으로 삼음으로써 출판 및 관련업체의 적극 유인효과와 함께 단지 건설과 동시에 유통의 현대화를 기한다

(대지 2,000평, 연건평 10,000평, 소요자금 134억원)

자금계획 - 출판 및 유통업체 공동 출자

#### 다. 공역시설 (공원내에 위치)

##### 1) 도서 및 문화관련 전시장

국제규모의 도서전시회를 비롯, 각종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상설 전시장을 개설한다.

(연건평 10,000평, 소요자금 200억원)

##### 2) 도서관

(연건평 3,000평, 소요자금 60억원)

##### 3) 출판 및 인쇄 박물관

(연건평 2,000평, 소요자금 40억원)

#### 라. 제2차 출판단지 구상

일산의 출판문화산업단지의 경우 도심 밀집 지역으로

대형 공장, 창고의 입지는 불가하므로 이곳으로부터

4-8킬로미터 거리의 국유지 불라 등으로 부지를 확보,

인쇄·저본 등 생산공장 및 창고 단지를 조성한다.

(예상면적 : 약 30만평)

- 10 -



	업무시월	중추기농시월		공 의 시 월		
		출판문화산업	대량유통가구	전시장	도서관	박물관
부지면적	40,000평	4,000평	2,000평			
연건평	300,000평	20,000평	10,000평	10,000평	3,000평	2,000평
단지 대면적	430억원	28억원	14억원			
건축비	2400억원	400억원	120억원	200억원	60억원	40억원
계	2820억원	428억원	134억원	"	"	"
비고	건축자금	개발자금 공익자금	건축자금	공익자금	공익자금	공익자금

9. 사업 추진의 당면과제

- 가. 추진기금 150억원 확보 (90명도 후반)  
월과일금 - 1억여원
- 나. 추진위 사무국 대폭확장  
전문위원 구성, 자문위원회 구성
- 다. 참여업체별 소요면적, 건설규모, 자금계획 파악
- 라. 단지 건설 마스터 플랜 수립 및 도시설계 착수  
간원부의 일산 신도시 개발 계획안 확정후 즉시 착수  
(그림말 작성예정. 확정 전에 부지면적 확대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
- 마. 자금계획수립
- 바. 제2단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작업

8. 이주자의 주택공급 계획

가. 주택공급의 필요성

출판문화산업단지의 이전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주근접이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이전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주택공급이 반드시 뒤따라야함

나. 주택소요추정

구 분	소요 (세대)
독신 중입원 숙소	3,000
사원 임대 아파트	2,000
사원 분양 아파트	2,000

다. 공급방안

- 독신 중입원 숙소는 산업단지 내에 추진위가 자체 건설
- 사원 임대아파트는 출판문화산업 종사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분양 아파트의 일부는 공공주택 공급분 중에서 개별  
분양을 받도록 유도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조항을 결성하여 민간건설부기내에서 건설토록 조치.

10. 결 론 및 건 의

- 출판문화산업은 민족문화정당을 위한 핵심적 산업으로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출판산업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급격한 기능선장이 요청되는 대표적 도시형 중소기업이나,  
서울 도심부에 분산 집중되어 있어 산업성장에 구조적  
제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집중, 교통혼잡,  
토지이용부절 등 각종 도시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 따라서 구체적인 문화기능을 신도시에 유치함으로써  
도시의 특성과 이미지를 부각하고 신도시의 경제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으며, 부궤적 시설의 대폭 이전으로  
수도권 인구 및 산업재배치의 효과를 기함과 동시에  
도심환경정비의 기회가 창출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어  
사회, 경제, 문화, 지역 계획 등 다방면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
- 일산 신도시 건설 계획에 포함하여 출판문화산업단지를  
도시의 중요 기능으로 조성할 것을 건의하며,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전론 희망하는 출판문화산업분야업체들로 구성된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추진위원회에 소요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사업촉진을 위한 재반 금융및 세제상의 지원조치를 강구하고 단지건설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당 산업종사자를 위한 주택공급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하며, 특히 90년대를 맞아하면서 발족된 문화부는 한국의 새로운 문화 비전을 제시하면서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의 사회적·공공적 의미를 강조하여 주실 것과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이 사업을 성취시킴으로써 외세가를 광란 한국출판문화산업 혁명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함



희사명 :  
성명 :

상가 본인은 1990년 월 일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추진위원회에 가입하며,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건설에서의 모든 사항은 관계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만 추진결정될 것임을 충분히 이해하며, 추진위원들간의 상이한 의견이 발생시에는 실행위원회의 의견에 충실히 따를 것임을 서약합니다.

1990년 월 일

주소 :  
성명 :

인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추진위원회 위원장 귀하

###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추진위원회 규정집

#### 규정집

##### 제1조 (명칭)

본 회의는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추진위원회'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 회의는 우리나라 출판문화산업의 융성적 발전을 위한 출판문화산업단지를 건설하여 지식과 정보의 시대에 소용한 인력문화의 진흥을 제고하고, 학문과 예술, 교육과 과학 산업의 핵심 제재인 도서의 생산에 종사하는 출판, 인쇄, 재본, 기타 출판산업을 국가차외적 차원에서 발전 육성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 제3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출판문화단지 건설 및 관리
2. 출판물 유통기구 설립
3. 출판문화산업 현대화 추진
4. 기타 출판문화산업 향상을 위한 제반사업

##### 제4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출판업과 이에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추후집계에 종사하는 자 또는 본 실행위원회에서 자격을 인정할 자로 한다.

##### 제5조 (가입)

본 회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식을 갖추고 일정 추진기금을 납입한 후 실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 (의무)

회원은 출판문화산업의 급속한 성장을 위하여 열심정신에 입각하여 출판문화산업단지의 건설 및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제7조 (조직)

본 회의는 총회, 실행위원회, 본부위원회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학간협의 의문 및 과제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8조 (총회)

1. 총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1회 개최하고 정기총회, 임시총회, 실행위원회, 본부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총회를 요구할 때는 이를 소집한다.

##### 제9조 (장원)

총회, 실행위원회, 본부위원회는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지고 총회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구성한다.

##### 제10조 (임원)

본 회의 임원은 위원장 1인, 실행위원 25인 이내, 감사 2인으로 한다.

##### 제11조 (위원장)

위원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후고시 학부대학을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실행위원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 제12조 (실행위원회)

실행위원회는 총회의 결의와 규정에 따라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결정한다.

##### 제13조 (감사)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업무 상황을 감사하여 실행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 (사무국)

본 회의는 사무국을 두고 학간협의 직원을 둘 수 있다.

#### 부칙

1. 1989년 9월 5일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추진위원회 발기인대회의 취원에 따라 이 규정은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광명총회까지 적용되어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2. 이 규정 회의 사항은 일관반대에 따른다.
3. 본 규정안은 1989년 11월 28일 실행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기금의 관리 및 운용

1. 본 회의 추진기금은 위원장의 책임하에 운영에 제약하고 추진비용은 예산금의 과실 및 할증금으로 충당한다.
2. 기금의 운영에따라 사용인감은 위원장의 지인 및 재정문화위원장의 인장을 필수 제출 사용하도록 한다.
3. 감사는 매월 1회씩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실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인장규정

1. 추진위원장의 직인은 추진위원장이 보관 사용하여야 한다.
2. 추진위원장의 직인은 사용기부부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자료 ⑩**

**제 목**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을 위한  
설문조사  
-(제1차)-

**작성자** 추진위원회

**작성일** 90. 2. 7.

**배 경** 단지건설 계획의 구체적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기금을  
납입한 170개 회원사에 우송된  
제1차 설문조사서.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을 위한 설문조사**  
(제1차)

안녕하십니까?

우리 출판 및 출판관련업계가 위대한 책의 시대를 창조하는 목표로 출발한 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추진이 그간 추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정부의 입산 신도시 계획안에 6만여 평의 출판단지 부지가 포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추진위원회에서는 출판문화산업단지를 향후 수백년간의 발전을 담보하는 데 손색이 없는 이상적인 출판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예비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 그를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나가기로 하고, 그 작업의 일환으로 다음의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단지는 신도시 내의 업무지역에 입지하게 될 예정이며 업무지역에서는 고층빌딩의 건축이 장려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설문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는 출판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의 기초자료로만 이용될 것이며, 개인 또는 회사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므로, 사실과 성실에 입각하여 기재해 주셔서 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추진이 보다 원활하게 이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설문조사에는 기금을 납부하신 회원사만 참여하게 되어 있으나 한분도 빠짐없이 회원(대표자)께서 직접 자세히 기재하여 본 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추진위원회 사무국으로 급히 우송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송처: 121-210 서울 마포구 서교동 372-9번지

\*마감일: 2월 15일

\*문의전화: 334-7240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 기 용



●업체명( )  
●대표자( )  
●장업일자(등록)( 년 월 일)

8. 현재의 사업장 면적:

- (가) 사무용 평
- (나) 창고 평
- (다) 공장 평
- (라) 기타 평

9. 현재 사업장이 들어 있는 건물은 자가 소유입니까, 아니면 임대입니까?

임대의 경우 임대면적 \_\_\_\_\_ 평, 보증금(전세금) \_\_\_\_\_ 원, 월임대료 \_\_\_\_\_ 원

10. 현재의 사업장 면적에 대하여(○표)

- (가) \_\_\_\_\_ 너무 비좁아 업무에 지장이 많다.
- (나) \_\_\_\_\_ 협소한 편이지만 별 지장은 없다.
- (다) \_\_\_\_\_ 현재는 적당하지만 앞으로는 협소할 것 같다.
- (라) \_\_\_\_\_ 충분하다.

11. 협소하다고 느끼는 경우(○표)

- (가) \_\_\_\_\_ 이전, 혹은 확장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 (나) \_\_\_\_\_ 임대료의 과중한 부담 때문에 이전, 혹은 확장업무를 내지 못하고 있다.
- (다) \_\_\_\_\_ 적당한 건물을 구하기가 어렵다.
- (라) \_\_\_\_\_ 영입의 특수성상 이전이 불가하여 그대로 놓려 있을 수밖에 없다.

12. 출판문화산업단지 참여 이유(순위)

- (가) \_\_\_\_\_ 좀더 넓은 업무공간이 필요하므로
- (나) \_\_\_\_\_ 출판사 및 관련시설이 한곳에 모임으로써 업무상 편리하고 정보 교환이 용이하기 때문에
- (다) \_\_\_\_\_ 자가 소유 건물을 가짐으로써 이사다니는 불편을 덜기 위하여
- (라) \_\_\_\_\_ 서울의 교통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 (마) \_\_\_\_\_ 사원들의 복지화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하여

- 1. 소재지
  - (가) 본사:
  - (나) 창고:
  - (다) 공장:
  - (라) 기타:
- 2. 종업원수:
- 3. 현재까지의 총 도시발행중수(해당업체):
- 4. 1989년도의 도시발행중수(신간, 해당업체):
- 5. 기계설비 및 시설현황(해당업체):
- 6. 차량보유 현황:
  - (가) 승용차 대
  - (나) 승합버스 대
  - (다) 화물차 대
- 7. 창업이후 사업장 이전: 총 회

13. 출판문화산업단지에 들어갈 때 원하는 건물의 형태는

- (가) \_\_\_\_\_ 단독 건물
- (나) \_\_\_\_\_ 2-5개사 정도의 합동 건물
- (다) \_\_\_\_\_ 오피스텔의 복합건물의 일정면적 분양
- (라) \_\_\_\_\_ 어떤 형태든 좋다.

14. 단독 건물을 원하는 경우 적절한 규모는

- (가) 대지면적 \_\_\_\_\_ 평
- (나) 건물면적 \_\_\_\_\_ 평

15. 합동건물 또는 오피스텔식 건물을 원하는 경우

건물면적 \_\_\_\_\_ 평

16. 귀하가 생각하는 대지의 평당 부가가격은 얼마면 적절하다고 예상하십니까?

평당 \_\_\_\_\_ 원

17. 대지분양과 건축에 관련하여 추진위원회에 건의하고 싶은 의견은?

\_\_\_\_\_

\_\_\_\_\_

\_\_\_\_\_

\_\_\_\_\_

18. 공동공고를 건설한다면 이용하시겠습니까?

- (가) 이용한다.
- (나) 이용 않는다.

19. 공동공고를 이용한다면 필요한 단체는? \_\_\_\_\_ 평

- (4) \_\_\_\_\_ 대한제본공업협동조합
- (5) \_\_\_\_\_ 대한출판문화협회
- (6) \_\_\_\_\_ 공공도서관
- (7) \_\_\_\_\_ 전국서적상조항연합회
- (8) \_\_\_\_\_ 출판인쇄박물관
- (9) \_\_\_\_\_ 출판인쇄예술학교
- (10) \_\_\_\_\_ 한국도서관협회
- (11) \_\_\_\_\_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12) \_\_\_\_\_ 한국잡지협회
- (13) \_\_\_\_\_ 한국출판금고
- (14) \_\_\_\_\_ 한국출판연구소
- (15) \_\_\_\_\_ 한국출판학회
- (16) \_\_\_\_\_ 한국출판협동조합
- (17) \_\_\_\_\_
- (18) \_\_\_\_\_

26. 추진위원회에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20. 출판문화산업단지가 건설될 경우, 현대화된 출판물 유통기구는? (O표)

- (가) \_\_\_\_\_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
- (나) \_\_\_\_\_ 좋은 기회이므로 가능하다면 만드는 것이 좋다.
- (다) \_\_\_\_\_ 단지 건설과는 별개의 문제다.
- (라) \_\_\_\_\_ 관심없다.

21. 일산의 신도시는 유쾌없는 전원도시로 개발될 것이라고 합니다. 출판문화산업단지가 이곳에 완성된다면 귀하(대표자)의 주거도 일산으로 옮기겠습니까?

- (가) \_\_\_\_\_ 옮기겠다.
- (나) \_\_\_\_\_ 옮기지 않겠다.

22. 귀하가 거주지를 옮긴다면? (O표)

- (가) \_\_\_\_\_ 단독주택을 원한다.
- (나) \_\_\_\_\_ 아파트를 분양받는다.
- (다) \_\_\_\_\_ 임대아파트를 원한다.

23. 귀사가 일산으로 이전할 경우 사원중 거주이전을 희망하는 사원은 몇분이나 됩니까?

(가) \_\_\_\_\_ 명중 \_\_\_\_\_ 명 \_\_\_\_\_ %

24. 귀사의 사원이 거주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 (가) \_\_\_\_\_ 단독주택을 원한다.
- (나) \_\_\_\_\_ 아파트 분양받기를 희망한다.
- (다) \_\_\_\_\_ 임대아파트를 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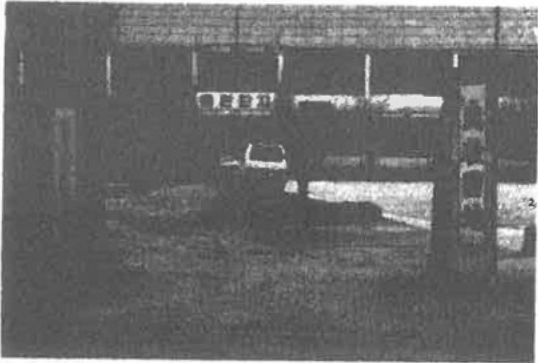
25. 출판문화도시에 반드시 우선적으로 입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출판관련단체 및 기관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몇개든 좋습니다)

- (1) \_\_\_\_\_ 국제규모도서전시장
- (2) \_\_\_\_\_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
- (3) \_\_\_\_\_ 대한인쇄문화협회

**신문·잡지에 보도된  
자료**

# 서울近郊에 「出版도시」 조성

## 50만坪 부지에 5백업체 入住



**문단은 국내 出版명소 「出版團地」**  
 70년 만에 조성된 이 출판단지에는 그동안 出版文化의 고요한 바다였던 출판도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출판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서울 근교에 50만평 규모의 출판도시가 조성되고 있다. 이 출판도시에는 500여개의 출판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 출판도시의 조성은 출판업계의 한 획을 그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출판도시의 조성은 출판업계의 한 획을 그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출판도시의 조성은 출판업계의 한 획을 그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출판도시의 조성은 출판업계의 한 획을 그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출판도시의 조성은 출판업계의 한 획을 그을 것으로 기대된다.

### 印刷·製本·유통 한자리에

#### 예술학교·박물관도 건립... 정부차원 지원 필요

### 100만명 출판단지 만든다

#### 95년서울근교에 이달중 발기인대회

오는 95년까지 서울근교에 1백만명 규모의 대단위 출판단지가 들어선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발기인위원회)은 오는 13일 프레스센터 대회의장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과 방향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열고 그 결과를 토대로 7월중에 발기인대회를 갖고 사업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발기인위는 30일 가진 첫모임에서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Korea Publishing City)는 서울에서 차량편으로 1시간이내의 거리에 건설하

고 출판사와 관련된 500개사, 상주인원 3만~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또 단지내에 출판대학과 함께 출판문화정보센터 출판박물관 각종 전시장과 공연장은 물론 저자들을 위한 단원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대시설을 빠짐없이 갖추기로 했다.

• 한국언론출판사 1989년 6월 30일  
 • 스포츠서울 1989년 7월 2일



# 출판메카

# 「出版문화都市」세운다

서울近郊에 百萬坪규모 圍地 90~95年 조성

출판사를 중심으로 인쇄공과 장외사설, 유통업체는 물론 출판관리청과 도서관·출판문화연구소와 국립출판문화산업단지까지 갖출 계획이다.

출판인들은 최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법 발기추진위원회를 구성, 21세기한국출판문화산업의 현대화를 위한 전담으로 일관된 계획을 세웠다.

내년부터 6개년계획(90~95년)으로 추진될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차 2개년계획에 따르면 서울에서 자동차로 1시간이내에 왕복가능한 지역을 후보지로 골라내고 있다.

실과 도서관, 도서관진흥사업, 도서관 및 도서유통을 위한 연구개발, 그리고 출판의 연구 및 출판진흥의 심포지엄을 열 계획이다.



출판인들은 최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법 발기추진위원회를 구성, 21세기한국출판문화산업의 현대화를 위한 전담으로 일관된 계획을 세웠다.



지난 5월 계획된 출판문화산업단지. 출판계는 6개년계획으로 서울근교에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키로 했다.

## 印刷·제본·寫植등 5百業體 입주 종사자 5萬거주... 학교·商街·레저 시설도

이같이 서울사내에 들어가지 않으면 출판문화도시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이 단지에 출판사, 인쇄사, 서적 유통업, 교육·문화·레저 시설도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단지에 출판사, 인쇄사, 서적 유통업, 교육·문화·레저 시설도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출판문화도시가 조성된다.

내년에 시작될 1차 2개년계획(90~91년)은 기초시설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차 2개년계획(92~93년)에는 출판사 및 출판문화산업단지 입주업체를 유치한다.

이같은 청사진은 지난달 7일 출판문화산업단지발기추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 서정호(출판문화연구소)를 최고위원으로 선임하고, 서정호를 위원장으로 하는 출판문화산업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추진되는 6개년계획의 청사진을 확정짓는다.

출판문화도시 조성은 출판사, 인쇄사, 서적 유통업, 교육·문화·레저 시설도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단지에 출판사, 인쇄사, 서적 유통업, 교육·문화·레저 시설도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 서울근교 대규모 출판타운 추진 인쇄·제본 연구소에서 社員주택까지 출판계 5만명 구성... 19일 심포지엄

출판문화도시 조성은 출판사, 인쇄사, 서적 유통업, 교육·문화·레저 시설도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출판문화도시 조성은 출판사, 인쇄사, 서적 유통업, 교육·문화·레저 시설도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출판문화도시 조성은 출판사, 인쇄사, 서적 유통업, 교육·문화·레저 시설도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 출판문화단지 만든다

### 6년후 서울근교... 5백업체 入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추진되는 출판문화도시 조성은 출판사, 인쇄사, 서적 유통업, 교육·문화·레저 시설도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출판문화도시 조성은 출판사, 인쇄사, 서적 유통업, 교육·문화·레저 시설도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출판문화도시 조성은 출판사, 인쇄사, 서적 유통업, 교육·문화·레저 시설도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 새 출판단지 만든다

출판문화도시 조성은 출판사, 인쇄사, 서적 유통업, 교육·문화·레저 시설도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 출판문화단지 만든다

출판문화도시 조성은 출판사, 인쇄사, 서적 유통업, 교육·문화·레저 시설도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출판문화도시 조성은 출판사, 인쇄사, 서적 유통업, 교육·문화·레저 시설도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 경향신문 1989년 7월 3일
- 동아일보 1989년 7월 3일
- 월간스포츠 1989년 7월 3일
- 국민일보 1989년 7월 4일



# 50만坪부지에 5백업체 입주 서울近郊 出版도시 조성

세계 최초... 이달중 발기인대회

### 출판·인쇄·유통 한자리에

#### 출판·인쇄·유통

한글출판사 500호 입주 예정인 오대산 출판도시(Oddae Mountain Publishing City)가 오는 7월 4일 발기인대회를 열어 50만평 부지에 출판·인쇄·유통 5백업체를 입주시킬 예정이다. 이 출판도시의 조성은 오대산 출판도시 조성추진위원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오대산 출판도시 조성추진위원회는 7월 4일 오후 2시 30분에 오대산 오대산출판도시 조성추진위원회 발기인대회를 갖고, 오대산출판도시 조성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오대산출판도시 조성추진위원회는 오대산출판도시 조성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오대산출판도시 조성추진위원회는 오대산출판도시 조성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오대산출판도시 조성추진위원회는 오대산출판도시 조성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출판도시 조성추진위원회(위원장 김동진)가 7월 4일 오대산 오대산출판도시 조성추진위원회 발기인대회를 갖고, 오대산출판도시 조성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열악한 사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 경제 사회 문화발전에 적지않은 기여를 해온 출판계가 2천년대의 도약과인발전을 위하여향후를 마련하기위해뜻을모으고있다.

출판계는 이를 위해 서울에서 자출차로 한시공간내에 땅을 수 있는 지역에 대규모 출판도시 조성추진위원회(위원장 김동진)가 7월 4일 오대산출판도시 조성추진위원회 발기인대회를 갖고, 오대산출판도시 조성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 전 출판과정의 한국서

### 서울주변에 대규모 출판단지

「출판문화산업단지」 조성은 추진하고 있다.

50만평에서 1백만평규모로 오는 90년부터 95년까지 5년간 계획으로 조성될 「출판문화산업단지」는 해외 기업에서 배포에 이르기까지 출판의 전과정이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출판의 요람으로 꾸어진다.

총소출판사 4백개 개인·단체·기관출판사 5백개업체가 입주할 출판문화산업단지의 조성계획은 열화당·한글사·한글출판사·지식산업사출판사출판문화재단이 맡고 있다. 단의 출판인들에 의해 지난 8월 7일 발기인위원회가 결성됨으로써 본격화했다. 발기인위원회로는 열화당(열화당출판사)·한글출판사(한글출판사)·지식산업사(지식산업사)·한글출판사(한글출판사)·한글출판사(한글출판사)·한글출판사(한글출판사)가 있다.

### 출판·인쇄·유통 한자리에

#### 출판·인쇄·유통

한글출판사 500호 입주 예정인 오대산 출판도시(Oddae Mountain Publishing City)가 오는 7월 4일 발기인대회를 열어 50만평 부지에 출판·인쇄·유통 5백업체를 입주시킬 예정이다. 이 출판도시의 조성은 오대산 출판도시 조성추진위원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오대산 출판도시 조성추진위원회는 7월 4일 오후 2시 30분에 오대산 오대산출판도시 조성추진위원회 발기인대회를 갖고, 오대산출판도시 조성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오대산출판도시 조성추진위원회는 오대산출판도시 조성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오대산출판도시 조성추진위원회는 오대산출판도시 조성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오대산출판도시 조성추진위원회는 오대산출판도시 조성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출판도시 조성추진위원회(위원장 김동진)가 7월 4일 오대산 오대산출판도시 조성추진위원회 발기인대회를 갖고, 오대산출판도시 조성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출판문화산업단지」 조성은 추진하고 있다.

50만평에서 1백만평규모로 오는 90년부터 95년까지 5년간 계획으로 조성될 「출판문화산업단지」는 해외 기업에서 배포에 이르기까지 출판의 전과정이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출판의 요람으로 꾸어진다.

총소출판사 4백개 개인·단체·기관출판사 5백개업체가 입주할 출판문화산업단지의 조성계획은 열화당·한글사·한글출판사·지식산업사출판사출판문화재단이 맡고 있다. 단의 출판인들에 의해 지난 8월 7일 발기인위원회가 결성됨으로써 본격화했다. 발기인위원회로는 열화당(열화당출판사)·한글출판사(한글출판사)·지식산업사(지식산업사)·한글출판사(한글출판사)·한글출판사(한글출판사)가 있다.

## 대단위 출판문화단지 선다

서울서 1시간거리에 백만평규모로  
인쇄·제본·유통기구등 관련업체 입주

출판·인쇄·유통 한자리에

한글출판사 500호 입주 예정인 오대산 출판도시(Oddae Mountain Publishing City)가 오는 7월 4일 발기인대회를 열어 50만평 부지에 출판·인쇄·유통 5백업체를 입주시킬 예정이다. 이 출판도시의 조성은 오대산 출판도시 조성추진위원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오대산 출판도시 조성추진위원회는 7월 4일 오후 2시 30분에 오대산 오대산출판도시 조성추진위원회 발기인대회를 갖고, 오대산출판도시 조성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오대산출판도시 조성추진위원회는 오대산출판도시 조성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오대산출판도시 조성추진위원회는 오대산출판도시 조성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오대산출판도시 조성추진위원회는 오대산출판도시 조성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출판도시 조성추진위원회(위원장 김동진)가 7월 4일 오대산 오대산출판도시 조성추진위원회 발기인대회를 갖고, 오대산출판도시 조성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출판문화산업단지」 조성은 추진하고 있다.

50만평에서 1백만평규모로 오는 90년부터 95년까지 5년간 계획으로 조성될 「출판문화산업단지」는 해외 기업에서 배포에 이르기까지 출판의 전과정이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출판의 요람으로 꾸어진다.

총소출판사 4백개 개인·단체·기관출판사 5백개업체가 입주할 출판문화산업단지의 조성계획은 열화당·한글사·한글출판사·지식산업사출판사출판문화재단이 맡고 있다. 단의 출판인들에 의해 지난 8월 7일 발기인위원회가 결성됨으로써 본격화했다. 발기인위원회로는 열화당(열화당출판사)·한글출판사(한글출판사)·지식산업사(지식산업사)·한글출판사(한글출판사)·한글출판사(한글출판사)가 있다.

● 조선일보, 1989년 7월 4일  
● 매일경제신문, 1989년 7월 5일  
● 서울신문, 1989년 7월 4일



物量만 세계 10위... 出版社의 구명가계

출판물량만 세계 10위인 우리나라 출판사들의 구명가계는 어떻게 될까. 출판물량만 세계 10위인 우리나라 출판사들의 구명가계는 어떻게 될까. 출판물량만 세계 10위인 우리나라 출판사들의 구명가계는 어떻게 될까.



출판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쌓여 있는 서고에 아직도 지체가 시어지지 않은 과묵한 출판사 직원들이다. (출판물량만 세계 10위인 우리나라 출판사들의 구명가계는 어떻게 될까.)



金東潤

영세성 탈피위한 白救운동

영세성 탈피를 위한 백구운동이 출판계에 확산되고 있다. 영세성 탈피를 위한 백구운동이 출판계에 확산되고 있다. 영세성 탈피를 위한 백구운동이 출판계에 확산되고 있다.



金聖用

新都市 건설처럼 難題 많아

신도시 건설처럼 출판계의 난제들이 많아지고 있다. 신도시 건설처럼 출판계의 난제들이 많아지고 있다. 신도시 건설처럼 출판계의 난제들이 많아지고 있다.



金矯寬

야심적 計劃... 정부서 지원을

야심적인 계획에 정부에서 지원을 약속했다. 야심적인 계획에 정부에서 지원을 약속했다. 야심적인 계획에 정부에서 지원을 약속했다.



4천5백여개종 제대도서 1천여권 인쇄·제본판매에 관여... 『投資할 땅을 달라』 業界입모아

『제판』출판사도 첨단장비는 겨우 복사기의 1/4뿐

『제판』출판사도 첨단장비는 겨우 복사기의 1/4뿐. 『제판』출판사도 첨단장비는 겨우 복사기의 1/4뿐.



# "출판도시 건설 정부지원 필수"

## '21세기 출판문화산업 발전전략' 토론회

출판인들이 주축이 돼 추진중인 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을 위한 심포지엄이 19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21세기 한국 출판문화산업의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한국 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준비추진위원회가 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출판문화산업단지의 구성과 그 기대" 문화전략으로서의 출판도시 출판도시의 타당성 출판도시의 설계 등이 각각 발표되었다.

### 서울근교에 50만평 규모

첫번째로 '출판문화산업단지'의 구성과 그 기대를 발표한 출판인 김병익(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 문학과 지성사 대표)씨는 "출판문화산업단지 10년 동안 우리 출판계에 할 일은 구조적 취약성과 비능률성을 타개

하기 위한 변혁적인 시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히고 "서울근교에 50만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 출판사 및 관련업체 5백여개, 도매상, 창고, 회의실, 사원주택, 학교, 공연장 등을 마련, 문화도시이자 생활도시로 가꿔나간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출판문화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출판업무의 공간 확대 △도시의 공동체의 △출판의 일관적업의 △도시유통센터형성 △출판관련 정보집중 및 원활한 교환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지문제 제원 확보, 다목적 문화공간으로서의 설계와 디자인 문제 등이 현재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 이들 문제의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김씨는 덧붙였다.

출판평론가 이종한씨는 '문화전략으로서의 출판도시' 발전에서 "출판문화산업단지는 출판문화도시 또는 출판문화박람관도시의 개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판사 및 관련업체, 각종 부대시설 마련과 더불어 출판발달품이나 출판자료관 또는 도서전문시장 건설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이씨는 강조했다.

### 도서 전문시장도 세워야

'출판도시의 타당성'을 도시계획적 시각에서 짚어본 김행국(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도시계획)씨는 "출판문화산업단지는 자주적인 신도시로서 출판산업용 전용시키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서울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조성될 이 단지는 우리 사회의 현인인 서울집중현상과 서울과밀현상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고 평했다. 또한 독서문화의 발전, 출판산업 성장의 원동력, 정부의 생산·유통·확산에의 기여, 유휴인력 고용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교수는 "출판도시 같은 대형공간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사실상 실현이 어렵다"면서 출판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출판문화도시 설계 바람직

한편 '출판도시의 설계'에 대해 발표한 강병기(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도시설계)씨는 "출판문화산업단지는 출판과 관련된 모든 업체들이 함께 입주할 터이므로 큰 공동단지 안에 연립단지가 같이 들어서는 형식의 '출판 콤플렉스'로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출판인,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계 인사 2백여명이 참석, 90년대 중반에 새로운 문화도시-문화공간으로 탄생할 출판문화산업단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신영숙 기자>

출판도시 건설을 위한 심포지엄이 19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21세기 한국 출판문화산업의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한국 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준비추진위원회가 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출판문화산업단지의 구성과 그 기대" 문화전략으로서의 출판도시 출판도시의 타당성 출판도시의 설계 등이 각각 발표되었다.



출판도시 건설을 위한 심포지엄이 19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21세기 한국 출판문화산업의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한국 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준비추진위원회가 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출판문화산업단지의 구성과 그 기대" 문화전략으로서의 출판도시 출판도시의 타당성 출판도시의 설계 등이 각각 발표되었다.

# "出版문화博物館도시로 造成"

## 「산업단지」建設 심포지엄 主題 발표 작업機能포함 文化센터의 역할까지

출판도시 건설을 위한 심포지엄이 19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21세기 한국 출판문화산업의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한국 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준비추진위원회가 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출판문화산업단지의 구성과 그 기대" 문화전략으로서의 출판도시 출판도시의 타당성 출판도시의 설계 등이 각각 발표되었다.

출판도시 건설을 위한 심포지엄이 19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21세기 한국 출판문화산업의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한국 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준비추진위원회가 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출판문화산업단지의 구성과 그 기대" 문화전략으로서의 출판도시 출판도시의 타당성 출판도시의 설계 등이 각각 발표되었다.

출판도시 건설을 위한 심포지엄이 19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21세기 한국 출판문화산업의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한국 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준비추진위원회가 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출판문화산업단지의 구성과 그 기대" 문화전략으로서의 출판도시 출판도시의 타당성 출판도시의 설계 등이 각각 발표되었다.

출판도시 건설을 위한 심포지엄이 19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21세기 한국 출판문화산업의 발전전략'이라는 주제로 한국 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준비추진위원회가 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출판문화산업단지의 구성과 그 기대" 문화전략으로서의 출판도시 출판도시의 타당성 출판도시의 설계 등이 각각 발표되었다.

- 한겨레신문 1989년 7월 20일
- 한국경제신문 1989년 7월 20일



# 출판도시 정부 지원없이는 不可

지난 6월 7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대형 출판도시' 건설을 둘러싸고 출판계 및 관련업체 일각에서 이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의문시하는 시각이 저기저기 출판도시 건설의 필요성 절고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계획의 요지는 서울에서 차로 1시간내 도달가능한 교외에 출판산업 종가지를 그 가족 5만여명이 거주하며 생산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2~3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것. 이같은 계획은 연초부터 출판계 일각에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6월 초 열화당 지하사 문화출판사 민용사 민갑사 등 22여개 중소출판사가 발기회 협회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자부 의욕 넘치게 시작한 출판도시 건설계획은 출판계로부터 실현가능성 여부를 놓고 갖가지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 예로 지난 19일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출판진흥위원회 주최로 열린 '21세기 한국출판문화산업의 발전전략, 신도시건설'에서는 주최측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관계자

의원이상이 필요하며, 연간 출판계 총의행에 맞먹는 이 자금을 출판계 스스로 조달할 능력이 현실적으로 전무하다는 것이다. 「출판도시의 설계, 라는 제하의 기조문을 발표한 중앙대 출판연구소는 현재의 신도시 건설 추진주체가 소수인 점, 그리고 현실의 이해가 워낙 토지관리방식을 둘러싸고 생겨날 부작용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 소수만이 이 일을 추진할 경우 일자체가 선사되기도 힘들겠지만 만약 도시를 세우게 된다면 지라도 여기서 나오는 임대료가 부속의 인쇄업체 등 연관업체들이 단지에 입주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실적인



대규모출판단지 조성계획이 많은 어려움을 지녀 출판계로부터 일부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계획된 마포의 출판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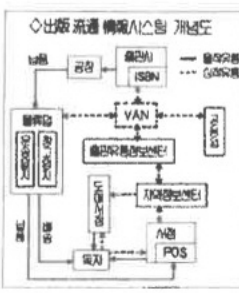
## 건설 立地선정·財源 조달능력 없어 추진주체 少數... 토지관리방식 부작용 우려 일부 업주는 벌써부터 '연합賃金투쟁' 걱정

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며 이밖에 용지구입 건물및 부대시설 건축 등 직접투자에만도 최소한 5천

백가 걸린 토지관리방식에 있어 서도 분할방식을 택하면 입주회망자가 많을 것이나 출판진흥위원회에서는 초기의 취지는 토지부지할 것이 전방향으로, 반면 공동소유방식을 택할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효과'가 반감돼 입주회망자가 많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이상의 실효적인 참가자들이 부족함을 지적한 외에도 정치적인 출판인들이 출판도시건설계획에 상당한 회의를 표명하고 있다. 한 예로 출판진흥위원회(한양사 대표)는 「단지 운영안」을 검토한 문자들이 연합적 임대료인 임대인상 및 임대료조소를 주장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일깨워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어떤 계획의 손수성이 자질하면 의심만을 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이유로부터 출판도시 건설의 전망은 상당의 불투명한게 사실인데, 최근 들어 판권외역서는 차선책으로 분담출판사 개발 및 입주가능성 여부를 정부 당국과 내밀히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주출판이 양호부의 분담-입산을 과감했던 것이 아니었느냐'는 초기의 출판계 일각에서 결코 잊혀진 것이 아니었음을 한층 더 주고 있다. (사태가 깊어)



출판유통채널시스템 개편도

출판사 → VAN → 출판유통채널시스템 → POS → 유통망

출판유통채널시스템은 VAN을 통해 출판사와 유통망을 연결하며, POS를 통해 유통망과 연결된다.

### 출판이론·미디어가

## 정·보·통·신·마·이·터

출판이론, 미디어, 정·보·통·신·마·이·터

### VAN과 내선 연결망 구축

## 전국 주요 영·음·출판·유통·업·계·인·물

VAN과 내선 연결망 구축

전국 주요 영·음·출판·유통·업·계·인·물

### 출판이론

## 출판이론

출판이론, 미디어, 정·보·통·신·마·이·터

출판이론, 미디어, 정·보·통·신·마·이·터

- 국민일보, 1989년 7월 24일
- 매일경제신문, 1989년 7월 24일
- 조선일보, 1989년 8월 8일

出版文化산업탐지 추진현황 중간점검

10억 투자... 1000여종의 출판물... 1000여종의 출판물... 1000여종의 출판물...

정확히 일관성으로 문화 국제... 10억 투자... 1000여종의 출판물... 1000여종의 출판물...



계획이 실현될 경우 문화의 과... 10억 투자... 1000여종의 출판물... 1000여종의 출판물...

10억 투자... 1000여종의 출판물... 1000여종의 출판물...

출판도시... 1000여종의 출판물... 1000여종의 출판물...

10억 투자... 1000여종의 출판물... 1000여종의 출판물...

10억 투자... 1000여종의 출판물... 1000여종의 출판물...

10억 투자... 1000여종의 출판물... 1000여종의 출판물...

중·소 출판사 적극 호응, 文公部선 傍觀

출판이 출판권업에서 출판... 10억 투자... 1000여종의 출판물... 1000여종의 출판물...

반면어상되지 확보는 필요... 10억 투자... 1000여종의 출판물... 1000여종의 출판물...

한 출판문화정책의 선명... 10억 투자... 1000여종의 출판물... 1000여종의 출판물...

'출판타운' 마스터플랜 윤곽 밝혀져

출판단지건설추진책, 계획안에 대한 보고회 열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 10억 투자... 1000여종의 출판물... 1000여종의 출판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 10억 투자... 1000여종의 출판물... 1000여종의 출판물...

출판타운의 가장 중요... 10억 투자... 1000여종의 출판물... 1000여종의 출판물...



출판단지건설추진책, 계획안에 대한 보고회 열어

10억 투자... 1000여종의 출판물... 1000여종의 출판물...

10억 투자... 1000여종의 출판물... 1000여종의 출판물...

10억 투자... 1000여종의 출판물... 1000여종의 출판물...

10억 투자... 1000여종의 출판물... 1000여종의 출판물...

10억 투자... 1000여종의 출판물... 1000여종의 출판물...

10억 투자... 1000여종의 출판물... 1000여종의 출판물...

10억 투자... 1000여종의 출판물... 1000여종의 출판물...

- 동아경제신문, 1989년 8월 2일
- 세계일보, 1989년 8월 22일
- 출판저널, 1989년 8월 20일지









# “一山에 15萬坪규모 출판단지 조성”

## 추진위원장 취임

일산시에 행정지구인 一山에 대규모 출판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건설촉진법」 발기인대회가 출판인들과 인쇄 재계, 편집 지협사들의 발원인인 출판가운데 5일 출판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로서 그동안 활발한 출판인들과 인쇄 오보내리인 출판단지건설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출판문화계의 「사상」으로 등장했다.

지난 6월 발표한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건설촉진법(추진법)」(추진법)으로 이같이 산업을 육성하는 추진법(제정)은 「조발발기인으로」 출판인사, 교과사들 출판계의 「상세」들이 대거 나설으로써 출판계발전의 일이라는 정통성

## 취급실

을 일개하고 지금까지 타인하게만 추진되었던 출판단지건설을 구체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이 대회의 의의를 밝혔다.

발기인으로 참가한 1백 4개 업체가 1천만평의 기금을 선뜻 내 전자 10억 4천만원의 기금이 모아졌으며 앞으로 3백 ~ 4백개업체가 추이로 참가할 것이 예상해 30억원이상의 기금조성이 무난하다는 것이 추산되고 설명이다.

一山에는 15만 5천평의 출판단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 중 4만평에는 출판정보센터 도시권 공인정보출판단지인 교과출판사들 박물관 출판물 추이실이 지리권 갖고 나머지 11만 5천평에는 개별출판사들



출판문화추진위원장 박승호

이 들어서게 됩니다. 추이사는 이같은 계획이 관 계당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있다면서 출판단지건

설이 정부로부터 출판업자들이 혜택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정력적인 지원을 받아 모든 문화활동의 귀결로 나타나는 출판산업의 꽃을 피우려는 것이 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출판단지조성에 따르는 모든 건설비용을 포함해서 감당한다는 것.

「우리나라가 세계10대 출판국이 될지만 출판산업은 아직도 열세입니다. 게다가 인쇄 유통 등 관련업계의 연관성이 낮아 생산성도 떨어지고요. 특히 출판인들이 사수에 집중,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따라 출판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 출판단지조성이 시급하다는 추이장은 오는 9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출판단지조성 첫 사업으로 「서울출판문화」를 계획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기자>

일산 새도시  
15만평 규모

# 출판타운 선다

##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건설추진법기인대회



5일 열린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조합 발기인 대회. 출판인 스스로의 힘으로 현대적 출판타운을 만들기 위해 의견을 모았다.

## 8개년 계획 확정 원로동 1백7명 발기인대회

경기도 일산에 15만평 규모의 '출판타운'이 생긴다. 8개년 계획으로 서울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출판타운을 세우기 위해 출판인들이 중심이 돼 추진해 온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계획이 구체화돼 5일 발기인대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서울 출판문화회관에서 열린 발기인대회에는 정진수 한양대 교수 등 원로 출판인을 포함, 1백7명의 출판인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발기인에는 출판문화사·인쇄과 등 출판문화협회 회장단을 지낸 출판사 대표를 비롯해 동아출판사·교과사·대한교과사·웅진출판사 등 대형출판사 대표, 민중사·지식산업사·광화·창과·비행사·한길사·열화당·범우사·문예·산학각 지성사 등 주요 단행본 출판사 대표, 풀빛·한울·동네·한마당·이론과 실천 등 개성 있는 책을 펴내는 비교적 젊은 층

의 출판사 대표들이 교우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 동 정병규 디자인실, 안그라픽스, 김병을 편집회사, 대용출판, 정일계획, 상용지영, 창원지정상사, 백명사, 신동인쇄소 등 관련업체들이 발기인으로 참여,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개발추진법 문화사업으로 추진될

윤석규, 백요선, 여향성)을 선출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일을 꾸려나갈 사무국을 출범 안에 무기로 했다.

일산에 조성될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는 정부가 추진중인 일산새도시 개발계획 가운데 상업·업무지역으로 계획된 있는 4백50만

## “문화공동체 운동 앞장”...모금 10억 넘어

전망이다. 이날 발기인들은 '위대한 책의 문화를 창출하자'는 제목의 발기인 선언문을 발표, "2000년을 향한 출판문화의 과학화 현대화를 위해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의 건설을 발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기인대회에서는 그동안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준비추진위원장을 맡아온 이기중(열화당 대표)씨가 발기위원장으로 선임되었고, 실행위원 25명을 뽑을 전행위원 5명(권병일, 이기중,

평 부지 안에 15만평 규모로 들어서게 된다. 이 가운데 4만여평에는 도서점시장·출판금고·출판연구소·출판박물관·공인 등 공동시설이 나머지 11만평은 각 업체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당초 단지 안에 함께 들어설 예정이던 재본·인쇄·창고분야는 단지에서 약 4km 떨어진 곳에 따로 재본·인쇄단지를 조성키로 계획을 일부 수정했다. 또한 재본·인쇄단지 옆에 대형창고도 따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밖에 직원들의 주거지 확보를 위해 단지 안에 독신과 속소 3천세대용 건설·분양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또 약 2천세대 규모의 사원아파트는 단지 밖의 부지에 들어서는 민간건설업체에 파도를 분담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중이다.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을 추진해온 출판인들은 토지 매입과 공공시설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출판인 스스로 마련하자는 뜻을 모아 5일 현재 10억7천만

의 기금이 모아졌다. 앞으로 모금을 계속해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추진조합·중소기업진흥공단·문예진흥기구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중이다.

위원장 이기중씨는 "기금 30억 원 조성은 무난할 것으로 본다. 단순한 책만 만드는 작업으로서의 출판이 아니라 음악·미술·무용 등 인문 문화와 연결되어 출판문화공동체 운동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판문화산업단지가 일산을 새로운 문화도시로 발돋움시키는 데 보탬이 되면 된다"고 말했다.

<신연속 기자>

# 인신 16만명에 조성

## 출판단지 발족계획

50만평규모 건설계획 변경

책값 15~20% 싸게 공급 가능

출판단지 발족... 건설 계획  
50만평규모 건설계획 변경  
책값 15~20% 싸게 공급 가능



5일 출판단지위원회에서 열린 '출판단지추진위원회' 건설조치를 발의한 회의 장면. (주계영기자)

### “출판타운 실현가능성”

112개사 참여 發起人대회

한국출판문화 사업단지 건설을 위한 발기인 대회가 5일 출판문화관에서 출판인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발기인대회에 추진기금 1천만원에 달하는 112개 출판사 대표가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사사영이사장은 출판문화발전추진위원회 발족을 축하하며, 출판문화발전추진위원회가 출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출판문화발전추진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발기인대회에서 사사영이사장은 출판문화발전추진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출판문화발전추진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판문화발전추진위원회는 출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출판문화발전추진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출판都市」-한에 15만명 규모로

출판사·판권업체 6백개 입주  
소요정비 2천억원 마련 難題

출판문화발전추진위원회는 출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출판문화발전추진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판문화발전추진위원회는 출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출판문화발전추진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판문화발전추진위원회는 출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출판문화발전추진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국민일보 1989년 9월 7일
- 밀린스프링 1989년 9월 6일
- 조선일보 1989년 9월 7일

# 발기인대회에 1백10여개회사 참여

## 현대화·유통구조 개선 목적... 일부 부정적 반응도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추진위원회(가칭)가 9월5일 출판문화회관에서 발기인대회를 갖고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조달 결성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 출판문화 단지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조달은 현재까지 110여개회 출판사와 출판관련업체가 참여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도 3백여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발팀 '출판'을 담당인정출판문화정책과 관계하고 있는 관계당국과 '단지건설

안'에 상당면적의 필지를 보이고 있는 추진하는 조달 기밀회현수가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역대 출판회장이 거의 다 참여했고, 대명출판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출판계의 실세를 모습에 갖추기 시작한, 추진되는 계획대로 출판문화산업비나프가 명칭을 정우 문화체육 정책도시로서의 역할과 함께 출판문화의 현대화 기상을 올린, 유통구조의 현대화로 인해 소비와 책값에서 20%정도 가락을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생겼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회가 관계당국과 의견의 필지를 보이고 있는 단지건

설안은 도서전시장 출판정보센터 인쇄출판문화연구소 등 중추기능을 담당할 공공시설 4만5천평과 출판사들이 필지나프를 형성할 개발기능시설 11만평을 합쳐 15만5천평을 출판문화산업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

한편 이에 대해 미조출판단지가 실제로 팔렸음을 되새기면서 어떤 계획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관계당국이 출판기능을 도시 전체로 분산, 여타 공간과의 조화를 꾀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반면, 추진되는 일정지역으로 종합시킨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결충충이 있다.

발기인대회에 참여한 출판사는 다음과 같다. 경진속(출판문화) 민영민(시사영어) 강영희(갑진출판) 권만덕(대신문) 김광수(대원교과서) 김낙진(교리원) 김문식(일봉제본) 김신익(시공사) 김영호(유행) 김현(홍장) 김인호(양지사) 김형관(고전사) 한만연(일조자) 권병일(지회사) 김병익(문화파지성) 김연호(한지사) 김현식(동아출판사) 박영호(연용사) 박요진(법문사) 양철우(교과사) 윤석규(웅진출판) 이기홍(유행) 이영기(신대양사) 장석우(철학) 신동재(교보문고) 유익철(법문사) 유철두(법우사) 등 1백10명. [본

### 문화산업 출판

## 출판타운 건설 기대 크다

출판문화산업단지야말로 출판계 40년 숙원인 도서유통 현대화를 실현하고 이 땅에 책의 문화를 꽃피우게 할 것이다

### 문 청 광

100여개 출판사들이 참가한 발기인대회에서, 출판문화산업단지야말로 출판계 40년 숙원인 도서유통 현대화를 실현하고 이 땅에 책의 문화를 꽃피우게 할 것이다

출판문화산업단지야말로 출판계 40년 숙원인 도서유통 현대화를 실현하고 이 땅에 책의 문화를 꽃피우게 할 것이다

출판문화산업단지야말로 출판계 40년 숙원인 도서유통 현대화를 실현하고 이 땅에 책의 문화를 꽃피우게 할 것이다

출판문화산업단지야말로 출판계 40년 숙원인 도서유통 현대화를 실현하고 이 땅에 책의 문화를 꽃피우게 할 것이다



발기인대회에 참여한 출판사 대표들과 관계당국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발기인대회에 참여한 출판사 대표들과 관계당국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발기인대회에 참여한 출판사 대표들과 관계당국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발기인대회에 참여한 출판사 대표들과 관계당국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발기인대회에 참여한 출판사 대표들과 관계당국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발기인대회에 참여한 출판사 대표들과 관계당국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발기인대회에 참여한 출판사 대표들과 관계당국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 출판계 공동체 운동과 출판도시 건설계획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서대 한 종합 공동체운동 계획이 출판계의 역량을 집중시켜 보는 시점에 이르러지게 되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른바 출판도시 건설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모두 아는 바와같이 이 계획은 8월 5일 이 사설의 후원위원회가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작성한 건설계획의 제1안이 완성되어 관계요로와 신도시 개발담당 기획부서인 국토개발연구원, 시행계획 조정개발공사 등에 건의되었으므로, 이제 언론계에도 배포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안은 특히 수도권 신도시 개발계획 가운데 일산지역의 문화·국제·편람이라는 당국에서 지향하고 있는 도시정책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출판도시의 건설계획이 근본적으로 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물론 예외가 분명히 있다. 특히 출판계는 1941년 공북을 맞이한 이래 연구적인 인쇄 출판인들에 의해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진흥원, 한국출판공고 등 공동체운동을 끊임없이 펼쳐왔으며, 정의를 중심으로 여러 협의단체, 전국단위 등을 통해서 활동적인 사업을 발전시켜 왔다. 최근에는 한

7월 4일에 조성되어 100여년간 출판문화의 중심지로 개발 예정인 이오구 신아동 소재의 출판도시 건설 1차 17일 전인출 100여명이 출판문화 이오구를 본교 1차 출판도시 개발을 지원하여 오는 출판도시 건설계획이 새로이 세우 구해되고 있다



국출판연구소의 설립으로 출판계의 중추기능의 다원화를 이룩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것은 다원화된 출판계의 중추기능이 존재할지도 불확하고 출판계의 하루 구조, 다시 말하면 원장구조는 취약할 대로 취약해 있어 다른 분야의 중추기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 버리고 있음으로 우리의 불안은 가중되고, 그 중추기능 간의 유기적 관계, 또는 상호기능 보완관계 현상까지 포함하여 출판계의 발전은 앞으로 예상치 못할 정도로 불확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건축 및 도시 전문가들이 일하는 바 새로운 공간정신을 도입하려는 의지가 대부분 수반해 왔으나, 일찍이 말하면 '출판계 연구조직'의 결성과 출판계 중추기능의 활성화라는 명제를 이룩할 수 있겠다. 따라서 '새로운 공간 정신 = 출판도시 건설'이라는 통찰이 실현된다.

이 출판도시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초로 추진위에서 합의한

'21세기 한국출판문화산업의 현대화를 위한 전략' 1. 제 1 단계를 건설하는 2. 단계의 기능 3. 제 2, 3, 4 단계의 건설 소요기간 4. 중추기능 5. 추진절차 및 원칙 6. 추진위 구성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 출판계가 이 건설에서 제 1차적인 계획을 펼쳐야만 했을 것이라는 점을 우선 깊이 이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7월 19일 1차 건설을 위한 제1차 심의회의 내용을 수록한 출판도시 건설을 다시 간추리고 또의 내용을 정리한 《출판도시》 43쪽을 제1차 심의회의 주기가 되었다.

### 미래지향적인 도서관문화의 정립을 위해서는 범출판계의 공동체적 노력이 절대불가결하다

여기서 그 내용을 다시금 구구히 설명하는 일은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추진위원회를 대표해서 출판계 및 출판 연구단체에 대한 희망을 건넨다 안망드리고자 한다.

새로운 출판도시를 건설한다는 취지에는 살도나 이를 이루어내려는 열의가 없지 않을 것임은, 이는 그동안 출판계에 누적되어온 타성, 폐쇄적태도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이제 건설당국에서는 대단히 긍정적인 태도로 검토하고 있는 이 건설계획에 우리 출판인 및 출판관련자들이 출판도시 건설에 합체하여 이토록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1차에 방의 주요 출판계 인사와 출판관련 인사들이 1,000만 원의 추진금을 감출하고 발전의지를 약속하였다. 6월 1일 발전의 뜻을 기쳐 정식으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건설조합을 결성하고 있다.

이 거대한 출판공동체운동에 여러분의 뜻을 기대해 가지 않는다.

오늘의 우리 출판문화산업의 위상을 깊이 인식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서관문화의 정립이라는 깊은, 범출판계의 공동체적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지 않을까나.

李 起 維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추진위원장,  
발파당 대표)

출판문화 1989/10

출판문화 1989/10

J

**한국토지개발공사는**

- 개발계획에서 보상에 이르기까지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하겠습니다.
- 충분한 보상은 물론 이주 및 생계문제에 대하여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주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차고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인산 - 산 신도시 건설지구 토지 및 물건조사 열람공고**

지난 4월 27일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를 서울 북부영인 고양지역에도 환영한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신도시가 건설되게 되었습니다. 즉 도시건설사업으로 주민 여러분에게는 일부 고층과 고층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오니, 신도시 건설을 위한 수도권적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이산과 고양지역의 발전과 원주민에게 최우선적으로 개발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오니, 지구내 주민 여러분께서는 신도시 개발을 위하여 최대한 참여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그동안 주민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실시한 토지 및 물건조사 결과와 다음과 같이 열람토록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소수자 및 이해관계인에게서 열람후 이의신청을 하시거나 조사를 열람하는 경우 열람조사를 실시하여 여러분의 정당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월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열람기간**  
경기도 일산을 일산리, 무열리, 장항리, 마우리, 백서리 및 송문리 대곡리 일원과 일산 신도시 건설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상물건 일체

**열람장소**  
○일산읍 티마출판소  
○일산신도시 지참사업단

**열람시간**  
○기 간 : 09. 10. 10 - 10. 25 (토요일 제외)  
○시 간 : 09. 00 - 17. 00  
(단, 토요일은 09. 00 - 13. 00)

1989년 10월 7일  
**韓國土地開發公社 일산신도시지할 사업단장**

**일산 신도시는**

- 우수한 교육, 업무, 유통, 문화, 의료시설은 물론 충분한 녹지와 공원을 갖춘 전원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
- 수도 서울의 기능을 분산하고 직주근접에 주간점들 뿐 자족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

**지구내 주민 여러분은**

- 신도시로 새롭게 단장된 정문 고향에서 사할 수 있습니다.

# 文化·예술도시 만든다

11개공 기본계획案 마련... 내달初 확경



## 石村湖 2배湖水공원 조성

### 대형 流通센터·레저단지도

#### 文藝회관·야외음악당 등 유치

【경주=연세일보】경기도 고양시에서 150여km 떨어진 경기도 남서부 지방에 위치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의 개발을 앞두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의 개발을 앞두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의 개발을 앞두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기본구상도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의 개발을 앞두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의 개발을 앞두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의 개발을 앞두고...

경기도 일산에 책보내기운동이 출판인들 사이에 조용히 전개되고 있다. 96년 완공을 목표로 일산에 15만평 규모의 출판도시 건설을 추진중인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추진위원회의 회원들이 회계의 주인공이다. 지난 23일 이들은 5년 뒤 출판도시가 들어서게 될 일산의 주민들을 위해 일산 시내에 아담한 도서관을 꾸며주기로 뜻을 같이 하고 27일부터 책을 모으고 있다. 출판인 1백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9월5일 발기인대회를 가진 출판단지 추진위는 그동안 일산 주민들과 여러차례 간담회를 열고 일산의 비관적한 개발

경기도 일산에 책보내기운동이 출판인들 사이에 조용히 전개되고 있다. 96년 완공을 목표로 일산에 15만평 규모의 출판도시 건설을 추진중인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추진위원회의 회원들이 회계의 주인공이다. 지난 23일 이들은 5년 뒤 출판도시가 들어서게 될 일산의 주민들을 위해 일산 시내에 아담한 도서관을 꾸며주기로 뜻을 같이 하고 27일부터 책을 모으고 있다. 출판인 1백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9월5일 발기인대회를 가진 출판단지 추진위는 그동안 일산 주민들과 여러차례 간담회를 열고 일산의 비관적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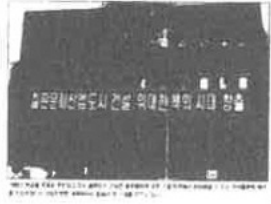
## 新都市, 고쳐야 할 게 많다

【경주=연세일보】경기도 고양시에서 150여km 떨어진 경기도 남서부 지방에 위치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의 개발을 앞두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의 개발을 앞두고...

경기도 일산에 책보내기운동이 출판인들 사이에 조용히 전개되고 있다. 96년 완공을 목표로 일산에 15만평 규모의 출판도시 건설을 추진중인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추진위원회의 회원들이 회계의 주인공이다. 지난 23일 이들은 5년 뒤 출판도시가 들어서게 될 일산의 주민들을 위해 일산 시내에 아담한 도서관을 꾸며주기로 뜻을 같이 하고 27일부터 책을 모으고 있다. 출판인 1백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9월5일 발기인대회를 가진 출판단지 추진위는 그동안 일산 주민들과 여러차례 간담회를 열고 일산의 비관적한 개발

## 이념도서 해금에서 '출판타운'까지

프로젝트로 보는 1980년대 출판계



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 현장. 이 단지는 1980년대 출판계의 대두를 상징하는 프로젝트로, 출판문화산업의 집약지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고 있다.

경기도 일산에 책보내기운동이 출판인들 사이에 조용히 전개되고 있다. 96년 완공을 목표로 일산에 15만평 규모의 출판도시 건설을 추진중인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추진위원회의 회원들이 회계의 주인공이다. 지난 23일 이들은 5년 뒤 출판도시가 들어서게 될 일산의 주민들을 위해 일산 시내에 아담한 도서관을 꾸며주기로 뜻을 같이 하고 27일부터 책을 모으고 있다. 출판인 1백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9월5일 발기인대회를 가진 출판단지 추진위는 그동안 일산 주민들과 여러차례 간담회를 열고 일산의 비관적한 개발

“출판도시가 들어서면 건축이 우선 작은 규모이냐 큰 규모이냐는 것은 출판도시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출판도시를 조성하면서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일산 주민들의 삶의 질과 교육 문화에 대한 것이다.”라고 소개하고 “간담회에서 현지 주민들에게 이 점을 충분히 설명했고, 그들 또한 일산의 일부가 책 문화의 중심이 되는 출판도시로 개발되는 것만 영광과 있다”고 덧붙였다. 일산에 보낼 책은 현재 출판단지 사무국(304-7240)에서 접수중이다. 출판단지 건설추진회 발기인으로 참여한 1백10여개 출판사

## 일산에 도서실 설치 등 사전작업 출판단지추진위, 주민들과 토론회도

앞날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거침없는 토론을 통해 출판인들과 현지 주민들은 출판도시가 들어서면 인근 지역에 도서시설을 꾸미고, 이들도 서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의견을 분담해 일산출판도시로 쓰일 차량 1대 구입과 도서실 공간을 마련하고, 출판인들이 책을 모아 전달하기로 했다. 추진위 위원장 이기용씨는 “일산에 책보내기운동은 일산 주민과 문화적인 유대감을 굳게 하기 위한 뜻도 있지만 책문화의 뿌리를 일산 전역에 심기 위한 뜻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판도시가 민간인인 출판인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지는 만큼 일산 주민들의 반응도 좋은 편”이라면

- 중앙경제, 1989년 10월 28일
- 출판저널, 1989년 11월 5일자
- • 한겨레신문, 1989년 11월 29일
- • 조선일보, 1989년 12월 1일 사설

# 인구密度낮고 綠地많은 田園도시로

## 28만명수용...住宅7만家口건립

### 出版단지·국제회의장등도 유치

【대전 21일 특파원 김대환 기자】 대전광역시 서구 신촌동에 조성 중인 출판단지·국제회의장 등 유망 사업이 잇따라 유치되면서, 대전의 도시 이미지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대전시는 지난 17일 대전광역시청에서 열린 '대전광역시 출판단지·국제회의장 유치 협정식'을 갖고 출판단지·국제회의장 유치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출판단지·국제회의장 유치 협정은 대전광역시청과 출판단지·국제회의장 유치 협회 간에 체결됐다. 출판단지·국제회의장 유치 협회 측은 "출판단지·국제회의장 유치 협정은 대전광역시청과 출판단지·국제회의장 유치 협회 간에 체결됐다. 출판단지·국제회의장 유치 협회 측은 "출판단지·국제회의장 유치 협정은 대전광역시청과 출판단지·국제회의장 유치 협회 간에 체결됐다."

#### 1-1 그린바스 개발 부안단속

【대전 21일 특파원 김대환 기자】 대전광역시 서구 신촌동에 조성 중인 출판단지·국제회의장 등 유망 사업이 잇따라 유치되면서, 대전의 도시 이미지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대전시는 지난 17일 대전광역시청에서 열린 '대전광역시 출판단지·국제회의장 유치 협정식'을 갖고 출판단지·국제회의장 유치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출판단지·국제회의장 유치 협회는 "출판단지·국제회의장 유치 협정은 대전광역시청과 출판단지·국제회의장 유치 협회 간에 체결됐다."

### 生活圏 중심부에 고밀도 아파트 단지 地下鐵 3호선 延長 東南쪽이 1호선 연결

대전광역시 서구 신촌동에 조성 중인 출판단지·국제회의장 등 유망 사업이 잇따라 유치되면서, 대전의 도시 이미지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대전시는 지난 17일 대전광역시청에서 열린 '대전광역시 출판단지·국제회의장 유치 협정식'을 갖고 출판단지·국제회의장 유치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 서구 신촌동에 조성 중인 출판단지·국제회의장 등 유망 사업이 잇따라 유치되면서, 대전의 도시 이미지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대전시는 지난 17일 대전광역시청에서 열린 '대전광역시 출판단지·국제회의장 유치 협정식'을 갖고 출판단지·국제회의장 유치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출판단지·국제회의장 유치 협회는 "출판단지·국제회의장 유치 협정은 대전광역시청과 출판단지·국제회의장 유치 협회 간에 체결됐다."



國土개발연구개발계획案 마련

「국토개발연구개발계획案」은 1989년 12월 12일 제정된 것으로,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분	면적(㎡)	주택수
총면적	160만	28만
주택용지	75만	28만
공원·녹지	85만	-

이제부터 2010년까지 21년간의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계획은 1989년 12월 12일 제정된 것으로,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一山도시 住宅 7만채 건설 28萬 수용



「평화시」지향... 文化·예술도시로  
綠地 27%차지 盆唐보다 쾌적  
地下鐵 3호선 연장 京畿道 新行政首都

이제부터 2010년까지 21년간의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계획은 1989년 12월 12일 제정된 것으로,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분	면적(㎡)	주택수
총면적	160만	28만
주택용지	75만	28만
공원·녹지	85만	-

一山 人口 28萬 田園 도시로



政府, 신도시개발 기본구상안 발표

1ha 당 평균 84명이 될 계획

차량부지 조성비율 27%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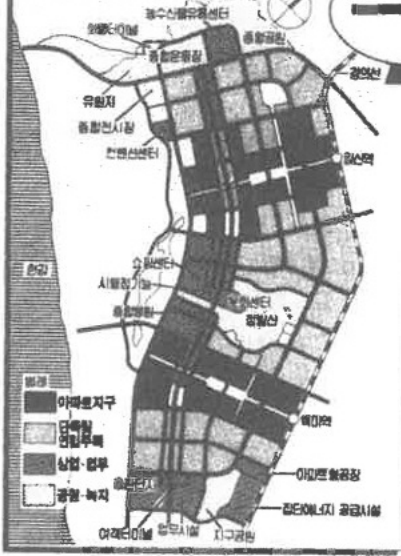
이제부터 2010년까지 21년간의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계획은 1989년 12월 12일 제정된 것으로,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동아일보 1989년 12월 12일
- 중앙일보 1989년 12월 12일

# 전 28만명 7만채 주택

## 一山

### 일산 신도시개발 계획도



## 一山新都市開發計劃에 관한 公聽會



○一山신도시개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관원 학자 및 건설업계 관계자 등 12명 참석하여 12월 12일 오후 2시에 열렸다. (朝鮮日報기자)

**綠地 27.3% ... 田園도시로**

**아파트 5만 8천戶  
연립 5천 7백戶  
단독 6천 1백戶**

### 부촌개발하면 「신도시개발」

「크리스마스」가 되면 서울의 아파트는 5만 8천 8백 88호, 연립주택은 5천 7백 77호, 단독주택은 6천 1백 11호에 달할 것이라고 서울주택개발공사(이하 주택공사)가 발표했다. 주택공사는 12월 12일 오후 2시에 서울에서 열린 「일산신도시개발계획」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주택공사는 일산신도시개발계획에 따라 1989년 12월 12일 오후 2시에 서울에서 열린 「일산신도시개발계획」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 저밀도 택지환경 조성

주택공사는 일산신도시개발계획에 따라 1989년 12월 12일 오후 2시에 서울에서 열린 「일산신도시개발계획」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주택공사는 일산신도시개발계획에 따라 1989년 12월 12일 오후 2시에 서울에서 열린 「일산신도시개발계획」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 장래 대비 50만평 수용 가능케

**統一 관련 기관 및 국제업무시설 유치  
지역과 지하철도 등 계획도 포함**

주택공사는 일산신도시개발계획에 따라 1989년 12월 12일 오후 2시에 서울에서 열린 「일산신도시개발계획」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주택공사는 일산신도시개발계획에 따라 1989년 12월 12일 오후 2시에 서울에서 열린 「일산신도시개발계획」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주택공사는 일산신도시개발계획에 따라 1989년 12월 12일 오후 2시에 서울에서 열린 「일산신도시개발계획」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주택공사는 일산신도시개발계획에 따라 1989년 12월 12일 오후 2시에 서울에서 열린 「일산신도시개발계획」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주택공사는 일산신도시개발계획에 따라 1989년 12월 12일 오후 2시에 서울에서 열린 「일산신도시개발계획」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주택공사는 일산신도시개발계획에 따라 1989년 12월 12일 오후 2시에 서울에서 열린 「일산신도시개발계획」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신도시개발의 경우 20% 정도는 해외에 건설기술을 수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해외에 건설기술을 수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해외에 건설기술을 수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 녹지 27%... 盆唐보다 쾌적



신도시개발의 경우 20% 정도는 해외에 건설기술을 수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해외에 건설기술을 수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 7만人口 28만명 수용

신도시개발의 경우 20% 정도는 해외에 건설기술을 수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해외에 건설기술을 수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 하당人口밀도 184명... 가장 낮아 地下鐵 3호선 中心까지 연결

신도시개발의 경우 20% 정도는 해외에 건설기술을 수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해외에 건설기술을 수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 일산 새도시 기본구상안

일산 새도시가 완공되면 산과 강을 아우르는 종합개발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특히 녹지율이 27%에 달하는 이 곳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주택 7만호 중 아파트 64%

### 정발산 자연공원 개발... 문화시설 유치

일산 새도시의 주택 7만호 중 아파트가 64%를 차지할 예정이다. 또한 정발산 자연공원을 개발하고 문화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다.

# 다세대위해 탄압금심정으로...



다세대주택에 대한 탄압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관련 당국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나누어 갖는 행위」에 매력·외교出版人

### 文公部 관망자세 아쉬움... 최선 다할터

문화공부에서 관망자세를 아쉬워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화사업의 발전을 위한 자세이다.

- 한국경제신문, 1989년 12월 13일
- 한겨레신문, 1989년 12월 13일
- 매일경제신문, 1989년 12월 14일

# “삼질만 남았다” 참여業體 급증



경부고속도로의 확장사업으로 부산시 건설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부산시 건설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부산시 건설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그 가능성이 지극히 희박하진 않겠지만 부산시 건설이 현실화되자 출원계를 비롯한 관공부은 각계의 관심이 쏠리고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국토개발연구원이 「一山단지 시개발 기본구상안」을 통해 신도시의 업무용 토지용 6만평, 공영용지 3만평을 출원도시건설에 할애키로 확정되면서 출원계의 움직임이 날카롭게 나타나고 있다.

## 건설 可視化되자 外國서도 큰 관심 推進委, 적격자 審査·配置 등 ‘즐거운 비명’

### 9만여평 활애받아

이같은 규모는 당초 한국출원위원회 산하에 추진위원회에서 연구한 업무용지 11만평, 공영용지 3만평보다는 다소 축소된 것이나 전체 도시에서 출원부은이 차지하는 비중을 본다면 엄청난 규모의 비명이라 볼 수 있다.

지난 9월 초 출원위원회 산하에 추진위원회 산하에 추진위원회에서 연구한 업무용지 11만평, 공영용지 3만평보다는 다소 축소된 것이나 전체 도시에서 출원부은이 차지하는 비중을 본다면 엄청난 규모의 비명이라 볼 수 있다.

특권을 표시했다.

추진위원장은 이윽고 “기본공간을 확보하는 1단계사업은 성공리에 마무리되는 셈”이라며 “2단계 사업으로 신도시에서 4~5층 높이의 건축 외곽에 30만평 규모의 대규모 업무용 지를 창고 유통단지를 건설하는 문제를 정부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윽고 또한 정부당국이 기본적으로 10만평을 확보하지 않는 도시형 사업의 경우에도 적당유지한다 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만큼 많은

적용은 없으리라는 것이 추진위원장의 주장.

### 2단계도 손쉬울듯

이처럼 출원도시 건설이 급속히 가시화되자 초반에 이같은 계획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의문시하던 출원사들 여타 출원관련업

계의 참여도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발기인의 발족 당시 수십 여명에 불과하던 출원도시건설조합 회원수가 12월 중순 현재 2백여명에 불과하고 있으며, 회원으로 계몽사 금성출판사 동아출판사 삼성출판사 교보문고 을유문화사 교학사같은 대형출판사

및 인쇄·유통업체가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어 위세를 더하고 있다.

이에 원칙적으로 회원수를 3백명으로 확정짓고 있던 추진위원회측은 가까운 시일내에 가입 희망자가 수백명을 초과할 것으로 보고 지금까지는 가입희망자의 재정능력을 여러조건을 심사해 적격자만 회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또 한편론 토지공간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기 위해 기존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각 사별로 적정공간과 시설을 조정할 계획이기도 하다.

### 佛선 브리핑초청도

한편 이처럼 국내에 세계적으로 출원도시가 건설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에 대한 외국의 관심도 높아져 관계자들을 뭉뚱하게 하고 있다. 한 예로 프랑스 외무부는 출원도시 건설계획과 전망에 대한 브리핑을 듣기 위해 지난 14일 李經畧추진위원장을 프랑스로 초대했다.

추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프랑스 외무부 및 문화부 도시담당관인자, 프랑스출판협회 예술도시협회 국립출판박물관 국립사건연구소 책임자들과 만나 출원도시 건설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고 필요한 부분에서의 양국간의 협조사항 및 공동연구부문을 논의했다. 이밖에 일본과 구미각국에서도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

이에대해 출원인들은 명실상부한 세계적 출판문화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란 이같은 국내외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태기자)

### 89出協 10대뉴스

## 一山단지추진·出版人 구속사태등 선정

출판협회는 89년 10대뉴스를 선정했다. 선정된 10대뉴스는 1. 一山단지추진, 2. 出版人 구속사태, 3. 國策잡지, 4. 國策잡지, 5. 國策잡지, 6. 國策잡지, 7. 國策잡지, 8. 國策잡지, 9. 國策잡지, 10. 國策잡지.



출판협회는 89년 10대뉴스를 선정했다. 선정된 10대뉴스는 1. 一山단지추진, 2. 出版人 구속사태, 3. 國策잡지, 4. 國策잡지, 5. 國策잡지, 6. 國策잡지, 7. 國策잡지, 8. 國策잡지, 9. 國策잡지, 10. 國策잡지.

## 국제잡지聯이사국被選 販禁 조치에 不法판결도 원복작가 저작권시비등 포함

국제잡지聯이사국이 89년 10대뉴스에 선정되었다. 이 소식은 89년 10대뉴스에 선정되었다. 이 소식은 89년 10대뉴스에 선정되었다. 이 소식은 89년 10대뉴스에 선정되었다. 이 소식은 89년 10대뉴스에 선정되었다.

출판협회는 89년 10대뉴스를 선정했다. 선정된 10대뉴스는 1. 一山단지추진, 2. 出版人 구속사태, 3. 國策잡지, 4. 國策잡지, 5. 國策잡지, 6. 國策잡지, 7. 國策잡지, 8. 國策잡지, 9. 國策잡지, 10. 國策잡지.



파리 출판가 보고 온 이기웅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최 위원회 이기웅(위원장) 대표, 사친)와 원장이 프랑스 평론가 손철모로 최근 10여일간 파리 출판가들과 만나 보고 26일 귀국했다.

이날 파리에서 6-7백년전 거리에 있는 구 소극원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파리의 출판가협회'라고 지은 출판사와 서점이 융합해 있고, 판화공방, 출판이미기와 상충하는 일리스트레이션 제작사, 웹페이지 코딩 공방 등이 있었다고 이씨는 말했다.

이날 6-7백년전에 지어진 옛 정관 출판가가 도시의 확장으로 다 기능적으로 그렇게 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단란 프랑스 파리지성 도시답지만, 프랑스 출판회와, 예술품서 열회, 국가출판조합, 국립출판발판관, 국립사건연구소 등 제작자들에게 일관 출

판도시 전체계획과 신상에 대해 브리핑했다고 전했다.

"출판인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중인 일산 출판도시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고, 출판도시가 아니라 실제 일구할 출판인들이 실제 모습으로 출판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에 관심을 보았다고 하 려고요"

6-7백년 역사를 자랑하는 파리의 출판가를 보면서 일산에 "7백년역사 크고작은 서점 즐비" 조성될 출판도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영랑 출판도시같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 했다.

이제는 프랑스에서도 출판, 출판가의 지역적 한계를 때려부셔도 출판사들 적극적인 사람들이 새로운 출판가 형성의 필요

성을 외감하고 있다며 "그래서 한국에 출판도시 건설추진에 관심이 큰 모양"이라고 전했다.

귀국해 앞서 프랑스 출판협회(OPEP)로부터 이 협회의 주관 프랑스파리산 후회로 90년 5월7일 서울 교보문고에서 가졌던 정인 "프랑스 도시전시회"의 영 주요기도 받았다고 그는 밝혔다.

이 전시회의 목적이 프랑스 문화를 한국에 알리고 책과 지각권을 판매하기 위한 것 등 세계 지라는 프랑스출판협회의 설명에 대해 이씨는 "문화는 일방 교류보다 쌍방향 교류가 바람직하며, 한국쪽의 프랑스인출판에 협조하는 것만 요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프랑스를 예로들지 않더라도, 우리 책을 해외에 알리는 문화외교의 관점에서 볼 때, 아 파 사들이"라고 덧붙였다.

(신민속 기자)

"-산서 90년대 文化르네상스를"



6만평 「첨단제작」메카로 2百社서 20億각출연기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에 위치한 홍성출판문화산업단지(이하 홍성출판단지)가 6만평 규모의 첨단제작 메카로 200여개 출판사가 20억씩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에 위치한 홍성출판문화산업단지(이하 홍성출판단지)가 6만평 규모의 첨단제작 메카로 200여개 출판사가 20억씩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홍성출판문화산업단지(이하 홍성출판단지)가 6만평 규모의 첨단제작 메카로 200여개 출판사가 20억씩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에 위치한 홍성출판문화산업단지(이하 홍성출판단지)가 6만평 규모의 첨단제작 메카로 200여개 출판사가 20억씩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새한출판문화산업 1位

89년 출판계 10대 뉴스

문화부 신설, 출판단지 추진, 출판가 자진권사, '악마의 불꽃' 출판

문화부 신설, 출판단지 추진, 출판가 자진권사, '악마의 불꽃' 출판



이날 홍성출판문화산업단지(이하 홍성출판단지)가 6만평 규모의 첨단제작 메카로 200여개 출판사가 20억씩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유례없는 大계획" 外國서도 큰관심

홍성출판문화산업단지(이하 홍성출판단지)가 6만평 규모의 첨단제작 메카로 200여개 출판사가 20억씩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에 위치한 홍성출판문화산업단지(이하 홍성출판단지)가 6만평 규모의 첨단제작 메카로 200여개 출판사가 20억씩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 한겨레신문 1989년 12월 30일
- 한겨레신문 1989년 12월 21일
- 조선일보 1989년 12월 31일

**출판계 추진위원회 정기 총회**

출판계 추진위원회 정기 총회가 1990년 1월 5일 서울 신도시에 열렸다. 이 자리에는 출판계 각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출판계의 발전과 출판문화의 확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위원회는 출판계의 발전을 촉진하고 출판문화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출판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출판문화의 확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위원회는 출판계의 발전을 촉진하고 출판문화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出版문화단지건설 순조”**



출판문화단지건설추진위원회 위원장인 김성환 위원장

**一山신도시에 5만여평 규모 2백개사 조합가입...기금 20億원 확보**

출판문화단지건설추진위원회(위원장 김성환)가 1990년 1월 5일 서울 신도시에 출판문화단지 건설을 위한 200개 출판사 조합을 결성하고, 총 20억 원의 기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출판문화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출판문화단지건설추진위원회는 출판계의 발전을 촉진하고 출판문화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출판문화단지건설추진위원회는 출판문화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출판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출판문화의 확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위원회는 출판계의 발전을 촉진하고 출판문화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출판문화단지건설추진위원회는 출판문화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출판문화단지건설추진위원회는 출판문화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출판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출판문화의 확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위원회는 출판계의 발전을 촉진하고 출판문화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출판문화단지건설추진위원회는 출판문화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출판도시 건설, 프랑스에서도 관심

지난해 12월16일부터 28일까지 프랑스 정부 초청으로 북한의 출판가를 불러놓고는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추진위원장을 李龍鎔(李龍鎔 대표·50세)은 7백만 프랑의 예산과 더불어 발전하는 출판업에 경제정책의 출판인과 출판인력의 배치, 일과 공간구조와 피본체 그리고 출판이 국가기간 산업인 그곳의 현황 등을 인상깊게 관찰했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출판업과 프랑스의 출판업자들이 있는 출판도시 건설 계획을 설명하고 말한 이후에 "북의 출판인력의 출판업에 대한 관심과 출판도시 건설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출판업자들은 "북의 출판업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출판업과 프랑스의 출판업자들이 있는 출판도시 건설 계획을 설명하고 말한 이후에 "북의 출판인력의 출판업에 대한 관심과 출판도시 건설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의 출판업자들은 "북의 출판업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출판업과 프랑스의 출판업자들이 있는 출판도시 건설 계획을 설명하고 말한 이후에 "북의 출판인력의 출판업에 대한 관심과 출판도시 건설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의 출판업자들은 "북의 출판업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출판업과 프랑스의 출판업자들이 있는 출판도시 건설 계획을 설명하고 말한 이후에 "북의 출판인력의 출판업에 대한 관심과 출판도시 건설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의 출판업자들은 "북의 출판업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출판업과 프랑스의 출판업자들이 있는 출판도시 건설 계획을 설명하고 말한 이후에 "북의 출판인력의 출판업에 대한 관심과 출판도시 건설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의 출판업자들은 "북의 출판업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출판업과 프랑스의 출판업자들이 있는 출판도시 건설 계획을 설명하고 말한 이후에 "북의 출판인력의 출판업에 대한 관심과 출판도시 건설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의 출판업자들은 "북의 출판업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출판업과 프랑스의 출판업자들이 있는 출판도시 건설 계획을 설명하고 말한 이후에 "북의 출판인력의 출판업에 대한 관심과 출판도시 건설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 출판인물 건설적 접근 지원

출판인물 건설적 접근 지원... (text continues)

출판인물 건설적 접근 지원... (text continues)

출판인물 건설적 접근 지원... (text continues)

출판인물 건설적 접근 지원... (text continues)

출판인물 건설적 접근 지원... (text continues)

출판인물 건설적 접근 지원... (text continues)

출판인물 건설적 접근 지원... (text continues)



### 신선 文化部에 비리

신선 文化部에 비리... (text continues)

신선 文化部에 비리... (text continues)

신선 文化部에 비리... (text continues)

신선 文化部에 비리... (text continues)

신선 文化部에 비리... (text continues)

신선 文化部에 비리... (text continues)

### 유대인 문화의 시대, 영남지역

유대인 문화의 시대, 영남지역... (text continues)

유대인 문화의 시대, 영남지역... (text continues)

유대인 문화의 시대, 영남지역... (text continues)

유대인 문화의 시대, 영남지역... (text continues)

유대인 문화의 시대, 영남지역... (text continues)

### 90年代文化界 간판사

90年代文化界 간판사... (text continues)

### 출판인물 건설적 접근

출판인물 건설적 접근... (text continu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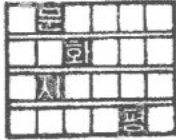
출판인물 건설적 접근... (text continues)

### 一山 出版단지 조성에 呼應 높아 가슴 뿌듯

一山 出版단지 조성에 呼應 높아 가슴 뿌듯... (text continues)

- 한국일보 1990년 1월 12일
- 시사저널 1990년 1월 21일
- 서울신문 1990년 1월 30일





# 출판도시건설

책이 (한 사회 정신의 근간이며 사회 전반의 모든 문제를 포용하는 종합문화의 총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출판이 (나라와 사회의 정신적·문화적 필요를 담보하는 창조의 원동

- 출판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한국출판문화산업 ...
- 단지 건설계획이 작년 1월 정부와 입산 신도시 건 ...
- 설계회 발표 이후 정권 구체화되고 있어 출판계를 ...
- 비호한 각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 이에 본고는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건설 추진위 ...
- 현황을 찾아 출판도시 건설의 당위성과 추진경위 ...
- 그 의미 등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

력)이라는 출판인들의 주장은 쉽게 수긍이 간다. 신전국의 경우 즉, 프랑스를 예로 들어보면 7백년 전부터 파리 6구역 생제르맹 거리에는 구 소르본대학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출판도시가 형성되었으며, 일본에도 (간다)라고 불리는 출판타운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독일의 구텐베르크보다 무려 2백년이나 앞서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 책을 만들었던 저명한 역사록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발전 흥수용 기준, 1988년 현재 출판유통규모 면에서 자유세계 5위, 세계 10대 출판국으로 성장했으며로서도 선진국의 생산구조와 명세적 출판경쟁을 벗어 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도시 집중에 따른 외부 불경제 유발
- 부과의 시설의 도심 임지로 교통난 가중 및 고도 토지이용 저해
- 시설 밀집에 따른 산업 경쟁력 약화
- 규모의 경제성으로 산업경쟁력 취약(30명 이하 사업장 규모, 전체의 54.5%)
- 시설의 노후화로 경영적 효율성 저하

○ 관련업체간 계열화 미비로 산업생산성 저하  
- 자연발생적인 도시내 분산·밀집으로 관련업체 또는 일간 시간 불필요한 교통수요 발생, 생산의 비경제성 초래

## 출판기능의 새 문화적 터전으로 발돋움 공동체적 인식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 공간환경적 제약으로 출판문화산업 전체로서의 공동체적 발전기회추진 곤란(유통구조의 현대화, 출판정보기능의 강화 등)  
○ 국가의 산업 및 공간계획정책에서 소외  
- 출판문화산업의 막중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산업발전정책에서 소외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의 건설이며 이것은 일제 36년, 6.25사변 등을 통한 문화적 양육기를 극복하여 1차적인 출판인들의 후진된 불만을 해소하고 출판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문화적인 토대를 제공한다는 취지 아래 마련된 기피 명민속적인

사이다. 단순히 상업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공동체적 인식 속에서 유기적인 관계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임을 인지한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건설추진위원회에서는 지난 89년 현재 동안 안으로는 출판계의 동의와 협조를, 밖으로는 학계, 문화계인사, 도시건설당국자, 도시건설 전문가와의 심포지엄, 공청회 등을 통하여 1차적인 기반 조성에 동분서주해 왔다고 한다.

올해에는 자동기구를 형성하

이며, 모든 건물을 고층화한다  
- 정부의 개념을 도입하면 추진위의 계획면적 155,400평의 설계도 가능하다고 한다.

- 출판문화산업의 선진화 촉진으로 민족문화 창달 촉진, -유통, 배분의 공동선리로 생산경제성 대폭 신장
- 계획적 공간환경 향유로 산업의 기술혁신 가속화
- 관련산업의 계열화 촉진으로 산업의 공동체적 도약 계기화
- 문화기능의 신도시 도입으

출 가능  
- 산업과 종사자의 집단이건으로 신도시의 경제기반 대폭 강화와 자족성 제고

- 리우근접의 실현으로 토지의 고도이용 및 교통환경의 근원적 개선
- 이권적지의 활용으로 서울의 도시정비 기회 제공
- 교통유발시설의 대량이건으로 교통혼잡 완화여 기여
- 산업종사자의 집단이건으로 인구분산효과 시현(종업원 7천명, 가족포함 2만명 이면 예상)
- 이권적지 활용으로 도심부 토지이용의 순회 및 환경개선효과 계기

므로, 한국출판문화산업 단지가 (우리가 세계에 내놓아 자랑할 수 있는 문화창출의 터전으로서, 그리고 가장 한국적인 내용과 형태를 담아내는 문화산업의 콤파나트)로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란다. (이영미 기자)



▲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건설조합 발기인대회 장면

### 萬物相

1. 새마을운동의 전개

새마을운동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선진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현대 문명의 혜택을 공유하여,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을 위한 대담한 투쟁이다. 이 운동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선진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현대 문명의 혜택을 공유하여,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을 위한 대담한 투쟁이다.

새마을운동의 전개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선진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현대 문명의 혜택을 공유하여,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을 위한 대담한 투쟁이다. 이 운동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선진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현대 문명의 혜택을 공유하여,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을 위한 대담한 투쟁이다.

새마을운동의 전개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선진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현대 문명의 혜택을 공유하여,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을 위한 대담한 투쟁이다. 이 운동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선진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현대 문명의 혜택을 공유하여,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을 위한 대담한 투쟁이다.

• 서울대학교, 1990년 1월 24일  
• 조선일보, 1990년 2월 4일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자료집 ㉟**

초판발행 — 1990년 3월 5일

발행인 — 이기용

편집인 — 김종수·박지열

발행처 —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추진위원회  
서울 마포구 서교동 372-9  
전화 334-7240, 715-1588, Fax. 719-4167

제작 — 이항주

복디자인 — 기영내·기성도

인쇄처 — 신흥인쇄(주)

인쇄인 — 박충일

\*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추진위원회에서 발간된  
(자료집 ㉟)은 부정기 간행물로 회원을 비롯하여  
출판문화산업단지 건설의 추진에 관계되는  
사회 각계에 무료로 보내집니다.

재발행 — 2017. 05. 10

발행인 — 이 은

편집인 — 이환구

발행처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312(문발동 637-1)  
책과 영화의 도시 건설본부(서축공업기념관)  
전화 031-955-0001 팩스 031-955-0065

편 집 — 전기석·조용진·박경신

디자인 — 디자인비따

본 자료집은 기 발행된 자료집의 재고 보충을 위하여  
2017년 스캐닝 작업을 통해 디지털인쇄하였음.